

이영수 설교전집

# 에덴의 메아리

## 7



사천 년,  
아브라함으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  
성경에는 네 인물이 예언되어 있다.  
아브라함 이후 이천 년 만에 오신 세례 요한과 예수님,  
예수님 이후 이천 년 만에 세우심을 받은 두 감람나무.



(재)한국기독교에덴성회선교재단

에덴의  
메아리 7

# 에덴의 메아리

---

발행일 | 2012년 2월 22일 초판인쇄

지은이 | 이영수

펴낸이 | 한국기독교에덴성회

펴낸곳 | 에덴성회

주소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전화 | 031-582-7273

※ 문의 한국기독교에덴성회 총무부 031-582-7273

한국기독교에덴성회 <http://edenholychurch.or.kr>

※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ISBN 978-89-6449-316-8

ISBN 978-89-6449-223-9 (전 19권)

값 15,000원

---



저자 (1984년 당시)



**놀이동산.** 교인들을 위해 만든 놀이동산에 평소에 인근에서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찾아와 즐거움을 나누고 있다.



**놀이동산.** 공기 좋고 물 좋은 가평 중에서도 산 속에 위치한 놀이동산은 식당 등 편의시설을 갖춘 꿈의 성과 연결되어 있다.

# Prologue

## “책머리에”

하나님께서 뜻이 따로 계셔서, 이 땅에 당신의 사람 두 증인을 말씀 그대로(눅4:3, 4:11, 계 11:4) 내세워,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오신 지 어느덧 30여 년 –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새 역사가 일어난 지도 어떤 10여 년이 지나고 있다. 그 동안 주의 종은 신령한 ‘만나’로 따르는 양떼들에게 영의 양식을 제공해 왔으며, 오묘한 말씀으로 깊은 진리를 전하는 가운데, 이제 일곱 번째 설교집이 나오게 되었다.

그는 바울과 같이, 주님과 영적으로 교류하는 중에, 수시로 영음을 듣고 계시를 받아 ‘감추었던 비밀’을 밝혀, 일찍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계시는 주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성도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를 소상히 가르쳐 왔다. 그리하여 그는 사도 바울의 신학을 더욱 심화, 내지

발전시켜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마무리 짓는 깊은 경륜과 섭리를 드러내어 기독교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더욱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한 마디로 말해서 당신의 적수로 밤낮 참소하는(계12:10)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신천신지를 이루는 데 있다고 하겠다. 하나님은 그 적수를 무찌를 수 있는 역군으로서 당신의 형상대로 흠과 티가 없는 아담, 하와를 지으셨으나, 마귀는 이것을 알고 이들을 꺾어 죄에 떨어뜨려 자기편으로 만들어 버렸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뜻이 일단 좌절된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근 6천 년 전부터 마귀에게 빼앗긴 인간을 되찾는 작업을 벌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창6:7) 죄악이 가득한 인간들 중에서 의로운 노아의 자손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홍수로 인류를 멸하였으나, 그것도 여의치 않게 되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당신의 백성을 배출시키고, 모세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을 내세워 역사하셨다. 끝내는 둘째 아담인 당신의 독생자를 땅에 보내어, 거룩한 피로 대속의 제사를 올리게 함으로써 구원의 길을 여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근 2천 년 동안 마귀를 발등상 시키는 데 필요한 하늘 군병이 될 순교자를 배출시키면서,(계6:10-11) 그 정한 수가 차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눅20:43, 행2:35) 이제 이 땅에 예언된 이긴자 감람나무를 내세워, 순교하지 않고도 마귀를 능히 무찌르는 하늘 군병이 되어 멜기세덱

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는 알곡을 배출하는 놀라운 은총이 베풀어지고 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주의 종의 권능과 은혜와 또 이미 나온 일곱 권의 설교집이 잘 말해 주고 있다. 주의 종은 비장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선지자는 죽어도 그가 전한 말은 후세에 남듯이, 이영수는 죽어도 이 설교집은 남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내용이 내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큰 역사 치고 순탄한 길을 걸어온 적이 없었다. 모세가 그러했고, 바울도 그러했으며, 주님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감람나무의 역사라고 어찌 예외일 수 있겠는가?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역사는 결코 매장될 수 없다. 우리는 주의 은총 아래 차분히 성장을 거듭하여 반드시 유종의 미를 거두고야 말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지상과제인 것이다.

끝으로 이 설교집을 읽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항상 같이하기를 빌어마지 않는다. 또한 이 설교집의 출판을 맡아주신 집문당의 임경환 사장님께 감사하며, 교정을 보아주신 장승렬 장로님과 대학생회 제군에게 감사한다.

1984년 11월 최 현



# Prologue

## “재판에 즈음하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면서 크고 작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주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다. 우리는 특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으키신 감람나무 역사에 가지로 부르심을 받아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록된 성경 66권 중에는 사단의 눈을 피해 짐짓 가려놓은 부분이 적지 않으나, 이제 때가 때인 만큼 나중 감람나무의 입을 통해 그 전모가 드러난 것이다. 그리하여 이 진리의 말씀은 설교집 ‘에덴의 메아리’로 계속 발간되고 있으나, 주님 당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좀처럼 깨닫지 못하여 이제야 재판이 나오게

되었다. 몇 군데 잔손질을 한 것은 이미 간행된 설교집 전체와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해서이다. 이 설교집의 재판을 위해 수고하신 윤상학 박사님께 감사하는 바이다.

2004년 6월 최 현

# Prologue

## “설교전집을 발간하며”

1973년 11월 17일의 첫 예배 이후로, 이영수 총회장의 설교를 모은 설교집이 1, 2년에 한 권씩 엮여 나왔다. 그의 설교는 4천 년간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지 드러내고 있다.

성경은 비밀의 책이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비밀은 왜 필요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적 마귀 때문이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섭리를 알려 주셨다. 그 섭리란 궁극적으로 죄의 근원인 마귀를 멸망시키는 과정이다.(요일3:8) 따라서 당연히 마귀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마귀는 성경을 인용하여 질문을 던졌다.(눅44:10-11) 만약 마귀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이 원만히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하나님은 마귀가 알지 못하도록 성경에 당신의 섭리를 비밀스럽게 감추어 두셨다. 그런데 마귀도 알지 못하도록 하신 그 비밀을 과연 인간이 연구해서 알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 시대의 일화로 알 수 있다. 당시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조차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알아볼 수 없는 내용을 굳이 기록하게 하신 것일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필요에 의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것은 그 비밀을 이루어야 할 당사자가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한 내용들이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다.(요5:39, 눅24:44) 즉,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일을 하심으로써 당신이 성경에 기록된 그 주인공임을 밝히신 것이다. 그래서 자주 “때가 되었다.”, “때가 안 되었다.”하시며 당신이 하셔야 할 일정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다.(요2:4, 7:8, 30, 8:20, 13:1) 예수님은 탄생부터 죽음과 부활, 승천까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움직이다 가셨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이다.(요19:30)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예수님 이후에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남아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 십자가를 지신 대가로 하나님의 우

편 보좌에 앉는 권세를 받으셨다.(행7:55, 시110:1)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받으셨다.(계5:1, 7) 그 책은 누구도 볼 수 없었던 비밀의 책으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다.(계5:3)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책을 예수님에게 왜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 주시기 위함이다. 즉, 그 계획을 이루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그 내용을 보시고 당신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수정해야 할 필요를 느끼셨다. 예수님은 육으로 계실 때, 사도들이 있던 당대에 재림하실 것으로 알고 계셨다.(마24:34) 그러나 하나님의 책에는 마지막 때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담겨 있었고, 예수님은 당신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사도 요한을 불러 계시를 주신 것이다.(계1:1)

성경에는 예언된 인물이 네 분 있다. 세레 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두 감람나무가 그들이다. 앞의 두 분은 아브라함으로부터 2천 년 만에 그리고 나머지 두 존재는 4천 년 만에 등장하였다. 계시록은 감람나무를 위한 책이다. 그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마무리 지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다. 감람나무를 예언한 인물이 사도 요한이라는 점에서 감람나무는 사도들보다 중요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감람나무에 대해 알지 못하셨다. 두 감람나무는 이미 주전 520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예

언하신 존재로,**(속4:14)** 예수님은 하나님의 책을 보시고 나서 그들이 당신의 보혈로 역사할 존재인 것을 알게 되셨으며, 그들을 당신의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다.**(계11:3-4)** 그리고 이기는 자가 나오면 감람나무에게 해당하는 언약들을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속3, 4장, 계2:7, 11, 17, 26-28, 3:5, 12, 21)**

하나님께서서는 이긴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주시고 아들로 삼겠다고 약속하셨다.**(계21:6-7)** 그것은 이긴자가 받아서 역사할 생명수 샘물이 당신의 아들의 피로 이룬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긴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행자이므로 아들로 대우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생전에 당신을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른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이긴자가 유업으로 받은 생명수 샘물인 것이다.**(요7:38)**

생명수 샘물이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진, 죄를 씻는 생수다.**(속13:1, 12:10)** 그렇다면 이긴자는 이 생수로 무엇을 하는가? 사람들의 죄를 씻는 일을 한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다.**(롬3:23)**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지자들조차도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에 음부에 가 있어야 했다. 생명수 샘물이 마련되면서, 주께서 그들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이다.**(계5:9, 마27:52-53)** 그들은 하늘에 있는 제단 아래 있으며, 예수님을 만나서 언제 자신들이 억울하게 순교당한 원수를 갚게 되느냐고 여쭙었다.**(계6:9-10)**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길, “너희와 같은 자들의 정해진 수가 차기를 기다려라.”라고 하셨다.**(계6:11)**

그렇다면 그 수란 몇인가? 이 수는 바로 14만 4천이다.(계14:1) 14만 4천에는 구약시대 인물들과 신약시대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이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또 어떤 이에게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것이다. 각자 배출된 시대에 따라 그 시대를 주관하신 분의 이름을 받은 것이다. 이들이 바로 하늘 군병이다.(계19:14) 이들은 마귀를 멸망시키는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그 수는 아직 차지 않았다. 그 수가 찼다면 이미 세상은 종말을 맞이했을 것이다. 그럼 이 수가 언제 차는가? 바로 감람나무가 나타날 때이다. 감람나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수를 마무리 짓는 것이다.

이긴자 감람나무는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받아 그 수를 채우는 사명을 받았다. 그는 하늘 군병을 배출시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다.(계7:2-3) 그리고 낮으로 이들을 추수하여 하늘 공간에 들인다.(계14:16)

마귀를 멸망시키고 난 후에는 하늘 군병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된다.(계20:4) 이들은 마귀가 다스리던 음부에 갇힌 모든 자들을 끌어내어 심판을 한다.(계20:13) 심판의 결과, 천국에 들어갈 자들과 지옥으로 보내어질 자들이 구분된다.(마25:32) 그리고 하늘 군병들은 세세토록 천국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계21:3-5) 즉, 천국은 14만 4천 개의 국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영수 총회장은 세상적으로는 배운 것이 없다. 그러나 그는 하

나님과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성경에 가려진 부분들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받았다. 영화를 본 사람이 그 내용을 쉽게 설명할 수 있듯이,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상 중에 가르침을 주시면서, 때가 되기 전에는 입을 봉하라고 하셨다. 그것은 전해 봤자 듣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밝힐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기 위한 군대를 완성하시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세상이기 때문이다. 조만간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으로 이 세상을 멸하실 것이다. 따라서 지금 보는 하늘과 땅은 사라지게 된다.(계 21:1) 모든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지 26세기 만에,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지 20세기 만에 감람나무가 등장하였기에, 기독교인들이 납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몇백 년, 또는 천 몇백 년 전에 있었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과 같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섭리라면 누구라도 그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지었을 때, 그 나머지 사람들 중 누가 그것이 자신들의 멸망을 가져올 줄 알았겠는가? 노아가 사명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최악에 빠진 인류를 멸하셨던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후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영수 총회장은 이미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아무쪼록 흘러들지 말고, 베뢰아 사람들처럼, **(행17:11)** 이영수 총회장의 말과 성경을 비교 검토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구원의 방주로 나아오길 기대한다.

설교전집을 준비하면서 이미 발간된 설교집 내용을 재검토하여 개정된 국문법을 적용하고,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첨삭을 하였다. 또 첫 설교집이 나온 지 40년 가까이 되므로, 그동안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 말씀도 발전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일관성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창기 성회장님의 도움이 컸다. 혹시라도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모든 책임은 편저자에게 있음을 밝히며, 독자의 질책을 바란다.

2011년 교육학박사 윤상학

차례



*Prologue* 책머리에 ... 06  
재판을 즈음하여 ... 9  
설교전집을 발간하며 ... 11

*Part 01.*

승리의 십자가 아래서

01 기독교 윤리에 대하여 22  
02 하나님의 책략 28  
03 지옥에 대하여 32  
04 주님은 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쓰게 했는가? 36  
05 영적 가나안을 향하여 41  
06 '짐승'을 박멸하는 자 46  
07 영의 싸움 50  
08 하나님과 인간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54  
09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 들이자 63  
10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67

## Part 02.

### 새벽종이 울리면

- 11 빛과 어둠(1) 72
- 12 빛과 어둠(2) 79
- 13 이사야의 고민 86
- 14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갖자 95
- 15 천국과 음부의 갈림길 99
- 16 하나님의 군병과 하나님의 백성 103
- 17 믿음의 세 단계 109
- 18 하나님의 깊은 사정 114
- 19 주님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 118
- 20 영적 싸움에 대비하라 125

## Part 03.

### 믿음의 꽃대를 굳게 잡고

- 21 성령의 기능 130
- 22 주님은 왜 육을 입고 오셨는가? 139
- 23 대속의 의미 153
- 24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158
- 25 시험을 이기라 163
- 26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 167
- 27 섭리의 다림줄 174
- 28 하늘 군병에 대하여 179
- 29 주의 피를 짓밟지 말라 185

## Part 04.

### 길을 찾아서

- 30 하나님의 섭리에서의 이긴자 194
- 31 험하고 높은 이 길 201
- 32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204
- 33 아마겟돈 전쟁에 대하여 208
- 34 영적 추수기에 즈음하여 218
- 35 보물을 천국에 쌓으라 223
- 36 천국과 어린이 228
- 37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다 234
- 38 다시 세우는 역사 240
- 39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247

## Part 05.

### 섭리 안에서

- 40 언약과 축복 252
- 41 한 증거의 성령과 세 증거의 성령 256
- 42 영의 아버지와 육의 아버지 260
- 43 부활은 육신이 다시 사는 것이 아니다 268
- 44 언약과 경륜 272
- 45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 276
- 46 육적 가나안과 영적 가나안 284
- 47 성경을 왜곡한 죄 288
- 48 인간은 죽으면 어디로 가나? 300
- 49 지성소에 대하여 308

*Part 01.*

# 승리의 십자가 아래서



1. 기독교 윤리에 대하여 · 2. 하나님의 책략 · 3. 지옥에 대하여 · 4. 주님은 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쓰게 했는가? · 5. 영적 가나안을 향하여 · 6. '짐승'을 박멸하는 자 · 7. 영의 싸움 · 8. 하나님과 인간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 9.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 들이자 · 10.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Chapter 01.

# 기독교 윤리에 대하여

- 선, 악의 갈림길 -



기독교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성립된 종교라고 하기엔 어폐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이외에 관여하는 자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입니다. 즉 두 신이 인간을 사이에 두고 서로 자기편으로 끌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처럼 하나님과 마귀와 인간이 3각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약 100년쯤 되는 동안에 많은 교파가 생기고, 신흥 종교, 유사 종교, 사이비 종교 등 그 분포도가 매우 다양한 것은 기독교의 이러한 복잡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각 교파에 속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 자신을 위해 믿고 있습니다. 즉 내 마음이 평안하고, 위로를 받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나아가서는 내세에 영생을 얻기 위해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올바른 마음가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이득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믿고 의지하는 데서 오는 결과 내지 소득이지, 그것이 목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만유의 근원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위해 믿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중심이며 인간 중심일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유래부터가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불러 세웠으며, 결코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을 찾아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기 싫어도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는 헌신과 희생이 따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평화보다도 번거로움이, 즐거움보다도 괴로움이 앞서게 마련입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약4:9)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마5:4)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애통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자기가 죄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음을 알고 애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어려워 애통하고, 사랑이 부족하여 애통하고, 기도가 모자라 애통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실로 애통할 일 투성이입니다. 그러

므로 바울처럼 저절로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구나!”(롬7:24)하는 탄식이 쏟아져 나오게 마련입니다.

기독교는 깊이 들어갈수록 시련이 커지며, 바람이 거세게 불어 닥칩니다. 즉 처음에는 넓은 문으로 들어갔다 나중에는 좁은 문을 지나야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 좁은 문을 외면하고 넓은 문으로만 들어가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그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즉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들은 주께서 약속하신 불과 같은 성령을 받고 용기백배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목숨을 내걸고 증거하였으며, 신도들도 전도에 힘써 기독교의 터전을 닦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자기를 위해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자기를 희생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실로 이들의 거룩한 희생의 대가로 오늘날 전 세계에 전파되어 인류에게 소망을 안겨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부터가 그렇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수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에 그렇게 했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로운 법도를 전파하기를 원하시기에 그렇게 했으며, 특히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시기에 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본위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는 어디까지나 주님 본위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믿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고후5:15)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못 믿는 것은 이것으로 구분됩니다. 자기가 아쉬울 때 주님을 찾고, 자기에게 아쉬울 것이 없으면 주님을 멀리하는 신앙은 주님과 무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스라엘의 12 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보내어 40일 동안 현지답사를 시켰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돌아올 정도로 곡식이 잘 되는 살기 좋은 고장이었으나,(민13:23)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의 10명은 “가나안 땅의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하면서 쳐들어가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복된 지역임을 저버린 자기 나름의 소심한 태도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들은 광야에서 쓰러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윤리가 무엇이며 선악이 어디서 갈라지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윤리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법도를 받드는 것이 선이요, 어기는 것이 악입니다.

우리는 세상 법도에 따라 한 인간의 덕성에 대해 여러 모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착하다. 똑똑하다. 담대하다. 욕심꾸러기다. 미련하다. 고약하다.’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윤리에서는 이 모든 덕과 부덕의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정해집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받들고 준행하였느냐에 따라 선, 악이 평가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지혜를 요구하였고, 하나님은 이를 기특하게 여겨 역대의 어느 왕들보다도 푸짐한 물질의 축복도 내렸습니다. 즉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다른 신만 섬기지 않으면 다른 것은 네 마음대로 해도 무방하다.”는 특권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왕비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면치 못했습니다.(왕상11:1)

그럼 오늘날 우리의 신앙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역사는 분명히 인간이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지시하고, 간섭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의 뜻을 받들고, 그 뜻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즉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 이곳에 나온 것이며, 그것을 또 주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나를 버리고 주를 위해 살려는 각오를 해야 하며, 또 실제로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위해, 괴로우나 즐거우나 여러분이 헌신하고 희생해 줄 것을 바라고 계십니

다.(마16:24)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지만 그래도 가야 합니다. 왜? 주께서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나름으로 이 역사를 판단하고 ‘나’를 앞세운다면 스스로 견디지 못하여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처럼 큰 은혜 안에 접어들었다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다면, 차라리 주의 종을 만나지 않은 것만도 못합니다.

## Chapter 02.

# 하나님의 책략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동떨어진 아득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의 대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과 그림자를 엿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와 호흡을 같이하여 일상생활에 직접, 간접으로 간섭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의 또 하나의 배후 조종자인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곧 과거 6천 년에 걸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에덴동산에서 마귀에게 빼앗긴 인간을 당신의 품으로 돌이키기 위해 그렇게 오랫동안 역사해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극도로 발달되어 기계로부터 인간을 회복해야겠다는 소리가 높지만, 참된 인간회복은 인간이 마귀의 사슬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에덴동산을 되찾으려는 하나님의 꾸준한 노력은 이를 훼방하는 마귀라는 적수 때문에 쉽사리 매듭을 짓지

못하여, 하나님은 이모저모로 책략을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모세를 내세워 애굽에 가 있는 당신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창15:13-16)라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말씀한 ‘이 땅’은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고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의 치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조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애굽 인구는 약 700만 가량 되었으며, 이 중에 이스라엘 사람은 장정만 해도 60만이나 되었다니까, 남녀노소를 합치면 약 300만쯤 되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당초의 70명에서(창46:27) 400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급속도로 번식하여, 애굽 인구의 절반 가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 이스라엘 백성은 주로 목축을 비롯한 막노동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일부는 장사로 한 밀천 잡기도 하고, 또 국무총리 요셉의 직계 후손은 관공리로 출세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애굽에 막대한 인

적 자원이 되어 소중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리가 만무했으며, 한편 애굽에 생활 기반을 닦아놓은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을 좀처럼 떠나지 않으려고 할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거짓말을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즉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사흘 동안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허락해 달라고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출3:18)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남에게 거짓말을 해도 무방하나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라도 때로는 거짓말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곧이곧대로 백성에게 알린다면 그것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배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부정직이 선이 되고, 정직이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단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데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감수해야 할 광야 생활을 어떻게 지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경제적인 밑받침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미리 손을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자 그들이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금은 패물을 주게 했던 겁니다.(출12:35-36)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단 탈출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주머니를 털어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었던 것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허겁지겁 군대를 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게 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속셈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적의 창검의 위협을 받게 하여 애굽 시절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이런 적의 위협이 없었던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광야의 유랑생활에 지친 나머지 애굽으로 되돌아가려는 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내세워 마귀와 싸울 때 매우 조심스럽게 지모를 짜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귀쯤 획 불면 대뜸 날아가는 것으로 알았다가는 오산입니다. 우리는 마귀에 대해 경각심을 잠시도 늦춰서는 안 됩니다.

## Chapter 03.

# 지옥에 대하여



누가 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눅 12:5)

인간의 일생은 길어야 7, 8십 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짧은 생애에서 인간의 구실을 별로 못하는 유년기와 노년기를 제외하고, 거기에 잠자는 시간을 빼면 그나마 절반으로 부쩍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제대로 삶을 누리는 시간이란 기껏해야 3, 4십 년에 불과합니다. 그 동안에 우리는 저마다 남보다 잘 살아보겠다고 버둥거리다가 결국은 죽음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났느니, 못났느니, 잘사느니, 못사느니,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



도 따지고 보면 덧없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인생을 ‘안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웃으면서 살려는 낙관주의자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웃고 즐거워할 만한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눈을 비비고 돌아봐야 별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괴롭고 슬픈 일은 언제 어디나 수두룩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실상인 것입니다.

왜 인생은 이렇게 처참하고, 허망할까요? 마귀가 세상과 인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적이요 원수로,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흠과 티가 없이 지음을 받은 신령한 아담, 하와를 범죄에 떨어뜨려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오고 절망을 안겨 주게 했습니다. 실로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의 범죄는 세계와 인간의 운명을 180도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즉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밥 먹듯 지으면서 기껏해야 7, 8십년 동안 복작거리다가, 역시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마련입니다.(롬 5:12)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농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장 6천 년 동안이나 마귀의 소탕전을 전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복음서에서 여러 차례 지옥에 대해 언급하시고, 또 사도 요한에게는 알기 쉽게 불뭇으로 설명하셨습니다.(계21:8) 그리고 야고보는 “허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

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약3:6)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형제를 욕하는 자마다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마 5:22)는 주님의 말씀을 좀 더 자상히 풀이한 것으로, 우리에게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치를 분명히 밝혀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허물을 잘 모르는 반면에 다른 사람의 잘못은 거울처럼 환히 보여, 남을 미워하고 비난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죄악으로, 그 화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 ‘혀가 온 몸을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죽이는 독’과 ‘지옥의 불’이라는 말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선 하나님의 역사가 저 모양으로 용두사미 격이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사랑의 결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형제는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에 남은 모자라고 자기만 똑똑한 줄 아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다. 이것 역시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흔히 입으로 죄, 죄 하는데, 이 죄는 마귀가 배후에서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되풀이하는 사람의 말로는 어쩔 수 없이 지옥행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원수와 한패거리가 되다니, 이런 얼빠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옥에 대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착각을 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엄연히 기록된 지옥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설마 사람을 그런 무서운 곳에 던질까? 죄를 짓지 말

라는 위협이겠지.’ 하고 안이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옥은 엄연히 존재하며, 죄인이 지옥에 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옥을 마귀가 죄인을 가두는 곳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잘못된 생각입니다. 죄인이란 마귀와 단짝이 된 자로 마귀가 제일 기뻐하는 사람인데, 무엇 때문에 그를 세세토록 고통을 주는 불못에 던지겠습니까?

지옥은 신이 신을 처벌하는 형무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 마귀를 처단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마귀는 하나님을 보통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밤낮으로 하나님께 참소하는’ 것이 바로 마귀이며, 천지개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마귀는 하나님께 즐기치게 도전해 왔으며, 현재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귀를 완전히 멸망시켜 하늘나라를 세우는 당신의 오랜 경륜을 이루었을 때, 마귀 및 마귀와 동조한 모든 인간에게 일대 형벌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곧 지옥입니다.

## Chapter 04.

# 주님은 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쓰게 했는가?



신령한 영적인 이야기는 한정된 인간의 머리로는 헤아리기 어렵다기보다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께서 땅에 계실 때 고전하신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주님의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영의 세계를 이해하려면 영적인 눈이 뜨이고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못하여,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100% 믿고 따르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육적인 이야기를 많이 섞어가면서 당신의 정체를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천사만 못한 존재로 오시고, **(히2:9)** 완전한 조건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불완

전한 조건을 가지고 오셨으며,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주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주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인간과 같은 위치에서 피를 흘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못 인간들을 대속하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리한 여건 하에 움직이신 주님이므로 땅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당신의 한계를 스스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요14:12)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땅에 계실 때의 주님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우주의 창조에 동참한(창1:26) 신령한 존재이지만, 육을 입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땅에서는 이런 제약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지난 2천 년 동안 기라성 같은 사도나 성자, 대 신학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바울 신학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 신학으로 족하다면 주께서 사도 요한에게 새로운 지시를 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 지시의 내용이 곧 계시록입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요16:12-13) 여기서 주님은 진리의 성령을 충만히 받은 자가 나타나 주께서 못다하신 말씀을 대언할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 대언자가 곧 감람나무요, 이긴자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계2:17) ‘흰 돌’ 위에 기록한 이름은 주께서 하시지 못한 깊은 비밀의 말씀을 의미하며, 돌은 주님을 상징합니다. 이 흰 돌의 내용은 두 감람나무 중에서 열매를 거두는 종에게 가르쳐 주게 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 말씀은 오늘날 전 세계의 7억 기독교 신자가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수억의 신도와 또 앞으로 탄생될 무수한 신도들이 귀를 기울여야 할 영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주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예언한 지 근 2천 년이 지난 오늘날 그 말씀이 이 땅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긴자가 오늘이 아니라 사도 요한 당시에 출현했다면 지난날의 모든 신도들은 바울의 신학 체계가 아니라 감람나무의 신학 체계에 의해 신앙생활을 해 왔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었더라면 만유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벌써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신학으로는 시간만 지연될 뿐, 마귀를 발등상 시켜 하늘나라를 이룩하려는 작업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쓰시는 나팔수로서, 내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충실히 대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중학교 3학년 공부밖에 하지 못한 것은 주께서 뜻이 계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나도 환경만 허락했더라면 남 못지않게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환경을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남들처럼 대학을 나오고 미국 유학을 통해 박사 학위를 따고 나서 이 단상에서 외친다면 듣는 사람들은 저마다 내가 유식해서 저런 말을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 이름은 올라갈지 모르지만, 주의 대변자로서 주께 영광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지식은 주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바울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당대의 대학자로 설교에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지식이 섞여, 듣는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약했던 것입니다. 지식이 굳어더기가 된 셈입니다. 저간의 소식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2:2)는 바울의 다짐 속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바울다운 현명한 자기 반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참된 주의 종은 그 입술이 주의 마이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선 역사의 종도 처음에는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것이 끊기자 자기 생각이 앞서 중구난방이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의 경우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과 수시로 교류하던 그가 오죽 답답했으면 밤중에 변장을 하고 무당을 찾아 갔겠습니까?(삼상28:8)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계1:3) 이 예언의 말씀이란 물론 계시록에 예언된 내용을 가리킵니다. 주의 종이 터뜨리는 하늘나라의 비밀도 귀가 열려 자기의 마음에 와 닿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겐 마이동풍,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단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영광의 주께서 땅에 계실 때 미처 못 한 말씀이 기록된 계시록의 내용을 터뜨리니, 기성교회에서는

이단시하고 있습니다. 2천 년 전의 예수밖에 모르는 저들이 오늘의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탓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올바르게 믿으려면 오늘의 예수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에는 멜기세덱의 반열에 속하는 영들이 지성소에서 주와 함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계6:9-11 참조) 이 단상을 통해 나가는 새로운 말씀은 이 영들이 지성소에서 듣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의 역사를 오늘날 믿노라 하는 자들이 외면할 뿐 아니라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고로 이렇게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 Chapter 05.

# 영적 가나안을 향하여



오늘날 교계에서 볼 수 있는 큰 폐단의 하나는 ‘주여’ 하고 부르며 믿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 안이한 신앙 태도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종합적으로 연결해 생각하지 않고, 어느 한두 구절을 따로 떼어서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상고하면 구원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체로, 번개보다 억만 배나 빨리 움직이면서 우주에서 주인 행세를 했으며, 하나님과 대면하여 능히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나는 광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히 정면으로 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세나 바울과 같은 큰 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 하와가 죄를 지어서 마귀의 형상을 닮게 되었으며, 그 후손이 오늘의 인간으로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도외시키고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고, 올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없습니다. 흠과 티가 없는 영체인 아담, 하와도 마귀에게 넘어가는 판국에, ‘주여, 주여’ 한다고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경계해도 못 당하는 것이 마귀의 농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에 선 자를 마귀가 채어가도 당장은 방관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6:6 참조)** 앞선 하나님의 역사에서 주의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 9만의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마귀의 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알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되찾으려는 섭리가 우리의 역사입니다.

노아의 홍수에 대해 잠깐 생각해 봅시다. 노아의 홍수는 오늘날 잘 알려져 있지만, 당시에 노아는 미친 영감으로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수천 만 명의 백성들을 홍수로 쓸어버리고 노아의 식구 여덟 명만 구원하기 위해 배를 지으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철석같이 믿고 지키시는 대로 하였더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밥이 되어 당신을 거역하는 무리는 가차 없이 쓸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무작정 자비하신 줄만 알았다가는 오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게 섬겨야 합니다.(계14:7) 하긴 내 말이 얼른 납득이 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수역의 신도들은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불과 몇 백 명을 앞에 놓고 그렇지 않다고 떠드니 말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깊은 내막과 마귀의 정체에 대해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전에는 구원이 쉽지 않다는 것을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쓸모 있는 하늘 군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안 되면 대한민국의 4천 만이 다 믿어도, 아니 세계 50억 인구가 다 신자가 되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귀의 밥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쓰시고 싶어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죄, 유전죄, 자범죄가 누적된 인간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해도 깨끗이 소멸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한평생 새벽 제단을 쌓고 철야하면서 기도하며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것이 불과 3, 4초 동안에 씻음을 받는 길이 있다면, 처음 듣는 사람은 코웃음을 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주의 보혈의 은총이지만, 주님 당시에는 되지 않던 일입니다. 주님은 반신반인으로서, 인간을 대할 때에는 인간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에는 신으로 행세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땅에 계실 때에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끝까지 따른 자는 한 사

람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부활하신 후 곧 승천하지 못하고 40일 동안이나 지상에 머물면서 이모저모로 번거롭게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일찍이 주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당당히 입성하실 때에는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치며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저마다 ‘예수가 별것 아니었구나!’ 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수천 명이 아니라 몇백 만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것은 주님에게 있으나 마나한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인을 칠 수 없습니다. 유사시에는 모두 마귀의 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선 하나님의 역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 부름을 받아 귀한 성령의 은사를 받고도 다 쏟아 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 피를 짓밟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선 역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님 이후 가장 화려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왜 저 모양이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은혜가 없었습니까? 사람이 없었습니까? 돈이 없었습니까? 열성이 없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체계를 몰랐습니다. 감람나무의 역사가 무슨 역사인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그들의 위치를 저버리고 방향각을 잃은 채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저 지경이 되고 만 것입니다.

저들은 주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주께서는 하늘 군병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 군병들에게 주님은 세마포

를 입혀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계19:8 참조) 세마포란 말하자면 갑옷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여러분, 군대란 무엇입니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군대입니다. 여차하면 도망칠 궁리나 하는 자를 군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늘 군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험하고도 좁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으니,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탄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라는 찬송가대로, 끝까지 참고 견디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길을 가야 합니다.

## Chapter 06.

# ‘짐승’을 박멸하는 자



성경은 신, 구약 합쳐서 66권의 방대한 것으로 매우 복잡다단하지만, 거기에는 몇 가지 초점이 있으며, 이 몇 가지 초점들은 다시 하나의 초점으로 모아집니다. 우선 모세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들어 쓰신 위대한 종으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였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을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흠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헛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하신 대로 하라.”(신20:16-17)

이 말씀에서도 엿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인간의 머리로는 잘 납득이 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세가 애

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백성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조리 죽여야 한다니, 비록 그 상대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원주민으로서 호홉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명령하였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라.”(신20:18)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이 공경하는 탄 신을 섬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예 원주민을 모조리 없애 버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를 박멸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의 목숨도 초개와 같이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준엄한 일면, 즉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인본주의 사상과 대립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주님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주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이로 못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등, 이적과 기사로 인기가 상승할 때에는 사람들이 구름 떼처럼 모여들고, 제자들은 출세욕에 불타 어깨에 자연히 힘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께서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된다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실토하시자 제자들은 여간 실망한 것이 아니었습니

다. 심지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요11:27)하고 고백한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당황한 나머지, 주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마16:22) 하고 간할 정도였습니다. 주께서 왕이 되면 한 자리 하려고 잔뜩 베풀고 있던 저들에게 주님이 고난을 당해 죽는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신세가 되도록 미리 각본이 짜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사53:5) 고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 값으로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주님 당시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당시에 태어났다면 이해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신, 구약 성경과 설교를 통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100% 인정하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당시에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요6:53) 그러니까 주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긴자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이긴자를 내세워 불과 이슬과 생수의 은총을 베풀어 이모저모로



역사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계13:1-8)

이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하나님의 군병과 싸워 이길 정도로 강력하게 무장되어 있습니다.(계 11:7-8참조) 또한 이 짐승은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계17:8)로서, 지상에서 하나님의 군병의 일정한 수를 채워, 이 짐승을 진멸하는 것이 이긴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 가나안에 들어간 연후의 일입니다. 모세와 이긴자의 사명에는 상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삿 2:21-22참조) 이것은 우리 영적 이스라엘에게 좋은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 Chapter 07.

# 영의 싸움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신의 지배를 받게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성령이 아니면 악령에게 속하게 되어 있으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인간을 사이에 두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에게는 빛이 간섭하고, 빛에 속한 자에게는 어둠이 침투하니 말입니다.

왜 빛과 어둠, 즉 성령과 악령은 인간을 사이에 두고 싸울까요? 이 두 영체는 매우 강력하여 직접 부딪치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피차 상처가 크기 때문에 인간을 앞잡이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물론이고 마귀도 인간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인간을 처음에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대신해서 마귀와 싸우게 하려고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

다. 이것을 마귀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마귀도 잠자코 구경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아담, 하와)을 꺾어 자기 편으로 만들어 버렸으며, 그 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마귀의 편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잃었던 인간을 되찾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마귀와 인간의 삼각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부탁을 하십니다. 아담, 하와를 비롯하여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밖에 많은 종들에게 부탁해왔으며, 오늘날 이긴자에게도 물론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탁하는 데서 기독교가 성립합니다. 그 부탁한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하십니다. 이 점은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마귀를 가까이하게 되고, 마귀를 멀리하면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귀에게 속하는 것을 하나님은 악으로 정죄하지만, 마귀는 선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한번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가 마귀에게 속하면 전보다 7배나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마12:45) 영의 문제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영적인 위치를 잘 모릅니다. 즉 인간은 언제나 어떤 신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런 줄 모르고 자기는 자유로운 존재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낮잠을 자고 싶으면 자는 줄로 알고 있지만, 그 배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신이 없다면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래가 부자유스러운 존재입니다. 숙명적으로 신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악령은 저마다 인간을 사이에 두고 자기 소유로 하기 위해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인간에게서 고뇌와 번거로움이 떠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마치 큰 나라 사이에 낀 작은 나라에 평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나라가 아주 빼앗아 버리면 차라리 평온을 누리게 됩니다. 영의 세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성령과 악령이 언제나 인간을 중간에 두고 서로 싸우므로, 어느 한쪽이 완전히 패할 때까지는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던 자가 죽어서 음부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는 쌍수로 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지상에서 마귀가 발등상 되어 하나님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무엇보다도 싫어하고, 성령의 역사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손꼽아 고대하는 것입니다. **(계6:10-12)**

음부란 문자 그대로 어두컴컴한 숨 막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광대한 마귀의 세계로 어마어마하게 큼니다. 이곳을 박살내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 군병에 의해서입니다. 이들이 입는 세마포는 일종의 전투복으로, 마치 흰 옷에 유리가루를 뿌린 것처럼 반짝거리며 그 찬란한 빛이 무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옷은 몸에 걸친다기보다는 몸을 에워쌌으므로 주와 방불한 형상을 갖게 됩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그 밖의 사람은 마귀의 편에 속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빛과 어둠으로 성립되어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고, 어둠 속에 있는 자는 자연스럽게 빛에서 떠나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빛만 강조하고 어둠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등한시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한쪽만 알고, 다른 한쪽을 알지 못하는 폐단이 만들어진 겁니다.

## Chapter 08.

# 하나님과 인간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 1) 인간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우주를 지으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데에는 큰 뜻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예수를 올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에 대해 아무도 분명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믿고 따르는 많은 신도들은 올바른 지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다만 믿으면 구원 얻으려니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 왔던 것입니다.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적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곧 마귀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신령한 영체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아담, 하와를 죄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서는 이 적수를 꺾는 것이 지상과제이며, 하나님께서 6천년 동안 인간을 통하여 역사하신 최종 목적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쓸 데가 있어서 지으신 것이지, 우연히 지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마귀를 소탕하기 위한 역군으로서 뚜렷한 목적을 갖고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덮어놓고 소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소탕전에는 일정한 계획과 절차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우선 마귀의 세력을 무저갱에 가두어 천년세계를 이룬 다음, 한 때, 두 때, 반 때를 거쳐 최종 소탕전을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세 전에 예정한 하나님의 의도가 이 군병을 배출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14만 4천의 군병이 필요하여 인간을 지은 것입니다. 이 수가 있어야 마귀를 소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간을 전사로 지으셨는데, 그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전에 마귀의 밥이 되고 세상이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매우 불리한 여건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장장 6천년 동안 신, 구약 시대에 걸쳐 수많은 선지자를 세우고, 급기야는 당신의 독생자까지 피를 흘리게 하고, 보혜사 성령을 내려 보내고, 이긴자를 세워 마무리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모두가 인간이 지음을 받은 후에 인간이 세운 것이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원대한 경륜

에 따라 뚜렷한 목적을 지닌 종교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위한 종교이지, 인간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주로 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따라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늘 군병은 아무나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선민 중에서 믿음이 독실한 사람은 말씀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을 위해 ‘목 베임을 당해야만’ 했고, 신약 시대에는 불과 같은 성령을 받고 ‘예수의 증거’를 위해 목숨을 아낌 없이 던져야만 했으며, 오늘날 이긴자 감람나무 시대에는 그 섭리 안에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해야’ 그 영예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계17:14 참조)** 이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지,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 2) 하늘 군병이 되자

오늘날까지 기독교는 이해하기 쉽고, 적응하기 쉽고, 믿기 쉬운 것을 추구하여 수적으로는 굉장히 증가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퇴보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를 필요로 하시는데, 예수를 쉽게 믿으려는 자들의 수만 늘어나니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수 없는 군대가 아무리 많으면 무엇 합니까?

성경에는 마귀와의 전략상 가려놓은 대목이 많습니다. 오늘날



때가 되어 이 단상에서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나온 설교집 여섯 권만 정독해도 내 말이 거짓이 아님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현재 여러분만 놓고 설교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 세계를 상대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 모세를 내세우고, 그 언약의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보여주어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한 내용이 모세 5경으로 구약의 중요한 경전이 되고, 또한 주께서 배 위에서 몇 사람의 어부들에게 전한 말씀이 전 세계 신도들에게 영의 양식이 될 줄은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 주시는 바를 대변하고 있는 내 말은 오늘날 적어도 영의 세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한 번쯤은 상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함과 아쉬움을 호소하여 도움을 얻고 위로를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겨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엄밀히 말하면 온당치 않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신에게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신이 인간에게 도움을 청하고 계십니다. 언뜻 들으면 귀에 거슬리겠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눈여겨보시면 내 말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유래부터가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필요해서 세운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운 종교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찾았을까요? 거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요구

를 잘 알고 믿어야 합니다. 나도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기 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백 번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거기에는 반드시 그만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요구가 무엇인지 모르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막연히, 예수 믿고 천당 가려니 하고 생각할 뿐, 주께서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부름을 받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해서 에덴성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 발로 이곳에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이모저모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곳 에덴성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6천 년 역사는 크게 셋으로 구분해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 시대를 중심으로, 그 이전의 모세 시대와 그 이후의 감람나무 시대가 그것입니다. 모세 시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대이동을 위해 저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그 60만 장정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나를 먹여 준 것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먹고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가

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불순종의 백성으로서 책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시대는 이와는 판이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신 후, 약속하신 대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땅 끝까지 증거하기 위해 120 문도에게 불의 성령을 내렸습니다. 즉 이 120 문도는 주의 섭리 안에 부름을 받고 빼냄을 입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불과 같은 성령을 받고 사망에 흠어져 목숨을 걸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도망치고 숨기에 바빴던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단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성령을 받고도 쥐구멍을 찾기에 바빠 잠자코 있었다면, 은혜 받고 침묵한 책벌을 모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헌신적인 전도로 기독교의 기반이 닦이게 되었으며, 그 후로 예수 믿고 천당 가자는 것이 하나의 구호가 되어, 은혜 받은 무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메시아 시대는 주의 뜻을 100% 순종하여 성공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람나무 시대가 되면 또 양상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감람나무 시대를 일으키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많은 가지들이 은혜만 좋아라고 받아왔습니다. 특히 앞선 역사의 경우에 그러합니다. 그들은 은혜만 알고 말씀에 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

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호14:5-6)라는 말씀 그대로, 감람나무의 그늘에 거하는 자들은 이슬과 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 신앙의 뿌리가 백향목 같이 깊이 박히고, 그 아름다움이 감람나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람나무의 가지들에게 이슬과 같은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실까요? 거기에는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변하면 제사가 달라지는 것처럼, 은혜가 변하면 요구가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못하면 역시 이에 따르는 책벌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필요로 해서 우리를 불렀는지 알아야 합니다. 나를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이영수가 기회를 잘 타서 출세했다고 합니다. 사정을 모르니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여러분, 앞선 역사에서 보아서 잘 알겠지만, 원체가 잘리면 그 가지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방 시들게 마련입니다. 내가 역사꾸러기 가지였다면 청량리 시절에 벌써 박살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바와 같이,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으로부터 금 기름이 흘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속4:12)

이 감람나무가 뭐 하는 종인지 알아야 하며, 그 가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람나무를

세운 것은 하늘의 군병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시는 이슬의 성령을 힘입어 하늘의 군병을 만들 때 비로소 감람나무는 할 일을 하는 것이며, 가지는 하늘 군병으로 만들어질 때 제 구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기는 오늘날처럼 감람나무의 인기가 폭락된 때도 없습니다. ‘감람나무’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이 따로 계셔서 세우시고, 또한 요구하는 바가 계시니 어떡합니까? 싫어도 감람나무를 증거할 수밖에요.

이 감람나무와 그 가지가 뭘지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감람나무의 그늘에 와서 생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도 뿌리치고 나가서 오순절의 불과 같은 은혜를 흠모한다면 그야말로 웃기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대학을 다니다 말고 초등학교에 편입하여 ‘학교 종이 땡땡’ 하고 노래 부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이아몬드를 몰라보고 비스킷과 바꾸는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지는 않겠지요? 모세의 율법이 자유율법까지의 몽학선생이었던 것처럼, 이 불과 같은 역사는 생수의 역사의 징검다리입니다.

감람나무가 전하는 생수의 은혜와 오순절의 불과 같은 은혜의 차이는 죽은 자의 시체에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감람나무의 이슬 같은 은혜를 받은 자는 죽으면 그 시체가 산 사람처럼 아름답게 변하지만, 오순절의 불과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평생을 고생하다가 순교를 한 후에야 그 시체가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여러분은 감람나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차원에서 움직이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 시대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산더미처럼 많이 모여도 소용없는 것처럼, 감람나무 시대에 이긴자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들끓어도 그야말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선 신앙 체계가 바르셔야 합니다. 그것이 곧 은혜 받고 쏘지 않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없는 말씀을 듣고 있으며,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곳에서는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 Chapter 09.

#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 들이자



예수를 믿는 것은 쉽고도 어렵고, 어렵고도 쉽습니다. 자기가 살아 있으면 어렵고, 자기를 죽이면 쉬운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릴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살려고 예수 믿지, 죽으려고 믿느냐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살기 위해 믿습니다. 그러나 이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의 육이 아니라 영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요6:63)는 말씀 그대로,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이 사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라는 ‘나’는 이 흙으로 돌아갈 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육체는 물론이고, 나의 자랑, 나의 영광, 나의 인격 까지도 주 앞에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15:31)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물론 문자 그대로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살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주의 피로 새로 태어나기 위해 죽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수도(修道)의 종교가 아닙니다. 굳이 수도라는 말을 갖다 붙이자면 바울처럼 날마다 죽고 사는 작업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수도와는 판이합니다. 세상의 수도는 나를 가꾸고 살리는 것이지만, 기독교의 그것은 나를 버리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학문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아무리 신학 체계가 잡혀 있고 성경을 잘잘 외워도 자기가 뺏깁니다. 살아 있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가 유식함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의 초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주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계시는' 경지가 그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자기'가 살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죽였을 때 비로소 자기가 영으로 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조화입니다. 즉 텅 빈 자기 속에 성령이 들어와 심사와 언행을 주관할 때 자기는 반신반인으로 화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주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갈2:20) 하는 경지가 그것입니다.

여기 이르기 위해서는 우선 '나'를 앞세워서 안 됩니다. 내가 잘했다, 내가 열심히, 내가 똑똑하다, 내가 유식하다, 내가 장로다, 회장이자, 하는 이 모든 자의식은 주의 십자가 앞에 모조리 내



동맹이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자기를 아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죄의식이 앞서게 마련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새까만 죄 덩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으로서의 겸허한 태도가 인간 본연의 자세입니다.

주님도 땅에 계실 때에는 언제나 당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앞세웠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이야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주께서 자기를 의식했다라면 십자가를 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26:39) 이리 하여 주께서 십자가를 지고 흘리신 피 권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바 아버지’(롬8:15)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좇아 십자가를 놓치고 사랑을 저버리면 영적으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일신의 괴로움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으면 입에서 원망과 한탄이 새어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하늘 군병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핍박과 조롱과 구설수에 굴하지 말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운 고비를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주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경우에 자기 힘으로 버티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됩니다. 주의 힘을 빌리는 방법은 기도와 찬송으로 문제 해결을 주께 맡기고 자기는 하회를 기다리

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지금 이러저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주옵소서!” 하고 주께 의지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찬송을 부르십시오. 이렇게 하면 부지불식간에 길이 열려 문제가 해결되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뒤로 물러서고 주를 앞세우는 것은 물론 어떤 역경에 처하여 고난을 당했을 때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제 어느 때나 믿는 자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근본 태도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에게 닥쳐오는 시험을 하나하나 이겨 나갈 때 마귀는 차츰 범접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번번이 쓰러지면 마귀는 그 허점을 노려 언제나 침범하는 것입니다.

## Chapter 10.

#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를 믿는 신자들 중에도 심판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회의를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심판을 가리켜 죄를 짓지 말고 선하게 살라는 하나의 경고 정도로 알거나, 아니면 ‘설마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보내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던지겠느냐?’ 하고 안이하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소박한 자기 나름의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미워서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지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의 편에서 움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건지려고 해도 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계6:10) 지성소에 가서 대

기하고 있는 하늘 군병들은 주님께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마귀의 앞잡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하여 양과 염소, 하나님의 편과 마귀의 편이 둘로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이때의 원수는 인정사정을 보아 줄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탈을 쓴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심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계시록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계20:11) ‘땅과 하늘이 간데없다’는 것은 천지개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지개벽이 있는 다음에 심판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세상이 그대로 존속되어 해가 여전히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지는 한 심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계20:12)

우리는 책들과 책이라는 말씀에서 심판을 받아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수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복수로 표시되고 후자는 단수로 표시된 것입니다. 이 책들은 14만 4천 권으로, 멜기세덱의 반열에 속하는 자의 명단이 기록된 ‘어린 양의 생명책’과는 물론 다릅니다.

이 심판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14만 4천의 왕들이 각각 맡게 됩니다.(계20:4) 그러니까 알기 쉽게 말해서 14만 4천 군대의

법정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판사가 14만 4천 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판사에게서 재판을 받는 자는 무수히 많으므로 지상의 시간으로 치면 이들을 모두 재판하자면 몇 만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단시일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의 왕은 하나님이나 주님과 동일한 장막에 거하여 하나님과 주님을 수시로 뵈 수 있지만, 일반 천국 백성은 하나님과 주님을 직접 뵈 수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14만 4천의 왕의 슬하에서 자기 분수대로 영화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벌어질 때 주님은 왕들을 일일이 호명하여 서열을 정하고 왕국을 배당해 주십니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175개 국가가 있지만, 천국은 14만 4천 개의 왕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국에는 물론 각각 그 규모대로 조직과 부서가 정해집니다.

심판을 하는 왕, 곧 제사장에게는 정죄권과 사죄권이 부여되어 이들은 상당한 자유재량을 발휘할 수 있으나, 성령을 훼방한 죄만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기에 저촉되는 사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가장 큰 형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은 성령을 훼방한 죄 이외의 잘못에 대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다행히 지상에서 안면이 있는 사람은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자기가 심판하고 싶은 사람이 자기 담당이 아닐 경우에 주님에게 그 사람을 자기 앞으로 돌려 달라고 신청하면 허락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심판할 경우에 왕은 천사를 시켜, 먼저 생명책에 기록된 자부터 시대 별로 호명하여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시대는 각각 하나님과 주님의 언약에 따라 세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던 시대, 모세율법 시대, 주님 이후 자유율법 시대, 이렇게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 녹명된 무리는 죄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가 죄보다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정죄를 위한 심판이 아니라, 시상을 위한 심사가 베풀어진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90% 이루어졌다면 그만큼 모습이 바뀌게 되며, 이 모습에 의해 계층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하여 같은 계층끼리 한 무리를 이루어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핏줄에 따라 한 가족을 이루지만, 천국에서는 영적으로 이루어진 정도에 따라 새로운 가족 형태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Part 02.

# 새벽종이 울리면



11. 빛과 어둠(1) · 12. 빛과 어둠(2) · 13. 이사야의 고민 · 14.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갖자 · 15. 천국과 음부의 갈림길 · 16. 하나님의 군병과 하나님의 백성 · 17. 믿음의 세 단계 · 18. 하나님의 깊은 사정 · 19. 주님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 · 20. 영적 싸움에 대비하라

## Chapter 11.

# 빛과 어둠(1)

-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요12:46) -



주님의 생애는 크게 둘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사적인 생애와 공적인 생애가 그것입니다. 전자는 주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기까지의 30년의 생애이고, 후자는 하늘의 도를 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의 3년 동안의 생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준비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30년 동안은 목수의 아들로서의 사생활을 하시고, 3년 동안은 하나님의 아들로써 공생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후의 생활에서 영적으로 판이하게 다른 것은 빛과 어둠의 존재였습니다. 즉 주님은 본래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30년의 사생활은 어둠으로 가려지고, 3년의 공생활은 빛으로 에워싸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숨은 뜻



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님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당시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고,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장성한 후에는 목수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대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평범한 시골 목수로 조금도 색다른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위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외모로나 인격적으로 비범한 존재로 대뜸 눈에 띄어 누구나 우러러보고 존경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주님은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30세까지는 평범한 인간으로서 움직였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산에 놀러가기도 하고, 고기잡이도 하고, 물론 목수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따라서 주위 사람들은 그를 자기네와 똑같은 사람으로 간주하였으며, 마귀도 방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30년 동안의 사적인 생애는 아무리 연구해도 거기에는 인간의 행적 밖에 없습니다.

빛과 빛 또는 어둠과 어둠끼리는 부딪치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이 확실히 구분될 때 비로소 알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앞선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역사가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근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빛이 꺼져 버리고 이곳에서는 빛을 발하니 갈등이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따로

시작하라고 명령한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메시아의 직분을 다하도록 지시가 내리자, 주님은 육신의 어머니를 위시하여 여러 동생들과 작별하고 세례 요한에게로 갔습니다. 한 가장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변모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주님은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 권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주님은 정해진 메시아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 길은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메시아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성경이 그 행동반경을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경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마음대로 할 테다.” 하고 딴 길을 간다면 그것은 당신의 존재를 스스로 부인하는 결과가 됩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음으로써 공생활의 첫발을 내어 디뎠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하여 주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빛으로 환원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빛과 지상의 빛이 연결되어 그 즐거움을 통해 하늘과 땅의 교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마귀는 빛이 자기 세계를 침범한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쥐도 새도 모르게 뒤통수를 얻어맞은 격입니다. 하늘에서는 빛에 대한 어둠의 공세에 대비하여 만반의 대책을 강구합니다. 주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것은 마귀와의 첫 대결이었습니다. 공생활에 접어든 주님은 빛, 곧

성령의 인도를 받아 움직이게 됩니다. 즉 빛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빛을 '불담'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육을 입고 땅에서 하늘의 큰일을 담당하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불담으로 지키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말씀으로 물리친 사실이 주님의 간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하시는 동안에 주님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지금까지 그 깊은 내막을 드러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앞으로 있을 모든 일에 대해 지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즉 앞으로 하늘의 도를 전파하기 시작하여 하나님 우편에 오르기까지 마귀에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자상한 지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가 40주야를 금식하면서 계명을 비롯하여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고 목적지에 나가도록 여러 가지 지시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출43:2 이하 참조) 하나님의 아들도 육을 입고 땅에 거하는 이상 이런 하나님의 지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내용을 측근인 제자들에게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 마귀에게 전달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지시를 받지 못했더라면 마귀를 물리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당신이 가시 면류관을 쓰고, 모욕을 당하며, 채찍에 얻어맞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서 조롱을 받게 된다는 것까지도 미리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비마다 능히 감당해 내었던 것입니다. 약자가 강자에게 당하기보다 강자가 약자에게 당하는 것은 몇 배 괴로운 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처형한 것이 십자가의 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조롱하는 무리를 위해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올렸습니다.(눅23:34) 실로 주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최대의 사랑입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일을 다 하고 나서 주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해친 사람을 웃는 얼굴로 대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속죄의 제물로 삼는 것은 결코 간단히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애가 개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빈틈없는 배려를 엿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사야서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인용하여 당시에 내노라고 세도를 부리는 자들을 탓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사6:9-10, 마13:14-15) 왜 하나님은 이들로 하여금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였을까요? 만일 교권을 잡은 이들의 눈과 귀가 열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것이며, 하

나님의 원대한 뜻이 좌절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처형되기 얼마 전에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친 것도 깊이 상고해보면 하나님의 각본에서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구동성으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면 사태가 뒤바뀌어 당시의 권력층이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을 주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물론 주님을 아주 버린 것이 아니며, 주께서 승천하신 후 불과 같은 성령을 받아 목숨을 내걸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기독교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주님은 땅에 계실 때 이것을 내다보시고 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였으며, **(요17:1-26)** 이들의 공로를 인정하여 왕의 반열에 참여할 것을 약속하고, **(마19:28)** 천국의 기초석으로 삼을 것을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계21:14)**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본 성도는 500여 명이나 되지만, **(고전15:6)**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성도는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불과 같은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이런 소중한 성령을 부어 주시지 않습니다. 이 성령을 받고도 고맙게 여길 뿐, 겁에 질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가치는 매장되어, 차라리 주지 않은 것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일정한 시험을 거쳐서 틀림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성령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앞선 역사에서 초창기에 아무나 물 붓듯 성령을 부어 준 것은

감람나무의 역사를 세상에 널리 증거하기 위해서였으며, 알곡을 거두는 나중 역사에서는 그 양상이 다르게 마련입니다. 같은 은혜 안에서도 연단 없이 10년 따르는 사람은 연단 중에 1년을 따르는 사람의 신앙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그릇을 만들어야 합니다. 보물이 담겨도 깨어지지 않는 그릇 말입니다. 이런 그릇이 마련되면 성령을 담기는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금방 깨어질 그릇에는 성령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이 그릇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 Chapter 12.

### 빛과 어둠(2)



#### 1) 빛이 어둠에 비취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육을 입고 빛의 존재로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의 존재로 계실 때의 주님과 육을 입었을 때의 주님은 하늘과 땅 만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창조주이시고 후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히 2:9)인 것입니다. 주께서 이런 존재로 오시게 된 것은 인간에게 빛을 심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속에 빛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이 쉽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의 존재가 육을 입고 오셔서 직접 작업을 해야 할 정도라면 그 어려움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둠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을 구석구석 밝힐 수 있는 빛이 곧 14만 4천의 하늘 군병입니다. 그것은 어둠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전력입니다. 주께서는 이 전력이 마련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행2:35) 기다린다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다시 침투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찰을 받는 것은 빛을 심는 직접적인 방법이지만, 어둠이 주관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므로 간직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릇부터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릇이란 신앙 체계를 튼튼히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이 그릇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지금은 인간이 하나님을 좇을 수도 있고, 마귀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건 마귀를 찬양하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죽으면 자동적으로 지성소가 아니면 음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계6:8-10 참조)

내가 옥중에서 신곡을 읽어보았더니 이 책을 쓴 단테는 음부가 땅 속에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음부는 마귀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 우주를 어마어마하게 생각하지만, 영의 세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우주밖에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세계가 있는데, 이 영계는 우주보다 훨씬 광대합니다. 그러므로 육적으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엄청난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빛에 싸여 그늘이 없고 모든 물체가 투명하지만, 마귀의 세계는 어두컴컴하고 불투명합니다.

죽는 순간 이 마귀의 세계인 음부에 가면 생전에 마귀와 가까이 지낸 사람일수록 환영을 받고 마귀와 멀리 지낸 사람일수록 푸대



접을 받게 마련입니다. 흔히 마귀가 죄지은 자를 불 구렁텅이에 끌어 넣는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무엇 때문에 자기편을 처벌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불 구렁텅이는 이른바 지옥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가로막고 마귀의 편에서 움직인 죄인을 처벌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지옥은 하나님의 세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음부의 식구 중에 마귀가 미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생전에 하나님의 편에 온전히 서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움직인 자들입니다. 이들은 천년세계가 지나 마지막 영의 일대 격전을 마친 다음 심판을 거쳐서 하늘나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심판이란 이들을 건지기 위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음부에서 천년세계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는 반면에, 마귀의 편에서 움직인 자들은 천년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들 중에서 마귀와 가까이 지낸 자일수록 같은 불 구렁텅이에서도 큰 형벌을 받게 됩니다. 즉 고통의 감도가 심한 것입니다. 이것이 곧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발등상 시켜 천년세계가 이루어지고 세 번째 큰 영의 싸움을 마치고 전에는 누구도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어둠의 자식은 당신의 나라에 데려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무자비하다고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일면을 이해해야만 성경66권을 올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정착시키

기 위해 원주민을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몰살하라고 여호수아에게 지시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럴 수가 있나, 같은 인간인데, 이렇게 불공평하고 무자비할 수 있나,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귀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의문은 풀리고 맙니다.

세상은 빛과 어둠의 싸움터입니다. 이 어둠을 빛으로 완전히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언제나 빛에 어둠이 깃들 소지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것처럼 놀랍던 앞선 하나님의 역사도 어둠이 깃들기 시작하여 우리의 새 역사가 그 뒤를 이어 복구하게 된 것입니다. 빛이 어둠으로 바뀌면 그 자리에는 일곱 배의 어둠이 깃들게 마련입니다.(마21:45) 앞선 역사를 수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발족된 우리 역사가 고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2)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보좌에 평안히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 계십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이룰테면 최고 사령관의 위치에 계십니다. 성경은 이 전쟁사요 또한 작전 계획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군데군데 감춰진 비밀이 있으며, 이것은 인간의 머리만으로는 알 길이 없

습니다.

“일곱 우리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계10:4) 주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의 기록을 보류시킨 것입니다. 작전상의 깊은 비밀이기 때문에 숫제 기록을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은 개봉하기 전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개봉할까요? 적절한 시기에 주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 터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리라.”(계10:7)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비밀’은 영원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마귀가 알아서는 안 되는 전략입니다. 이 하늘나라는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하늘의 3수와 땅의 4수가 합쳐져서 7수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쯤 한꺼번에 후딱 해치지 못하고, 순서니 절차니 비밀이니 하고 복잡하게 말하느냐고 나에게 항의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기성교회의 교인들은 거의 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난 6천년 가까운 긴 세월을 전쟁 중에 계셨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하나님은 어디나, 또 언제나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한 줄로만 배워왔고, 따라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나 마귀가 아담, 하와에게 침

투한 이후의 땅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6천 년이라는 오랜 장기전을 계속해 오신 것입니다. 그만큼 대적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귀가 주님을 시험하는 장면을 한 번 상기해 보십시오. 이것은 신약의 성경 기자들이 주님의 간증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귀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거드름을 피우는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지만, ‘마귀는 예수를 떠났을’ 뿐 결코 발등상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발등상 시키는 작업은 오늘날까지도 하나의 숙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시고 하늘나라에 오른 후의 주님은 또 다른 위상에 계십니다. 주님은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마귀를 발등상 시키는 총사령관의 직책을 담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 사이에 교류의 형상이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바울의 소명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께서 직접 택해 세운 종을 통하여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결국은 마귀를 발등상 시키기 위한 하나의 포석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를 발등상 시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귀의 세력을 밟아서 뭉개버린다는 비유입니다. 마귀를 발등상 시킨다는 것은 어둠을 빛으로 몰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캄캄한 교실을 밝히기 위해 적어도 촛불 다섯 개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이 촛불을 확보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어둠의

세계도 환히 밝힐 수 있는 최소한도의 영적 촛불이 필요합니다. 그 촛불의 수가 곧 14만 4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6천 년 역사는 요컨대 이 영적 촛불의 수를 채우기 위한 사전 작업인 것입니다. 감람나무 시대 이전에는 순교자들이 이 촛불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교를 원하시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예부대를 원하십니다. 땅에서 수역이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 Chapter 13.

# 이사야의 고민



이사야는 지금부터 약 2,700년 전,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이사야에게 유다(남왕국)와 이스라엘(북왕국)에 대해 들려주신 영음과 보여주신 계시로 되어 있으며, 우리는 여기서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역력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운 것은 그가 남달리 인품이 고결하거나 재질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당신의 종으로서 부릴 만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사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를 들어 쓰실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에는 으레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인간(선지자)은 수동적으로 이에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어느 날 밤 이사야가 잠들어 있는데 뜻밖에 이상 중에 하나님께

서 나타나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사1:3)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잠결에 이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어안이 병병하여 영문을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사1:11-15)

이사야는 그제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 대해 크게 노하신 것을 알고 두려운 나머지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토록 노하실까? 무슨 일을 얼마나 잘못했기에 제사까지도 받지 않으려고 하실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사야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니 말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만저만 노하신 것이 아닌데, 이사야로서는 그 까닭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어 드리려는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상 중에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을 뵈었을 때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여호와와 뵈게 되어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고 걱정하였습니다. 그때 천사가 제단에서 빨갛게 피어난 숫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고 말했습니다.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사6:7) 이때부터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더

욱 긴밀히 교류하면서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잣말처럼 개탄하였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이사야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 주십시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소식을 전하기를 좋아할 선지자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달가워하지 않을 것은 뻔한 일이며, 크게 변을 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자기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대답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로부터 뜻밖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아서라. 저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으면 어떡하느냐?”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당신의 품안으로 돌아오는 것조차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개하는 것조차 달갑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저들은 회개하고도 곧 다시 죄를 지을 것이 훤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죄악의 뿌리가 저들에게 깊이 박혔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가까스로 물었습니다.

“여호와시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느 때까지 이처럼 노하시려하나 이까?”

“온 땅이 황폐하여 집에서 사람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을 때까지니라.”



이사야는 가슴이 철렁하고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는 당신의 선민을 모조리 쓸어버릴 심산이 아닌가?’ 이사야는 자  
기까지도 포함시켜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그리고 무수한 백성들  
이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 쓰러지는 광경을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  
다. 온 몸이 와들와들 떨려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사야를 보  
시고 측은히 여겼던지 말씀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과히 겁낼 건 없다.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베어져도 그 그  
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남을 것이다.”

그제야 이사야는 한시름 놓이기는 했으나, 한편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것을 생각하니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 대하여 크게 노하고 계시다는 내막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당시에 하나님의 영음을 들은 이사야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대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의 제사도 받지  
않고 기도도 듣지 않을뿐더러 쓸어버리려고 할 정도로 노하였을까  
요? 그들의 움직임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합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며,”  
(사2:8)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  
나님을 부인하는 죄 중의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다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사1:21) 저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세상에 흘  
려 음탕한 생활을 즐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

인자들뿐이로다.”(사1:21) 하나님은 저들의 부덕을 크게 개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정도만 인용해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노하신 연유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죄를 그토록 미워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설사 당신의 백성들이 큰 죄를 지었기로 제사를 받지 않는 것까지는 몰라도, 무더기로 쓸어버리려고 하시는 것은 너무 무자비한 처사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이런 일은 이미 모세 때에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하는 등 주책을 부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흠에 묻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당신의 백성이 저지른 죄를 철저히 미워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선민을 택하여 그 은총 아래 보호하면서 역사하시는 것은 심심해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와의 치열한 싸움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죄에 빠진다는 것은 저들이 당신의 편이 아니라 마귀의 편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가 뭐니까? 성경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요3:8)라고 했습니다. 즉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적대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그토록 미워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 적이 없다면 얼마든지 관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과 겨루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가불 이들 적대 세력을 쓸어버리고 당신의 편에 선 자들만 남겨 놓으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찌끼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합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사 1:25-26) 즉 하나님은 인간이 마귀와 짝하여 도저히 돌이킬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처럼 대청소를 감행하고, 그야말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 당신의 전열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런 마귀와의 대결을 전제하고 보아야 하며, 그 래야 성경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사1:19-20)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치리하는 원칙입니다.

이사야는 크게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어야 하겠는데, 좀처럼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사야는 백성들 앞에 나타나 소리소리 외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의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사2:6)

그러나 저들은 거의 다 이사야의 말에 콧방귀를 끼며 일소에 붙이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저가 뭘데 저 야단이야. 웃기는구나!”

“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데, 노하시다니 말도 안 돼.”

그러나 이사야는 계속하여 미친 듯이 외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상 중에 예기치 않은 지시가 왔습니다. 그것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14)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앞날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날 놀라운 소식으로 신비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사야는 크게 놀랐으나 이 ‘아들’의 정체에 대해서는 미처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막연히 이 아들은 자기보다 몇 배 위대한 선지자가 되려니, 하고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지시대로 기록했을 뿐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그 후 700년이 지나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이사야서에는 주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으나, 율법사와 제사장, 서기관들이 수백 번 읽고도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아들에 대한 내용을 이사야를 비롯한 여러 종들의 입을 통하여 예고했지만, 마귀가 알세라, 성경에 여기 저기 숨겨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층에 속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들도 다만 메시아가 언젠가는 자기들 앞에 나타나려니, 하고 막연히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오직 그

주인공인 주님만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말씀을 종합하여 당신에 관한 내용을 익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3년 동안 역사하실 때 그 말씀대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막상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는 주님도 육을 입고 계신지라 한동안 약해지기도 했지만, 정작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의식하고 그 아픔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마27:46)(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주님의 마지막 신음소리였습니다. 주님은 뼈가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 저절로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는 하소연이 흘러 나왔던 것입니다. 여기 ‘버리셨나이까’라는 말씀을 놓고 논란이 많지만, 이것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주님을 버리며, 따라서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요컨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육을 입은 주님의 인간적인 절규였으며, 주님에 대한 예언을 담은 시편22편을 읊은 것입니다.(시22:1)

우리는 주께서 당하신 이 십자가의 고통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낙심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주의 고통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큰 고난이 닥치더라도 그것은 주의 십자가의 고난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 발의 썩입니다. 그러니 주의 뒤를 따르려는 우리에게 못 참을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마10:38) 여러분은 주의 고난에 동참하여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만일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다면 아직 이 역사에 손님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 Chapter 14.

#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갖자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은 널리 전해져서 전 세계적으로 신자가 수억에 달하고, 교역자만 해도 수십 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양적으로 보면 크게 발전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도가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인 알찬 열매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군대 3만 2천 명 중에서 300명만 추려서 미디안과 싸워 이기게 한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삿7:1-7참조)**

오늘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14만 4천의 하늘 군병의 수가 차는 것입니다. 이 수가 차야 마귀가 발등상 되어 하늘나라를 이룩하려는 오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 군병은 주로 진실한 의미의 순교자로 충당되었으며, 오늘날 이

땅에 감람나무의 역사가 베풀어져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순교하지 않고도 그 반열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는 했으나, 이 섭리 안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결코 쉽사리 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계17:14)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따르는 전 세계 못 기독교 신도들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며, 그러기 위해 정성과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늘 군병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가는 길은 매우 평탄합니다. 그것은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입니다. 어려운 예수가 아니라 쉬운 예수, 편안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믿어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병도 나아와 축복 받은 줄로 알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그래도 무방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는 무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정예 부대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합니다.(슥13:9)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의 장애물 경주와 같습니다. 앞에 첩첩이 놓인 장애물을 하나하나 뛰어 넘어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계 2:10)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요구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적이 없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아담, 하와가 원죄를 범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며, 주님을 이 땅에 보내어 구태여 피를 흘리게 할 것 없이 옛날에 벌써 하늘나라는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마16:24) 주님은 당신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짝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믿노라 하는 사람들은 영을 추구하면서도 세상에 깊숙이 젖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고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데 치중하여 하나님의 일은 둘째 혹은 셋째요, 여가 선용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욕구 충족을 앞세워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신앙 자세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높은 자, 배운 자, 가진 자일수록 세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

기는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도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한 이 부자는 돈 많은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의 부자, 명예의 부자, 지식의 부자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주로 가난하고 무지하고 천하고 병든 사람들과 상종하셨습니다. 이들은 환경이 불우한 만큼 자기보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가난하고 무지하고 천하고 병들기를 원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 육적인 축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믿음의 부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객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기도의 제목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보다 주님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즉 내가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께 좀 더 기울일 수 있게 해주십사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눈시울을 적실 만한 기도 말입니다. 지금은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때이며, 주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Chapter 15.

# 천국과 음부의 갈림길



오늘날 성경을 상고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천국과 음부에 대하여 명확한 개념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주님의 비유로 막연히 언급하고 있을 뿐이고, 사도 바울도 다만 이상 중에 3층천에 갔다 왔다고만 말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피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천국’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구약)에는 없는 생소한 말이었습니다.

나는 주께서 보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 천국과 음부에 대해 지금까지 부분적이거나 간간이 발설해 왔습니다마는, 천국이란 요컨대 최후의 심판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세계로 이 우주보다 훨씬 광대무변하며, 음부란 마귀의 세계로 이 역시 어마어마한 판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영의 세계는 빛과 어둠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 세상보다도 훨씬 더 복잡다단한 계층을 이루고

있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상하 계층은 엄정하게 배치되어 요행이나 술수가 통하지 않아 불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사망 뒤에는 음부가 따른다.”(계6:8)는 말씀 그대로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하는 하늘 군병을 제외하고는(계6:11-12) 모두 음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많은 신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믿어 은혜를 받아도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계17:14) 이외에 죄가 남아 이루어지지 못한 자들은 일단 음부에 들어가 있다가,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 심판을 거쳐서 천국 백성이 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계20:11-15참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생축이 되어 인류의 죄를 대속했는데, 그를 믿는 자는 마땅히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아 천국행 티켓은 이미 받아 놓은 것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마7:21-23, 마16:24, 계17:14 참조) 또 믿는 자의 신앙 체험으로도 죄의 찌꺼기를 의식하게 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박힌 죄의 뿌리는 그렇게 간단히 뽑혀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휘방꾼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마귀가 대적하는 광경을 이상 중에 선지자 스가랴가 보고 기록한 대목이 있습니다.(슥3:1-2) 이것은 비단 구약 시대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도 죄를 밥 먹듯 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사도 바울같이 “내가 섰  
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으니, 이제는 면류관을 차  
지할 수 있다.”(딤후4:7-8)고 장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죄를 짓게 될까요? 은혜란 주께  
서 살아 계시다는 증거로 주는 것이지, 은혜가 곧 정결을 의미하지  
는 않습니다. 예컨대 향취, 불, 이슬의 은혜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되어 있지 않으면 스쳐 가는 체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그릇이 부실하기 때문에 은혜를 오래 간수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성령이건 악령이건 일단 받는  
순간에 육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표시가 나게 마련입니다. 성  
경에는 성령을 받았을 경우에 ‘인을 치다’고 기록하고,(요6:27, 엡4:30)  
악령을 받았을 경우에 ‘표를 받는다’(계20:4)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감람나무의 가지로서 성령의 은혜인 생수를 받으면 그 표  
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선 역사에서 이 표시가 되어 있는 자의 수  
가 9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세계에서는 금방 알아볼 수 있  
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에게 악령이 침투하여 마귀의 표를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서는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고 악  
령의 표를 받는 자보다 훨씬 언짢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  
력에 그만큼 손상을 입혔기 때문입니다. 비유해 말하면, 마치 미국  
고관이 소련에 망명하여 공산당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격입니다. 반

대로 악령의 표를 받았다가 크게 뉘우치고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된 자도 있습니다. 이런 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늘에서는 가상하게 여깁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은 죽으면 거의 다 일단 음부에 가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 말씀은 전 인류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가르침을 받아 전하는 말도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만일 지상에서 성령을 받아 70% 이루어진 사람이 음부에 가게 되면 마귀는 그 나머지 30%밖에는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도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 음부에 끌고 가는 것은 마귀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써 음부의 열쇠를 갖게 된 것입니다.(계1:18)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늘 군병도 한 때, 두 때, 반 때 동안 지배할 위력을 갖고 있는 것이 마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귀를 알보면 그야말로 큰 코 다치는 것입니다.

## Chapter 16.

# 하나님의 군병과 하나님의 백성



인간을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하자면,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과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인간이란 죽으면 그것으로 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령한 것에 대한 체험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전15:19) 하는 바울의 말을 상기할 것도 없이, 인간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이 증거하는 여러 가지 신앙체험으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역사는 주께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또한 심령으로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접어들고도 믿음을 키워 나가지 못한다면 실로 통탄할 노릇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함께 같은 곳에 갔다가 같은 순간에 일어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대 앞에서 비로소 무수한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 때나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마귀를 완전히 소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여건이 조성되기 전에 하늘나라의 백성을 배출시켜줘야 헛일입니다. 다시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완전히 소탕시키는 데 필요한 병력의 수가 14만 4천입니다. 이들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마귀와 싸워 그 세력을 박살내고, 심판이 베풀어질 때 재판관이 되며, **(계20:4)** 심판 후에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계22:5)** 따라서 하늘나라에는 14만 4천 개의 왕국이 형성되며, 그 왕 권세와 왕국의 판도는 각각 달라, 14만 4천의 계층을 이루게 됩니다.

왕들의 계층이 이러하니 그 아래서 치리를 받는 백성들의 계층이 이보다 훨씬 더 복잡다단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천국이라고 해서 계층이 없는 줄 알았다가는 오산입니다. 의롭게 산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계층이 없이 만인이 똑같이 평등하다면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나라의 왕과 백성은 다 같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 중에서 배출되지만, 한쪽은 통치자의 위치에 서게 되고 다른 쪽은 통



치를 받는 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담, 하와가 죄에 떨어진 후로 오랫동안 인간을 상종하지 않으시다가, 인지가 어느 정도 발달된 6천 년 전부터 서서히 상대하기 시작하여 당신의 백성을 키워 오면서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할 하늘 군병을 간간이 족집게로 뽑아내듯 택하여 생명책에 녹명했습니다.(출32:32, 말3:16) 이 생명책은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인계 받아(계 5:7) 순교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으며,(계13:8) 지금은 이긴자를 내세워 단시일에 그 수를 채우는 단계까지 온 것입니다.(계3:12)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뭄에 콩 나듯이 하늘 군병을 키우던 시대와 일시에 대량 배출을 꾀하는 시대는 그 양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주님은 이긴자에게 큰 권능을 맡겨 당신의 특공대를 대량으로 뽑기 위해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의 내용부터가 다릅니다. 기독교 역사상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깊은 섭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예수 잘 믿어 천국 백성이 되는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2천 년 전부터 하늘 군병의 수가 차서 마귀를 발등상 시킬 조건이 마련되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이 소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급선무는 주님의 이 소원을 풀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한, 주님은 지구를 다 갖다 바쳐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여, 주여’ 하는 이 땅의 수억

신도들은 진정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마귀를 발등상 시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핵무기로 마귀를 모조리 때려 부순다는 걸까요? 마귀는 영체이므로 인간의 무기로 무찌를 수는 없습니다. 마귀를 무찌르려면 주의 빛이 있어야 합니다. 빛만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발등상 시킨다는 것은 요컨대 어둠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긴자란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자입니다. 마귀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가? 그에게 주의 빛이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는 그를 매장시킬 수 없습니다.(계11:5) 그를 감옥에 가둬 놓는다고 그 역사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건 앞선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주인공이 두 번이나 감옥에 들어가 있었지만 그 역사는 조금도 쇠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저 모양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된 일입니다. 비유해 말하면 하늘에서 새 전구로 갈아 끼운 것입니다. 전구에 전기를 보내고 안 보내는 것은 하늘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긴자란 하늘의 전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수무책입니다. 하늘에서 보내는 전기를 차단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만 전구의 빛이 멀리 비치지 못하게 가로막을 뿐입니다. 불빛이 멀리 비치면 벌레들이 많이 날아오게 마련입니다. 마귀는 이 빛이 벌레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공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 균형을 단시일에 배출시킨다는 것은 이를테면 이 빛나는

전구를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 전구를 어떻게 생산할까요? 가령 불이 켜진 100축짜리 전구 곁에 거울이 있으면 그 빛은 거울에 반사되어 반짝입니다. 이 경우에 빛은 주님이고 전구는 이긴자이며 거울은 하늘 군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울 속의 빛도 상당히 반짝거리려 언뜻 보면 100축의 전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등불이 하나님에게 14만 4천 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장장 6천여 년에 걸친 하나님의 역사는 요컨대 이 전등불을 제작하는 힘겨운 작업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긴자는 세상에서 존경받는 인격자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이영수보다 몇 배 위대한 인격자가 수도룩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백성이 다 모여, 물을 섞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렇게 되나 한 번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군병인 14만 4천의 역할에 대해, 나도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신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리하여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니, 아니니, 하고 떠들고 있습니다. 14만 4천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비유의 말씀이 아니며, 그렇다고

14만 4천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은 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신학자들은 자기 머리로 생각해낸 것을 주장하지만, 나는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 내가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계3:12) 14만 4천 명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은 오늘날 땅에서 추천하면 주께서 보시고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병이 되시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렵니까? 군병이 되려는 사람의 신앙 상태가 백성의 자세에 머물러 있다면 이진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Chapter 17.

# 믿음의 세 단계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 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계20:4-5)

이 말씀은 계시록에서도 가장 중요한 비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깊은 영적인 내막을 잘 알아야 합니다. 물론 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데 그친다면 이론에 불과하고 신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선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장님의 신앙을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째 단계입니다.

안 다음에는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

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행위로 주 앞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에 행위가 없으면 무의미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둘째 단계입니다.

다음에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피로 마음이 정결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계시록에서 ‘진실한 자’(계 17:14)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셋째 단계입니다. 이 믿음의 세 단계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올바르게 알면 움직이게 되어 있고, 움직이는 가운데 마음이 정결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조금씩 깊은 말씀을 던져 이미 여섯 권의 설교집으로 나왔고, 이제 제7집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감춰진 말씀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가 ‘흰 돌’의 내용이 활자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창세기에서 계시록에 걸쳐 주로 빈 데를 채우는 보충 설명에 치중했으나,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설교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터뜨릴 흰 돌의 내용은 설교 1집에서 7집까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서는 알아듣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는 바울과 마찬가지로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하였는데도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내 탓이 아니지만, 전하지 않아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했다면 나는 주님 앞에 책망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언제나 주의 것을 가지고 일해 왔습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한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도 권능도 내 것이 아닌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존경이나 대우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단상에서 10년 동안 목메어 외쳐 왔지만,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나 생수가 연결되기 때문에 갈증을 모르고 지내는 것입니다. 예배 인도도 이 단상에서는 지방 순회 때보다 한결 쉽습니다. 지방에서는 의심하는 자들이 많아 설교할 때에는 무척 힘이 듭니다. 듣는 자가 마음 문을 닫으면 그 세력이 반작용을 일으켜 온통 나한테 쏠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반교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는 성령의 은총으로 너끈히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설교를 준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께서 보여 주신 것이 녹음테이프처럼 머릿속에 들어 있어 입을 열면 저절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집을 읽으면서도 “내가 이런 말을 했던가?” 하고 스스로 감동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말이 아니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지만, 아무리 신령한 말씀이라도 아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주와 자기가 좀 더 긴밀하게 연결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주님을 아는 동시에 주께서 자기를 알아 주셔야 합니다. 성경 구절을 쫄쫄 외우는 신학자도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오늘날 주일마다 수많은 목자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대속의 제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열심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업이 어떻게 마무리 짓게 되느냐고 물으면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머리로 연구해서 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으라고 부르짖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한다고 생각하며, 주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나라의 백성보다 하늘 군병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 소원을 풀어 드려야 합니다.

나는 그 동안 “보혜사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요16:8)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며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종지부를 찍게 되는가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서서 행위가 다듬어지고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앞날에 대비하기 위한 정지작업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요긴한 것은 앞으로 될 일이지, 결코 지나간 과거가 아닙니다. 모세나 이사야, 베드로, 바울의 행적과 가르침은 우리에게 참고는 되지만, 앞날에 대비하는 결정적인 이정표는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주께서 보여주신 이 이정표를 여러분에게 제시해 왔습니다. 그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해당되는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터뜨린 말을 모



방할 수는 있겠지만 새로운 말씀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영수가 하늘의 새 소식을 전하는 나팔수에 그친다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기는 새로운 말씀 자체도 축복임에 틀림 없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영수가 말씀만 전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하늘 군병을 실제로 배출시키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그림의 떡이나 다름 없습니다.

하늘 군병은 서두에 인용한 말씀대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계20:4) 신 구약 시대의 순교자들이며,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은”(계20:4) 이른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로, 하나님과 주의 소원을 풀어 드릴 역군이자 전사입니다. 이들이야말로 하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이며,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도 이 하늘 군병이 될 자격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 Chapter 18.

# 하나님의 깊은 사정



신약성경에는 ‘비밀’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마13:11)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천국’에 관한 내용은 주께서 처음으로 터뜨린 것으로, 주님은 이 천국에 대하여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자상한 내용 설명은 다른 보혜사 성령에게 미루었습니다.(요14:26)

사도 바울은 “우리가 ...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전2:7)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이 비밀은 이 세대의 관원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원이 모르는 이 비밀을 바울 자신이 알게 된 것은 ‘성령으로 보이셨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일을 인간의 머리로 헤아린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은 오직 성령을 힘입어 그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알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라. …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고전15:51-52) 즉 바울은 부활이 무엇인가를 자상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성령에 의해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충만히 받은 바울은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갈1:11-12) 많은 비밀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바울보다 한결 더 깊은 하나님의 비밀을 들려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계시록에 담긴 내용이며 여기에는 하나님의 오랜 경륜이 완성되는 과정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긴자를 통하여 그 청사진이 좀 더 소상히 밝혀질 것도 아울러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다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약에서도 주님은 물론이고 바울 자신도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했습니다.(요3:12, 고전3:2) 그나마 성경에는 창세 이후의 사연이 기록되어 있을 뿐, 그 이전의 영의 세계, 곧 신과 신의 대결 양상은 일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에서 창세 이전의 하나님을 머릿속에 그려볼 뿐, 그 세계에 대해서는 성경에 의해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체 무엇 때문에 인간을 지으셨을까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간단히 기록하고 있습니다.(사 43:7) 즉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 인간을 지은 동기이자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인간이 죄에 떨어진 데서부터 문제가 크게 벌어졌던 것입니다.

나는 방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 인간을 지으셨다고 성경을 인용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도전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영광다운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영광을 받으려면 이 도전하는 세력을 꺾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적을 무찌르기 위한 군병으로서 인간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 10만의 군병을 출동시켰는데, 한 마리의 마귀도 잡지 못하고 오히려 몽땅 마귀의 밥이 된다면 그런 군병은 하나님에게 있으나마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적인 무장이 필요한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특공대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자도 주의 눈 밖에 날 수 있는 그런 '좁은 문'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입니다.

이긴자로서 알곡을 거두는 주인공의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향취, 생수, 신유, 마귀 추방 등은 앞선 역사의 주인공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흰 돌’의 비밀을 터뜨려,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가장 절실한 요구가 무엇인가를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 요구를 이루는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이 역사를 감찰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수 억이나 되지만,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해야 할 선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이 목적 달성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 하나님에게는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 Chapter 19.

# 주님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



### 1) 마귀 발등상

하나님의 섭리에는 어려운 일이 많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힘으로 물리쳐 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귀한 피를 흘리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순풍에 돛 단 듯이 뜻대로 쉽사리 풀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마귀와 능히 대적할 수 있는 무기를 인간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무기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 성령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성령을 힘입어 마귀와 싸우는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히10:12-13)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께

서 십자가에 달려 인간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대속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모든 일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일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처럼 기다리시는 것은 성도가 마귀를 발등상시킬 여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100% 다스리지 못하시고, 마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성경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올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지구는 마귀의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눅4:6)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는 자의 생사와 화복도 마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육에 매여 영의 세계를 알기 어렵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를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그 정체를 알지 못해 반신반의했지만, 마귀는 대뜸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마8:29) 그리고 성경에는, 주께서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실 때 사단이 주님을 시험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주님의 간증을 제자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마귀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귀는 주님에게 천하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눅4:6-7) 하고 꾀었습니다. 옛날 에덴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꾀는 것과 같은 수법입니다. 이때 주님은 마귀에게, “천하만국이 하나님의 것이지, 어째서 네 것이냐?”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즉 주님은 천하만국이 마귀의 것임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은 세상을 어둠으로 비유하여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요 12:46)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어둠, 곧 마귀가 다스리고 있음을 전제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둠 속에 있던 자가 빛 가운데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고 간단히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어둠은 잠자코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를 이모저모로 괴롭힙니다. 여기서 빛과 어둠은 인간을 사이에 놓고 격렬한 투쟁이 전개됩니다. 그러므로 중간에서 크게 부대끼는 것은 인간입니다.

지상에서 마귀를 발등상 시킬 수 있는 하늘 군병을 배출시키면 그때 비로소 주께서 등장하여 마귀의 소탕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십니다. 지금 하늘에서 마귀와 대결해서는 승산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께서 이 성도의 세력이 확대되고 강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만큼 마귀의 세력이 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잠시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허점을 보이면 마귀는 지체 없이 이것을 통해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세상에 쫓려 있지 않나, 내가 주의 편에서 움직이고 있나, 내가 마귀에게 약점을 보이지 않았나 하고 항상 반성해야 합니다. 쓰러져도 주의 일을 하다가 숨을 거두겠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상



에 선 나부터가 사선을 넘는 각오를 하고 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 2) 군병이 되라

주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당신을 위해 헌신하기를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흔히 보면 주님께 자기의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어떤 이득을 취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일신의 영달이나 번성이나 건강 따위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 몸 바쳐 충성할 수 있게 해주십사 하고 먼저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할 것 다 하고 그 나머지를 주님께 드리는데, 이걸 주께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정성, 나머지 시간, 나머지 물질을 드리는 것 역시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주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은 이럴 수 없습니다.

주님은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덤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계3:16)고 말씀하셨습니다. 뜨뜻 미지근한 믿음은 마귀의 밥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모저모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즉 세계의 배후에서는 인간

을 통하여 성령과 악령의 싸움이 언제나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혼이 성령을 입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악령을 입으면 악령의 사람이 되게 마련이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제3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는 자동적으로 악령에게 속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는 매우 교묘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주님을 믿는 신도를 자기편으로 빼앗아 갑니다. 그리하여 성령으로 시작한 주의 종의 역사도 악령이 침투하여 멸망으로 이끄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악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 악령은 그 여세를 몰아 하나님의 역사에 총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벧전5:8) 라고 경고했지만, 지금은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피어낸 옛 뱀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앞선 역사도 그 세력권에 넣을 정도라면 그 밖의 역사는 불문가지입니다. 그러나 결국 악령은 주의 빛에 쫓이게 마련입니다. 물론 인간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의 권능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십자가를 놓치지 않는 한 크게 걱정할 것 없습니다.

지금은 2천 년 전의 주님을 증거하는 시대가 아니라 오늘의 주님을 증거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2천 년 전에 육을 입고 오셔서 듣는 자의 귀가 무디어 극히 제한된 말씀밖에 하시지 못한 주님보

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승천하여 영광의 보좌에 계신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주님이 오늘날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분명히 모르면 주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알고도 서기가 어려운데, 모르고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이나 받으려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은혜 받아 하늘 군병이 되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마24:37-39) 하나님은 당시에 노아의 가족 8명만 남기고 수천만의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당시에 노아가 우리 식구만 살고 다 죽는다고 사람들에게 외쳤다면 개소리라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노아뿐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전 세계의 교인을 상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늘 군병이 될 수 있을까요? 찬송에도 나오는 것처럼,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한 종을 세워 그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2천 년 동안 전 세계의 목자들이 이야기한 내용이 이 단상에서 지난 8년 동안 터뜨린 설교를 담은 여섯 권의 설교집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도 여러분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섭리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만큼 어깨가 무겁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귀가 발등상 되기를 기다리는 주의 소원을 풀어 드려야 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주님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물론 주님은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시므로 당장이라도 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열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 어린 영들이 아마겟돈 전쟁 때 다 삼킨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무한정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 Chapter 20.

# 영적 싸움에 대비하라



나는 지금까지 우리의 배후에서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는 영들의 싸움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성경 66권은 이 싸움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구절도 이 싸움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싸움은 일찍이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 하와를 마귀가 꾀인 데서 시작하여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으며, 또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싸움이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은 내가 누차 설명했으므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뼈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마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마귀를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죄에 떨어지기 전의 신령한 아담, 하와는 하나님을 뵈고 대화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신령한 영체로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을 뵈고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음부에 가게 된다면 마귀의 왕초를 보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빛이 지배하고 마귀의 세계는 어둠이 지배합니다. 이 빛과 어둠의 대결이 곧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둠을 사로잡고 앞으로 지옥을 만들게 됩니다. 원수에게 형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옥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다음에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이 빛과 어둠의 첫째 전쟁은 인간의 육신을 가운데 두고 구약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동안에 모세의 형 아론으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게 한 것도 그 하나의 보기입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야로 지켜 주시기 때문에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고, 그 측근을 쫓아낸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 없는 마귀의 수법의 하나입니다. 그리하여 아론은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 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사이에 두고 하나님의 사자와 사단이 대적한 것도 그 하나의 예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일단 마귀가 승리한 것입니다. **(슌3:1-2 참조)** 다니엘도 이와 비슷한 경우를 체험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다니엘에게 내려 보냈는데,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중간에서 천사를 21일 동안이나 가로막았으므로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었던 것입니다.(단10:13)

이것은 구약 시대의 일이고, 신약 시대가 되면 양상이 달라집니다. 즉 하나님과 마귀는 인간의 혼을 사이에 두고 겨루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이고, 그 후부터는 새 복음이 전파됩니다.(눅16:16) 따라서 율법도 달라집니다. 즉 이 새로운 율법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렘31:33) 그리하여 진리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일일이 간섭하게 되는 것입니다.(요16:13) 죄를 짓게 되면 성령은 떠나며,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정죄가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시대입니다.(약4:7, 딤후4:7) 특히 감람나무의 시대는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매장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종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앞선 역사에서는 부름을 받은 백성들을 율타리에 가두어 세상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여 마귀를 피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군대를 온실 속에서 키우는 격입니다. 마귀는 대적해야지, 피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 율타리 속에서 세상에 나와 며칠만 있어도 곧 악령에게 씌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주인공도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았습

니다. 마귀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그에게서 촛대가 옮겨진 후의 일이었습니다. 결국 마귀는 한 감람 나무의 꺾이기만 꺾은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것을 이어받은 또 다른 감람나무가 등장하게 되자 여기에 총공세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앞선 감람나무가 쓰러졌으니, 나중 감람나무도 위태롭다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여기에 대해 만반의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는 마귀가 침범을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나에게 어둠이 깃든다면 내 입을 통하여 하늘의 비밀이 쏟아져 나갈 수 없고, 내 입김과 손길을 통하여 은혜가 부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게서 신령한 것이 쏟아져 나가는 한, 주께서 나와 같이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주께서 나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에 하늘 군병을 배출하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Part 03.

# 믿음의 쫓대를 굳게 잡고



21. 성령의 기능 · 22. 주님은 왜 육을 입고 오셨는가? · 23. 대속의 의미 · 24.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 25. 시험을 이기라 · 26.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 · 27. 섭리의 다림줄 · 28. 하늘 군병에 대하여 · 29. 주의 피를 짓밟지 말라

## Chapter 21.

# 성령의 기능



### 1) 죄, 피, 은혜

말씀의 존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흘린 피는 인간의 죄를 소멸시키는 거룩한 제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보혈’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피는 이를테면 ‘영의 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죄악 때문에 영이 맑지 못하고 피가 흐려 있습니다. 영과 피는 이처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여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 백성이 될 인간의 피를 깨끗이 하여 영을 맑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짐승의 피로 인간이 저지른 죄를 사하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주의 피로 인간의 죄를 소멸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피는 죄를 사하는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히9:22)고 말씀

하신 것입니다.

다만 주의 피는 짐승의 피와 달라, 깨끗하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지은 죄는 물론, 원죄와 유전죄까지도 사함을 받게 된 것이 다릅니다. 만일 주님이 피를 흘려주시지 않았던들 인간은 영원히 원죄와 유전죄에서 놓여날 수 없으며, 따라서 하늘나라의 백성은 지상에서 배출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1:7)

우리가 생수를 받는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흐리고 더러워진 우리의 피를 맑고 깨끗한 주의 피로 정결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속13:1) 주의 보혈은 이와 같이 영적인 신비로운 권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그 성령의 조화로 피가 맑아지고 영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2의 생명이 형성되며, 이것을 성경은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피로 새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理性)을 초월한 생명의 원리로, 우리 체내에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실제로 성령을 받아 거듭난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성령을 받아 새 생명으로 탈바꿈을 하면 생각과 보는 눈, 듣는 귀 그리고 언동이 자연히 달라지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피의 원리는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권능이나 부활의 의미는 오직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이 임했을 때에만 산 신앙 체험을 통

하여 비로소 이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뜨거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은 성령이 우리의 피에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칼슘 혈관주사를 맞았을 때 화끈함을 느끼는 것과 이치는 마찬가지로입니다. 그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의 피에 주의 피가 섞이는 격입니다. 이때 우리가 자극을 받는 것은 그 두 가지 피의 요소가 달라서 서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나한테서 안찰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몹시 아프지만, 여러 번 안찰을 받으면 차츰 그 아픔이 가셔서 나중에는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그만큼 피가 맑아진 연고입니다. 안찰이란 요컨대 더욱 큰 은혜를 받기 위한 일종의 정지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안찰을 받아 피가 정결케 된 후에는 스스로 더욱 큰 은혜의 다림줄을 잡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주의 피가 우리의 피와 연결되어 나도 아니고 주도 아닌 새로운 생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하여 영의 세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요16:13) — 이와 같이 성령은 기독교의 생명이며, 따라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를 헛 믿는 것이 됩니다.

이 말에는 반론이 제기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서는 주를 주라고 할 자가 없다고 했으니, 주를 부르고 교회문을 드나들면 일단 성령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를 주라고 입으로 시인하기

만 해도 잡혀가 곤욕을 치러야 했던 주님 당시의 일이며, 따라서 오늘날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면서 죄 짓기를 밥 먹듯 하는 자들까지도 성령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는 뜻에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마7:21)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잘 밑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죄를 지으면 그만큼 피가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더러운 피가 주의 깨끗한 피를 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은혜를 쏟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은혜를 받았다가는 쏟고, 쏟았다가는 다시 받는 것을 되풀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졌다 이겼다, 이겼다 졌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오래 간수하여 꾸준히 이겨 나가야 하며, 그렇게 하려면 성령을 받을 만한 마음의 바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성령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즉 성령이 오지 못하도록 바리케이드(장벽)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케이드가 곧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멀어질수록 성령은 강하게 임하며, 따라서 그 느낌도 커집니다.

사도 시대에 사도들을 비롯하여 여러 문도들이 불과 같은 성령을 받았을 때 이들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얼굴이 벌겍게 달아오르고 대담무쌍하게 되어, 자기 목숨을 내걸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긴자를 통하여 내리는 성

령은 주로 물(이슬, 생수) 같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분이 실제로 받아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불과 같은 성령은 주님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강하게 임하여 드디어 순교하게 되면 천사가 그 영혼을 지성소에 안내합니다. 그러나 이슬 같은 성령을 받으면 순교하지 않고서도 지성소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슬 같은 성령은 세마포를 ‘입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슬 같은 은혜만 받으면 누구나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도 쏟아버리면 허사가 됩니다. 아니 허사가 될 뿐만 아니라, 더욱 큰 문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수록 받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만큼 간수하기에 힘을 기울여 ‘나’를 버리고 주님 위주로 살아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죄를 지으면 성령은 떠나 버립니다. 이것이 곧 자유의 율법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미움, 짜증, 원망, 시기, 중상, 헐기, 낙심, 불안, 탐욕 등의 모든 원치 않는 죄악의 뿌리가 모두 빠져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 2) 성령과 중생

인간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제약을 받아 영

의 세계를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신령한 말씀을 터뜨리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한 주님을 위대하게 여기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이 훨씬 더 위대한 존재임을 미처 모르거나 망각하기 쉽습니다. 육을 입고 계실 때의 주님과 부활하신 이후의 주님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은 땅에 계실 때 제자들까지도 심령이 어려,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지 못하고 보혜사 성령에게 미루었으며, **(요16:12-13)** 권능 역시 성경에 미리 기록된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으나,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권한을 당분간 대신하고 계십니다. **(계5:7-8)** 여기서 당분간이란 하늘나라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를 가리킵니다.

성령은 사도 시대에 오순절 날 120문도들에게 불 같이 내렸습니다. 당시의 내로라하는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을 다 제쳐놓고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뜻하지 않은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즉 주님은 일찍이 열두 제자도 마음대로 사로잡지 못하였는데, 불과 같은 성령은 이들 120문도들로 하여금 푹푹 뭉쳐 목숨을 바쳐가면서 주님을 증거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루아침에 저들이 그토록 변모되었는지 장본인 이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으며,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스테반이 돌팔매를 맞아 죽어가면서도 웃는 얼굴로 주님을 증거할 때 주위 사람들은 스테반을 미친 자로 간주하여 측은히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순교의 결과는 구약 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스테반의 거룩한 영은 숨이 끊기자 곧

장 천사의 인도를 받아 지성소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순교해도 지성소로 직행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피 권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운명하고 부활하시자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비로소 거룩한 성에 들어간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마27:50-53)

그러나 주께서 피를 흘리시고 승천하신 후 약속대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영을 밝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큰 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주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은 이 보혜사 성령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인간을 거듭나게 하여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속한 영은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워져 하나님과 인간의 격차가 좁혀집니다. 여기에는 이루어진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하늘나라에 서열이 생기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 그 영이 하나님께 가까워진 정도에 따라 대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마귀는 언제나 상대적인 역학관계(力學關係)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 의로워진 자의 수가 많을수록, 다시 말해서 주의 아내감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세력은 강해지고 상대적으로 마귀의 세력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즉 마귀가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지상에서 의로운 자가 배출되는 것을 한사코 가로막으려고 갖은 간계를



부립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닥쳐올 마귀와의 세 번째 싸움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십니다. 멜기세덱의 반열에 속하는 14만 4천의 정예부대는 이 싸움에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인 셈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마지막 싸움은 주께서 재림하여 천년세계가 지난 후 한 때, 두 때, 반 때 동안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무저갱에 가둔 마귀를 놓아주어 거룩한 성이 짓밟히게 될 정도로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되므로 주의 귀한 형상을 닮은 영이 아니고서는 감히 대적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마귀의 밥이 될 무자격자는 방치하고, 당신을 위해 끝까지 충성할 자만을 택하여 내세웁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이런 자를 시험하여 골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과 영의 전쟁으로,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격전이 벌어지게 되며, 성경에는 그 양상을 흰 세마포와 붉은 빛 옷의 대결, 백마와 적마의 대결, 하나님의 이름과 참람된 이름의 대결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는 이 싸움에서 큰 공로를 세운 자들로, 주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사도 요한에게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이들 24장로가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계4:4)고 했는데, 이 ‘금면류관’은 하늘나라에서 차지한 그들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전쟁을 표시할 때 으레 말이 나오고 창검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수천 년 전 당시의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

서이며, 만일 오늘날 성경에서 전쟁에 대해 기록한다면 탱크니, 유도탄이니 하는 말들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곧이곧대로 풀이하면 해답이 제대로 나올 리가 만무합니다. 이 성경 해석에도 성령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 Chapter 22.

# 주님은 왜 육을 입고 오셨는가?



### 1) 하나님의 원대한 경륜

하나님의 역사에서 주인공은 바로 주님이시며, 따라서 주님을 제외하면 기독교는 성립될 수 없을뿐더러, 전 인류는 죽음에서 놓여날 길이 막히게 됩니다. 주님에게 육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죄악에 물든 인류를 죽음에서 건지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경륜에서 비롯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2천 년 동안 수많은 종들을 세워 역사하신 것은 오직 주님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한 정지작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창17:7-8)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언약 자체가 먼 훗날 이 땅에 주님을 보낼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에게 다시 말씀했습니다.

“네 아내 사라가 정녕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창17:19) 이때 사라는 나이가 이미 90세로, 쭉그렁 할머니가 된 지도 이미 옛날이었으나,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부가 되었으며, 이삭이 나이 60에 낳은 야곱이 장성한 어느 날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창28:13-14) 이 모든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 쓰신 그릇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경우에 이들 하나님의 종이 인간적으로 잘나고 못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면 마른 막대기라도 들어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 인간이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못나면 또 얼마나 못났겠습니까? 모두가 50보 100보요, 다 엇비슷한 죄 덩어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것은 모두가 인간 위주의 판단입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니 훌륭해

보이는 것입니다. 인간이 똑똑해서 하나님의 신이 거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질그릇에 보배가 담기니 소중한 것이지, 그 질그릇 자체는 보잘것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질그릇을 그것에 담긴 보배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교만하여 떨어지게 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바로의 신하인 시위대장 보디발의 손에 넘어갈 당시는 울고불고했겠지만, 그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뻗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나이 147세가 되어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성령이 충만하여 열두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자리에서, 유다에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 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친다.”(창49:10)고 하여, 그 뿌리에서 메시아가 탄생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홀’이란 왕 권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이 초대 임금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임시 조치였습니다. 이어서 유다 지파인 이새의 아들 다윗을 임금으로 세움으로써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이를 작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 줄기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낼 심산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주 전 약 700년대에 나타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즉 메시아의 동정

녀 탄생,(사7:14) 용모 및 고난, 처형과 매장에 대해서까지 언급했습니다.(사53:8-9) 그리고 주 전 약 500년에는 선지자 스가랴의 입을 통해 메시아의 역할에 대해 예고하고,(슥3:9) 이어서 주 전 400년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에게는 메시아의 길 예비자로서 엘리야를 보낼 것을 통고했습니다.(말3:1, 4:5)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광범위한 언약의 내용이 이삭을 거쳐 야곱 때에 와서 좀 더 윤곽이 잡히고, 이어서 다윗 때에는 보다 더 뚜렷해지고, 이사야 때에 한층 구체화되고,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에게는 길 예비자까지 언급하여 틀이 잡혀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학자나 제사장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 관심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은근히 기다리면서, 좀 특이한 사람을 만나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눈여겨보았으며, 세례 요한 같은 사람에게는 직접 대놓고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하고 묻기도 했던 것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무찌르기 위한 작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비밀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섭리를 이행하러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섭리 밖에서는 마귀와 싸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작전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마귀를 소탕하는 전쟁에서 총사령관이 바로 주님입니다.(계19:16)

그러니까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위시하여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삼손, 사울, 다윗, 솔로몬,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에스겔, 호세아, 스가랴, 아모스, 세레요한 등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종들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한 역사에 직접, 간접으로 필요했던 인물들이었으며, 이들은 이 작업에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마11:13) 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은 나를 지목해 기록한 것”(요5:39)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내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의 세계를 정확히 몰랐더라면 그토록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도 흔들렸을 것입니다.

## 2) 반신반인으로서의 주님

우리가 만유를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경륜을 도외시키고 주님이 육을 입고 움직인 33년의 생애만을 놓고 고찰하면 곡해할 여지가 많습니다. 성경에는 육을 입은 신의 약한 모습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가리켜 처음과 나중, 곧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씀이 아리송해질 수도 있습니다.(계 22:13) 이 알파와 오메가의 원리는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를 명확히 알 때 비로소 해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육이 반, 신이 반, 즉 반신반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신이지만 사람이 볼 때에는 인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도 직통하고 인간과도 직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형상을, 그것도 첫눈에 거룩하고 위대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의 형상을 입고 와야 합니다. 주께서 오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왕이 민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왕자를 전국 방방곡곡에 파견하려면 호화찬란한 왕자의 복장을 일단 벗고 거지차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왕자는 지방에 내려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달게 받아야만 자기의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신분을 밝힌다면 왕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왕자는 아니꼽고 치사한 일도 참고 견디어 왕의 뜻을 이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한동안 사람의 행세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충실히 따라야 합니다. 만일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과 수모를 견디지 못해 권능을 행사하여, 땅 위에 후닥닥 뛰어내려 “이 놈들아, 이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불호령을 내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하나



님의 뜻을 고스란히 어긴 것이 되어 그 피 권세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내려 보낼 수 없게 되며, 따라서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 의 경륜은 실패하고 맙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됨으로써 최대의 헌신을 했습니다. 몸을 송두리째 바치는 것 이상의 헌신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연히 아픔을 견디고 창피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면 그 제사는 하나의 연극으로, 아무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그 모든 쓰라림을 겪고 죽어야 하는 존재로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마귀에게 빼앗긴 인간을 도로 빼앗기 위해 극비리에 작업을 추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낸 것을 마귀도 처음에는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공적인 역사를 착수하기 위해 40일 기도를 시작하자 마귀는 주님을 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던 것입니다. 만일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신 것을 진작 알았더라면 일찌감치 손을 써서 처치했을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죽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마련이었습니다. 즉 마귀가 그 영을 마음대로 데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이 죽은 후에 그 영을 천국으로 데려갈 길을 마련할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포로가 된 영을 빼앗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

기 위해서는 음부의 권세를 깨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땅에 보내신 까닭이 여기 있었습니다.(요일3:8) 주님은 육을 갖고 그 길을 마련했으므로 육을 가진 인간도 그 길을 따라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빛의 길입니다. 마귀는 빛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 3) 주님과 천사

하나님의 아들은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 예언하신 그대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지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이전에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에게 나타나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몸에서 메시야의 길 예비자가 태어날 것을 예고하고, 여섯 달 후에 다시 마리아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메시야가 탄생할 것을 통고했습니다. 하늘의 섭리가 땅에 임하게 되니 천사가 분주히 활동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이 천사들은 집단을 이루고 있으며, 저마다 담당 분야별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장은 사람에게 기쁜 소식, 즉 축복을 주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도 이 천사의 소관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이 가브리엘 천사장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내리는 시대에 주의 종이 나타나 일할 때에는 당연히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분주히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주의 종과 가브리엘 천사장은 자주 교류합니다. 그래서 이긴자에게 천사를 소개하는 것입니다.(계3:5)

이 가브리엘 천사장과 쌍벽을 이루고 있는 것이 미가엘 천사장으로, 전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르는 백성들이 당신에게 불순종했을 때 이들과 동행하기를 꺼려, 대신 보낸 천사가 미가엘이며, 마지막 때 하늘에서 용과 싸우는 것도 미가엘입니다.(출33:2, 계12:7)

천사는 빛보다 몇백 만 갑절이나 빨리 움직여, 아무리 먼 거리라도 눈 깜짝할 사이에 왕래합니다. 빛은 지구에서 달에 한 번 왕래하는 데 5초나 걸리지만, 천사는 0.1초도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천사와 사람 사이에 교류가 이루어진 것이 신, 구약에는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지만, 사람들은 그건 먼 옛날의 일이고, 오늘날에 와서는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천사와의 교류를 운운하면 으레 사이비로 낙인을 찍어 버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말을 좀처럼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주께서도 지상에 오셨을 때 하늘나라에 대해 그대로 알리면 미쳤다는 소리를 듣기에 꼭 알맞아, 할 수 없이 비유로 설명하도록 이사야의 입을 통해 미리 예언된 대로 따랐던 것입니다.(마13:14)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읽고 알아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기록된 것으로, 하늘나라나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

은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유명해지고 훌륭해 보이는 것이지, 그들 자신이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 자체를 두고 보면 스가랴나 말라기 시대에 이방 국가에는 이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위대한 공자나 석가, 소크라테스 같은 인물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여러분은 이 섭리 안에 부름을 받았으니 큰 은총 가운데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역사에서 여러분에게 내리는 모든 축복도 가브리엘 천사장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장의 직위는 하늘나라에서 어느 정도나 될까요? 가브리엘 천사장은 하나님의 가장 측근에서 움직이는 네 생물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하늘나라의 군병보다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사가랴에게 주의 길 예비자로 아들을 낳게 될 것을 예고하러 나타났을 때 이미 마리아도 주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진작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경우에 마리아는 요셉의 약혼녀였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이지, 남달리 영특하거나 인물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축복 받아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떨어져서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마귀의 지배 하에서는 가령 50세에

죽게 되어 있는 사람이 예수를 착실히 믿으면 운명이 바뀌어 80세 장수를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를 주관하는 천사도 가브리엘입니다.

계시록에는 네 생물에 대해 여러 군데 언급하고 있는데, 왜 천사를 사도 요한에게 막연히 생물로 보여 주었을까요? 천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 그것이 지상에 전해져 그림이나 조각으로 형상화되어 우상으로 행세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직위가 높은 가브리엘을 직접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파송한 것은 그들의 역할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창피하게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느냐고 필쩍 뛰면서 죽어도 그 일은 못하겠다고 끝까지 버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엔 가브리엘도 할 수 없이 딴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즉 요셉과의 정혼을 무효로 돌리게 하고, 다른 처녀와 약혼을 시켜 그 처녀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거부반응을 일으킨다고 해서 하늘에서 하려던 일을 중단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일단 정해지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깃든 우리 역사도 그렇습니다. 지상에서 다 비난해도 섭리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서 인정하건 말건, 그는 엄연히 메시아임에 변함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곧 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 4) 강림의 의미

주님의 탄생과 행적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의 입을 빌어 군데군데 단편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조리 밝히면 마귀가 대뜸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발설한 것은 주 전 약 700년경에 등장한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즉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여호와와 팔이 뉘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바 되었으며,”(사53:1-3)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 그대로 아주 초라한 행색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깔려 있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땅히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잘나고 위엄 있는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의 길 예비자인 세례 요한을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내세운 반면에, 주님은 그와 정반대의 초라하기 짝이 없는 시골 목수의 아들로 나타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요한에게 쏠리게 하고, 주님은 감추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제물로 오신 것이지, 추앙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했으며, 피를 흘리기 위해서는 죄인 취급을 당해야 하고, 죄인 취

굽을 당하려면 초라한 모습을 하여 누구나 멸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에게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참람된 말을 한다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꼼짝 못하고 당하는 주님을 보고 인간은 물론이고, 마귀도 깔깔대며 비웃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전에 말려든 하나의 본보기라고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에서 온전히 놓여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깨끗한 피의 제물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영적인 배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진작 예정했던 것이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내세웠을 때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주님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첫 일꾼이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죄에 떨어진 후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신 하나님은 한때 노아를 통하여 죄에 빠진 인간을 건지려고 시도해 보았으나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 후손들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창11:3) 그리하여 하나님은 본래의 계획을 위해 아브라함을 내세워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선민으로 삼고, 12 지파의 하나인 유다 지파 중 다윗의 뿌리에서 땅에 보낼 당신의 아들을 탄생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하 수많은 선지자와 열왕과 사사들을 배출시켜 2천 년 동안 역사하신 것은 결국 당신의 독생자를 땅에 보내기 위한 정지작업의 일환이었으며.(마26:26) 드디어 주께서

극비리에 오시자 이 모든 작업은 끝이 났습니다.(마11:13) 실로 원대하고 심오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님의 모습은 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주요, 둘째는 인자요, 셋째는 만왕의 왕이 그것입니다. 이 3자는 모습은 각각 다르지만 원체는 동일합니다. 주님은 일찍이 창세에 동참하신 창조주이며(창1:26 참조) 따라서 아담, 하와 같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으신 분이고, 아담, 하와는 그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당신이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고 말씀하셨으며,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요17:5) 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은 드디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크신 경륜에 따라 예언 그대로 잠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육을 입고 이 땅에 대속의 피를 흘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이 인간을 통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해서 결코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으니까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주의 피가 조금이라도 더러워졌다면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없을 것이며,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운명하셨을 때 하늘에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신호로 성전 휘장이 찢기는 일도 없었을 것이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도 주님의 약속대로 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 Chapter 23.

# 대속의 의미



기독교의 특이한 점은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란 물론 자기 스스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원죄와 유전죄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짓지 않은 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말이냐고 반문하기 쉽지만, 이러한 이의는 세상의 윤리에서나 통하지, 하나님의 법도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죄를 가지고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뜻이자 대전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 하와를 에덴동산에서 쫓아낸 것이 이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은 저마다 하나님 앞에서는 빛진 죄인입니다. 이것은 갓 난 어린애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 아이의 몸 안에는 이미 원죄와 유전죄의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치

상으로도 그렇지만, 실제로 안찰을 해보면 죄가 뭔지도 모르는 그 아이의 몸에 부딪치는 악의 세력이 있어, 아파서 찢찢매는 것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죽더라도 지옥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착한 행실로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자범죄는 어느 정도 다스러지겠지만, 태어나면서 물려받은 원죄나 유전죄는 씻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수양에 힘써 성인군자가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사51:5) 하나님으로서는 이것이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한 후, 당신의 아들을 탄생시킬 때까지 잠정적으로 이 백성들의 피를 조금이라도 맑히기 위해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게 하여 장본인이 저지른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은 대가로 짐승이 피를 흘려야 했던 것입니다. 죄는 피로써만 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들도 원죄나 유전죄는 그대로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라운 권능을 행한 모세를 비롯하여 기라성 같은 대 선지자들도 결코 예외가 아니어서 이들이 죽은 후 마귀가 다스리는 음부로 끌려가 있다가 주의 부활 후에 건짐을 받았던 겁니다.(마27:53) 이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주의 피 권세입니다.(요10:1-8 참조)

아닌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버리게 된

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언뜻 보면 성경에 하나님은 편애하고, 심지어 잔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소위 선민으로서 사랑하고 이방인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원주민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조리 죽여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따를 수 있는냐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모르는 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마귀에 대한 투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인간을 통하여 전쟁을 해왔고, 현재도 전쟁을 하고 계시며, 또 앞으로 승리를 거두실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실 것입니다. 전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수단만 보고 목적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에게 적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인간을 필요로 합니다. 인간을 통해 적과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쩡하게 잘 사는 아브라함을 부르고 또 모세를 불렀으며 그밖에 수많은 선지자들도 불러 세우셨습니다.

인간의 피 속에는 혼이 있고, 이 혼은 나면서부터 성령이 아니면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혼을 성령의 지배하에 두려고 하시고, 마귀는 악령의 지배하에 두려고 합니다.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 최대의 무기로 등장한 것이 주의 뱀입니다. 이것을 마귀는 까맣게 모르고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피를 흘리게 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크게 기뻐했으나 오히려 이것이 저들에게 큰 화근이 되고, 정작 기뻐하여 할렐루야 호산나를 부른 것은 하나님과 하늘의 천군천사들이었습니다.

이윽고 주님은 지상에 불과 같은 성령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도 시대 이후 근자에 이르기까지 근 2천년 동안 이긴자가 나타나지 않아 죄를 씻는 생수를 줄 시기가 아니었으므로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하려면 순교하여 본인의 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눅13:1, 계21:6-7, 6:11 참조) 하나님은 이긴자 감람나무를 내세워 그를 통해 마귀를 발등상 시키는 정지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긴자 감람나무는 여러분과 같은 인간이지만, 영적으로는 같지 않습니다. 그는 성령을 부어주고 여러분은 그 성령을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긴자 감람나무는 언제나 성령의 은혜가 차고 넘쳐야합니다. 겨우 자기 은혜나 간직하는 사람이 남에게 부어주면 자기는 빈 텅텅이가 되어 다음 사람에게 부어줄 수 없습니다. 남에게 수혈을 하는 사람이 자기 피를 일부만 빼줘도 어지러워 쓰러지고 맙니다. 은혜를 남에게 부어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은혜가 언제나 넘치지 않는다면 한 사람만 안찰해도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혼자서 한평생 애써도 씻을 수 없던 죄가 이긴자의 손길을 통하

면 불과 몇 초 만에 소멸되는 것은 여러분이 겪어서 잘 알 것입니다. 잠시라도 악령에게 사로잡힌다면 이긴자 감람나무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맡은 권능과 사명이 이러하므로 그를 제일 미워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그러나 그의 육신은 묶어 놓을 수 있지만, 그 권능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것 역시 여러분은 겪어 봐서 잘 알고 계실 줄 생각합니다. 나를 감옥에 가둬 놓아도 나를 통해 나가는 은혜는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직접 생수를 부어 줄 수 없었을 때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 한 마디로 여러분들 집에 있는 물을 생수로 변화시켰으며, 시신도 그 생수로 아름답게 피어났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이영수가 무슨 재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 Chapter 24.

#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 마귀를 발등상 시키는 길 -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리는 정도에 따라 영계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조금씩 언급해 왔습니다. 깊은 단계의 말씀은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영적인 이야기는 알아듣기가 힘들며, 따라서 전하기도 어렵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상대방의 심령이 어리기 때문에 하실 말씀을 별로 못 하시고 상세한 내용은 다른 보혜사 성령에게 미루었으나, 이 성령이 같이한다고 해서 똑같이 귀에 솔깃하게 먹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정도에 따라 받아들이는 깊이가 다릅니다. 세월이 흘러 세대가 바뀔수록 인간의 순수성이 흐려져 갑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과 함께 심령이 때 묻는 것입니다. 인지가 발달하여 세상이 개화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반면에 사

람들은 점점 눈에 보이는 사물에 관심이 쏠려 영의 세계와는 자연히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영의 세계는 누구나 깊은 관심을 갖고 알고 힘써야 하며 또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아듣는 귀를 가진 사람은 적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고독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매여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저버리게 될 때 인간은 순수성을 잃고 가식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신앙에 알맹이는 없어지고 남는 것은 껍데기뿐입니다. 이론과 형식은 살아서 말은 청산유수로 흘러나오지만, 영은 날로 메말라 갑니다. 인간의 지식이 단순히 얕에 머물러 있을 때 성령과는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런 지식을 풍으로 여기고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빌3:8, 고전2:2)

순수성이 없으면 교만이 생기고 남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순수성이 있으면 남에게 억울한 욕을 먹어도 능히 당하고 참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중상모략하고 괴롭히는 자들도 개인적으로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미워서 내가 저주를 내린다면 나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이 됩니다. 순수성이 우리 역사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순수성이 있을 때 영의 귀가 열리고, 순수성이 없으면 아무리 신령한 말씀도 마이동풍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소상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나라를 재건하여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지금도 우

주 밖의 먼 곳에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상 중에는 우주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 밖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관측으로, 우주 안에서는 우주 전체를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지구 안에서는 지구 전체를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벗어나야 둥근 지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 밖의 존재에 대한 영적인 입증입니다. 즉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우주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주 밖을 마귀 세계가 감싸고 있고 그곳을 지나가야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과 지상에 사는 인간의 중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에 주님이 빠지면 하나님과 인간의 교류는 없어지며, 다른 이야기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이 세상은 아담, 하와가 범죄한 후로 마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위시한 온갖 비극이 속출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 최악의 세상에 주님이 육을 입고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흔히 이 말씀을 가리켜 주께서 피를 흘려 대속의 제물이 되었다고 해서 구령 사업을 끝낸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메시아에 대해 구약에 예정된 일들을 다 행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는 길을 열어놓고, 주님은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마귀가 발등상 될 때까지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사110:1, 눅20:43, 히10:13) 따라서 주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른바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당신의 피 권세로 보좌에 오르시고 보혜사 성령을 내려 보내어 마귀가 발등상 되기를, 그러니까 만유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틀이 마련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기틀은 마귀의 세력을 꺾을 일정한 수의 하늘 군병이 확보되는 것을 가리킵니다.(계6:11) 그러므로 주의 소원을 땅에서 이루는 기둥 역할을 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가 곧 이긴자요, 감람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 주인공이라면, 이긴자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주인공입니다. 성경이 복잡한 것 같아도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즉 주께서 흘리신 피의 대가로 이긴자가 땅에서 마귀를 발등상 시키는 여건을 조성하면, 다시 말해서 하늘 군병의 수가 차면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주님으로부터 이긴자로 이어지는 노선은 예정된 섭리로, 빨리 이루어지고 더디 이루어지는 차이는 있어도 이 노선 자체는 변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이 가져야할 자세가 더욱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주의 뜻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즉 마귀를 발등

상 시키는 군병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끼고 교회에 드나들기만 하고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주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따르는 자들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 군병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전부입니다.

이를 위한 역사가 이긴자 감람나무를 통해 본격적으로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잠자코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이방인들이 매도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살려 주려는 자를 죽이려는 것은 어느 시대나 동일한 것입니다.

## Chapter 25.

# 시험을 이기라



하나님을 받들고 주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시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리하여 이 시험을 견디고 이기는 사람도 있고, 감당치 못해 쓰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아무도 이 전쟁에서 이진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적의 도전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역대의 하나님의 종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언제나 폭풍이 몰아쳐 마음 편할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물론 이들과는 다르지만 각자 자기 뒤통에 매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상기할 것도 없이,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합니다. 그런데 여기엔 시험이 따르게 됩니다.

시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창22:1-2)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이 끔찍한 시험을 능히 감당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에게 내린 시험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당신의 백성도 시험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어서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신8:2)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 동안에 영도자 모세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연속이었으며,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주책까지 부리고 가나안 정탐 후에 불평을 해서, 끝내 하나님의 눈 밖에 났기 때문에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역대의 하나님의 종 가운데 큰 시험을 이겨낸 대표적인 예의 또 하나는 사사 입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길르앗의 용사 입다는 기생의 몸에서 태어난 서자였습니다. 입다는 힘이 장사였으나 어렸을 때부터 첩의 자식으로서 갖은 수모와 학대를 받은 끝에 끝내는 본처의 몸에서 태어난 배다른 형제들에게 쫓겨나 돕 땅에 숨어살게 되었으나,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사방에서 그에게로 모여들어 하나의 세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요단강 동부 일대에서 살고 있던 이방인 암몬이 이스라엘에 쳐

들어와 행패를 부릴 때 이스라엘 장로들은 뚫 땅에 사는 용사 입다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장수로 추대하겠으니 암몬 군을 무찔러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서자라고 괘시하더니, 다급해 지자 영도자로 모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국이 입다를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입다는 좀 아니꼽기는 했으나 동족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 장로들의 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주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자를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삿11:30-31) 구약 시대 가나안에는 경우에 따라서 이처럼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와는 입다의 기도에 응답하여 이스라엘에 침입한 암몬 자손들을 그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리하여 입다는 적이 도사리고 있는 20개 성읍을 단숨에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은 다음에 크게 벌어졌습니다.

입다가 의기양양하게 개선하여 자기 집에 이르렀을 때 전승의 기쁜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뛰쳐나와 그를 반가이 맞이한 것은 뜻밖에도 그가 애지중지하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무남독녀였습니다. 입다는 승리의 기쁨은 간데없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며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왜 하필, 네가 제일 먼저 뛰쳐나와 나를 맞이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맹세한 제물이 바로 네가 될 줄이야!” 하나님과의 맹세를

어기자니 하늘이 두렵고, 사랑하는 외동딸을 제물로 드리자니 가슴이 찢어지고 - 입다는 크게 고민했으나 끝내 하나님과의 맹세를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윽고 딸도 아버지의 비통한 심정을 달래면서 두 달 동안 여유를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그 동안에 친구들과 어울려서 목숨을 바쳐야 하는 운명을 애곡하고 번제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입다는 목숨보다 더 소중한 딸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철석같이 굳은 그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입다가 딸 대신 송아지나 염소를 잡아서, 혹은 남의 딸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렸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제사는 물론 상달이 되지 않고, 입다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은혜줄을 놓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을 이겨낸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극치라고 하겠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어떤 처지와 형편에 놓여도 변치 말아야 합니다.

## Chapter 26.

#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이적과 기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적, 기사에 신기함과 놀라움, 그리고 두려움까지도 느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적, 기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 보여 주시는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일대 비상시에 처했을 적마다 하나님은 초인간적인 권능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신, 구약 시대에 각각 두 차례씩 들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시킬 때와, 당신의 백성이 이교도의 침입으로 큰 위기를 맞았을 때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큰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었

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창시할 때와 감람나무의 역사를 베풀 때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주님과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여 주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오늘날 이 땅에서 두 증인을 통하여 나타낸 이적, 기사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때인 만큼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이고,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역사가 무엇인가를 못 사람들에겐 분명히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밖에 나타난 이적과 기사 자체에만 호기심과 흥미를 느끼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적, 기사를 베풀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지못한 일종의 비상수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되도록 조용한 가운데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모세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일으킨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못됩니다. 모세를 대하는 애굽 왕의 마음이 완악하여 모세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모세가 당신의 사자임을 입증해 보여주기 위해 열 가지 이적을 행하게 하여, 드디어 전 애굽에 송장 냄새가 풍겨오게 하자 할 수 없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국을 허용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이적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믿고 그의 지시에 잘 순종했던들 모세가 행한 이적은 훨씬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므리바의 물가에서 목이



마르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며 모세를 원망하는 바람에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했으며,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는 통에 메추라기를 바람에 날려 보냈던 것입니다.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하나님의 눈에 거슬렸으면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저들을 해치게 하셨겠습니까?(민21:5)

하나님께서 이적, 기사를 즐겨 행하시는 줄 알아서는 오산입니다. 이적, 기사를 많이 행할수록 조건이 하나님 편에 불리한 것입니다. 당신의 종이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당신의 역사가 애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은 마지못해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애로를 타개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면서도 사사건건 불평과 불만을 일삼아 왔기 때문에 무려 40년이나 광야를 헤매면서 무수한 이적과 기사를 행하였으며, 끝내는 고생만 하다가 모세를 위시하여 저들은 광야에 묻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만일 저들이 모세의 말에 고분고분 잘 따라 주었던들 모세는 저들을 이끌고 예정된 기일 안에 복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사례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영도자와 추종자의 호흡이 맞지 않을 때 함께 죽는다는 산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적과 기사 of 근본 취지는 주님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많은 이적, 기사도 백성들에게 당신의 존재를 보

여 주기 위한 하나의 불가피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주님도 따르는 백성들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곧바로 인정하고 자기의 가르침을 순순히 받아들였던들 구태여 이적과 기사를 보여 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일반 백성은 두말할 것도 없고, 제자들까지도 주님을 한 선지자로 간주하기는 쉬웠으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띄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눅5:3-5) 이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바다에서 베드로를 비롯하여 야고보와 요한, 그 밖의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 주기 위해 이적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라 고기잡이에 관해서는 주님의 선생이 되고도 남을 테지만, 고기가 잡히지 않을 줄 뻔히 알면서도 선생님의 말씀이니까 예의상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디까지나 선생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아들의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나마 주님을 선생님으로 깎듯이 대접하여 말씀대로 그물을 쳤지만, 주위 사람들의 눈에는 베드로의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고기잡이에 도가 튼 저들이

밤을 세워가면서 그물을 던져도 잡히지 않는 고기를 대낮에 잡으라고 목수의 아들이 지시를 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천만 뜻밖에도 그물이 찢어지게 잡혀 두 배를 고기로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하여 주위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불찰을 뉘우치고 두려운 나머지 주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아뢰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적에 대한 영적인 차원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베드로나 주위 사람들이 그때 주님을 곧 하나님의 아들로 맞아들여 순종했던들 주님은 구태여 이런 이적을 저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권능을 눈으로 보지 않고 말씀만으로 목수의 아들을 대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놀라운 이적, 기사를 보여줘도 선지자와 혼동하여 사뭇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끝내는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육을 가진 인간이 영의 세계를 이해하기란 이토록 벅찬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시하여 역대의 선지자들이 고전을 면치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백성들이 영적인 영도자의 존재를 분명히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런 점에서 전혀 애로를 느끼지 않은 것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위세가 당당한 그가 광야에서 외치자 사람들은 그 위세에 놀려 구세주가 아닌가 하고 수군거릴 정도였으므로, 자기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하나님의 종임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 구태여 이적을 행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옥중에 갇혀서 자기를 얼른 빼내 주지 않는 주님을 원망하다가 의심하여 자기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떨어지기는 했으나, 태어난 가문과 타고난 풍모만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였으며,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큰 사람”이라, 이적과 기사를 얼마든지 행할 수 있었으나 말씀을 전하는 데 그쳤던 것입니다.

내가 이 역사를 청량리에서 처음 시작할 때 모인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마음속으로 앞선 역사의 초창기와 같이 향취가 진동하고,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고, 이슬이 쏟아져 내리는 등, 은혜의 창과 속에 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는 아닙니다. 누구나 초인간적인 신비로운 현상에 깊은 관심을 갖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깊이 깨닫는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되도록 조용한 가운데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역사가 당신께서 일으킨 역사임을 보여주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 말씀으로 혹은 적지 않은 이적과 기사로 하늘에서는 여러분에게 할 도리를 다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겪고 들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의심하고 이 역사를 부인하여, 주의 종이 하나님을 향해, “저를 따르는 사람들이 의심하고 잘 순종치 않으니 더욱 확실한 증거를 보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려야 한다면 이것은 피차

에 바람직한 일이 못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부름을 받은 여러분은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Chapter 27.

# 섭리의 다림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슥4:10)

하나님의 6천 년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 동안 큼직큼직한 일들이 언제나 한 사람을 통하여 시작되어 처음에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를 받았으나, 얼마 지나고 보면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된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들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고, 야곱 한 사람을 내세워 당신의 백성을 탄생케 했으며, 모세 한 사람을 통해 선민의 대이동을 단행하고 율법을 선포하셨습니다. 바울을 등용하여 할례를 폐지시킬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여 2천 년 동안 실시해

온 할례를 폐지시키라고 지시했을 때,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바울 자신부터가 깜짝 놀라 자기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시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쉽사리 먹혀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난사 중의 난사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파란과 우여곡절을 겪어도 결국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처음에 할례 폐지에 큰 거부반응을 보인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2천 년에 걸쳐 수천만이 실시해 내려온 뿌리 깊은 전통을 어느 한 사람의 말에 따라 하루아침에 무너뜨린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니 말입니다.

만일 아브라함 이후 2천 년이 지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다음 세대에서 어떤 종을 통하여 할례를 폐지하라고 지시했다라면 문제는 비교적 손쉽게 처리되었을 것입니다. 할례를 실시하라는 지시를 받은 아브라함과 할례를 폐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그 종이 마주앉아 “아브라함 형, 당신에게는 할례를 실시하라는 지시가 왔지만, 나한테는 이제 이방인에게도 전도의 문을 열어야 하니 할례를 그만두라는 새로운 지시가 왔습니다.” 하고 말하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아브라함이 비교적 간단히 이것을 승복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직 전통과 관례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징표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율법이라고 해서 받는 사람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일이 매우 어려워지게 마련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이며,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주님과 바울 사이에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으로, 오늘날 우리의 안목으로 보면 후자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되지만 바울 당시는 상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 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수가 그렇게 많아도 끝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은 사람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당시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온 사람은 겨우 120명이었습니다. 그 밖의 사람들은 대개 예수를 도깨비 내지 역적, 아니면 비극의 주인공으로 몰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감람나무를 두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우리가 감람나무의 ‘감’ 소리도 입 밖에 내기가 거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람나무를 증거해야 합니다. 감람나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세운 종이요, 여러분은 그 그늘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감람나무를 증거하는 것은 바울이 할례 폐지를 주장하는 일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천당 가면 그만이지, 그밖에 어떤 특정인을 거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2천 년 동안 굳어버린 고정관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터운 고정관념의 벽을 깬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 2천 년 동안, 믿기만 하면 된다는 바울의 신학 체계 안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왔으며, 오늘날 수억의 신도들이 또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나는 40억 인구 중에서 앞선 감람나무의 그늘에 불러들인 9만의 가지들을 다시 다듬어 세우라는 지시를 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무심히 방치할 수 없는 것은 감람나무의 가지들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우시고, 당신이 기대했던, 당신의 특별한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이긴자 감람나무가 나타나면 섭리의 양상이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즉 감람나무가 은혜의 다림줄이 되게 마련입니다. 섭리의 파이프가 달라지면, 그 은혜의 줄기를 찾아야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은총이 이 줄기를 통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속4:12)**

이 감람나무가 바울 다음 세대에 나타났더라면 사람들은 좀 더 쉽사리 감람나무를 받아들여 그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바울의 언약 아래서 예수를 믿어 온 지 2천 년이 지나서 감람나무가 나타나 몇백 명을 상대로 이렇다 저렇다 하니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그늘에 모인 수가 많건 적건, 이것은 엄연히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요 섭리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큰 역사는 처음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 상례입니다. 주님 당시에 기성교회에 모여드는 사람들의 수와 주를 따르는 사람들의 수를 비교해

보십시오. 또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당시에 그를 따르는 사람의 수와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의 수를 비교해 보십시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어느 쪽이 참 길로 생각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아래 사람들이 바글거린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나도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때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직접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나는 비로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좋든 싫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상, 나는 그 지시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 Chapter 28.

# 하늘 군병에 대하여



야곱은 환도뼈가 휘도록 천사와 씨름하여 하나님의 시험에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받았고, 이는 그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호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요, (골2:17, 히8:5) 따라서 이 육적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의 예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의 형성은 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전에도 몇 차례 언급했지만, 오늘은 약간 각도를 달리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축물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근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현재 어떻게 움직이시고,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의 위에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긴자에게 알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긴자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새 이름’을 이긴자에게 기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새 이름’이라고 했을까요? 주의 정체는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을 직접 보고 말씀을 들은 사람이 적어도 수만 명이나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은 사람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또 희한한 권능을 행하는 것도 많은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러한 정체를 나타낸다면 구태여 새 이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님은 이런 분이 아닙니다. 육을 입고 땅에 오셨을 때의 주님과 승천하여 하늘에 계신 주님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릅니다. 이런 주님의 오늘의 근황을 이긴자에게 알린다는 뜻에서 ‘새’ 자를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또한 이긴자에게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은 무엇 때문에 쌓습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그럼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어떤 성전이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성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계21:22) 즉 새 예루살렘 성안에 있는 성전은 하나님과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 역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상징은 성곽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면 그 의미가 밝혀집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아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계 21:9-10) 그러니까 성은 주의 신부, 곧 14만 4천의 하늘 군병으로 되어 있습니다.(계14:1 참조) 즉 어린 양의 아내가 성(城)이 되므로, 성전인 하나님과 주님을 보호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내, 곧 하늘 군병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광경을 육적인 성과 성전으로 보여 준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성에 대하여 다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척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계21:16) 하나님과 주님을 보호하는 14만 4천의 하늘 군병은 육적으로 표현하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라도 부족하면 틈이 생깁니다. 따라서 악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이 성을 돌맹이로 비유하면 한 지파가 1만 2천 개로, 도합 14만 4천 개가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모자라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 어느 신학자도 올바르게 파헤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가르침을 받은 자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소상히 해설하는 것 자체가 이긴자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주님은 하늘의 존재요, 어린 양의 아내는 땅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성전이 벌써 되어 있는데, 땅에서는 아직 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이 차야만 이 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남은 과제는 이 수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 수가 찰 때 땅의 4수와 하늘의 3수가 합쳐져 완성의 7수를 형성하여 하나님의 오랜 숙원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7수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성공의 수요, 마귀의 편에서는 멸망의 수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수를 완성하려고 노력하시고, 마귀는 한사코 이것을 훼방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뿔박을 당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은 조금도 빈틈없이 꼭 짜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14만 4천이 미달되어 성에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에서는 마귀와 일대 접전을 시도하지 않으며, 또 시도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수가 차기를, 즉 성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계14:3)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

의 아내는 빛나는 세마포를 입고 있다고 했습니다.(계19:8) “하나님의 영광이 비취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어”(계21:23) 아내를 통해 반사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아내는 적의 침입을 막는 성, 즉 울타리의 구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면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아내인 14만 4천의 수가 차야 비로소 혼인을 하게 됩니다.(계19:7) 세상에서도 혼인을 하려면 아무리 조금해도 신부의 드레스가 마련되기 전에는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어린 양의 영적인 혼인도 일정한 수의 신부들의 세마포가 완전히 갖춰져야 하는 것입니다.(계19:8)

지금은 어린 양이 이 신부들의 드레스가 다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이 14만 4천의 드레스가 다 되면, 하늘에서는 ‘할렐루야!’ 소리가 터져 나오고, 최대의 축제 무드에 젖어 신랑 되시는 주님, 그리고 지성소에서 이날을 고대하던 신부와 지상에서 세마포로 단장한 신부들은 물론이고 천군 천사가 일제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계19:1)

그렇다면 마귀는 이것을 보고만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를 가로막기 위해 최후의 발악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리하여 마귀의 왕초인 용은 부하에게 더 큰 능력을 줘서(계 13:4) 마흔 두 달 동안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짓밟아 버립니다.(계

13:7) 이때 하나님은 주님을 일단 하늘로 소환하고 어린 양의 아내는 광야로 피신하게 됩니다.(계12:5-6) 이윽고 주께서 새 힘을 얻어 하늘에서 내려와 아내들과 힘을 합쳐 무저갱에서 올라온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소탕하게 됩니다.(계19:14, 19-21) 이리하여 밤낮 ‘하나님께 참소하던’ 마귀를 모조리 멸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며, 이때부터 펼쳐지는 세계가 곧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 Chapter 29.

# 주의 피를 짓밟지 말라



여러분은 오늘날 30년을 전후하여 이 땅에서 베풀어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무슨 역사인지 그 동안 직접 보고 듣고 또 은혜를 체험하여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실로 주님 이후로 전무후무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군병을 배출시키기 위해 성경 말씀 그대로 두 감람나무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이 역사에 동참한 사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여러분은 산 증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 유감스럽게도 지지부진한 가운데, 주의 두 종 사이에 원만한 '교제의 악수'가 이루어지기는커녕 음으로 양으로 반목과 암투가 그치지 않을 뿐더러, 앞선 역사에서는 급기야 성경을 왜곡, 부인하고 주님을 모독하는 이변이 일어

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얼마 전까지도 주의 보혈과 십자가의 부활을 누구보다도 열렬히 증거하던 그 입에서 무슨 속셈으로 이런 변덕이 일어났는지, 실로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하기는 그 저의와 속셈이 어디에 있는지 헤아릴 만도 하지만, 남달리 주의 큰 은총을 입은 장본인의 언동이고 보니, 어이없다가 보다는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주의 보혈에 있는데, 이것을 부인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찍이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삼상18:10)** 격동의 신이 내리면 본인도 무의식중에 그만 그렇게 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전에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께서 이상 중에 크게 성난 얼굴로 앞선 역사가 당신의 피를 짓밟아 버렸다고 하시기에, 막연히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을 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에 와서야 비로소 납득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큰 은혜의 창과 속에 젖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지경으로 전락할 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때 이미 앞을 내다보시고 저에게 다시 씻어 세우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입니다.

역대의 하나님의 큰 종들 중에 실패한 사례가 많은 것은 요컨대 ‘나’가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 권능을 행하고 있는 줄 착각하여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알찬 곡식은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마련입니다. 참으로 하

나님의 큰 일꾼이라면 스스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쯤 마귀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떠난 지 오래며, 다만 마지못해 그를 따르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어느 정도 은혜를 연결시켜 주실 뿐입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우리의 역사는 앞으로 점점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판국에 무슨 낫으로 감람나무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욕을 먹더라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 크지는 않지만, 만일 그 뒤를 이어 새로 씌어 세우는 우리의 역사가 따르지 않았던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실로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매사에 실로 용의주도하시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일대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욱 굳게 뭉쳐 이 난관을 헤쳐 나가는 역군이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당신의 큰일을 빈틈없이 수행하기 위해 일꾼을 짝지어 내세우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마땅히 훌륭한 한 쌍이 되어야 할 터인데, 거의가 그렇지 못하여 암투와 갈등을 일삼아 왔습니다. 예컨대 사울과 다윗, 베드로와 바울의 경우가 그렇고, 심지어 세례 요한과 주님의 경우도 예

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두 감람나무 역시 문자 그대로 양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하나의 공통된 특징은 언제나 전자가 후자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잠시 베드로와 바울의 고사를 회상해 보면서 오늘날 두 감람나무의 사이를 재검토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갈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 종은 똑같은 하나님의 불과 같은 성령을 받은 사도였으나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바 사명이 다르고, 따라서 가르침이 달랐기 때문에 한동안 심한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마치 대원군이 쇄국정책을 써서 외국 사람이 일체 범접을 못하게 한 것처럼,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여 이방인이 은혜 받는 길을 막았으나, 바울은 주의 지시에 따라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폐지시키는 데 앞장서고 이방인의 전도에 주력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들을 따르는 많은 신도들은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손가락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새로운 지시를 받아 움직일 때에는 베드로가 하던 일은 필요 없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에게 흡수되어야 하는 것이 하늘의 섭리입니다.

한편, 바울은 바울대로 베드로를 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주장대로 모세의 율법이 버젓이 행세하는 한 주님의 새로운 가르침이 먹혀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베드로를 친 것은 더 좋은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일 바울이 나타나지 않았던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모세 율법을 여전히 금과옥조처럼 지켜, 남자는 누구나 할례를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거의 다 베드로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슬하에 있을 때에는 그 가르침이 제일인 줄 알았는데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보니 귀가 번쩍 트였던 것입니다. 그 설교는 한결 차원이 높고 깊이가 있어, 이들은 그제야 바울을 따르기를 잘했다고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감람나무 역사도 이와 비슷합니다. 성경에 명시한 대로, 두 감람나무는 똑같이 하나님이 세운,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서 있는 자”(슌4:14)로서 ‘금 기름’이 흘러내려(슌4:12) 따르는 성도들에게 세 증거(불, 이슬, 생수)의 성령의 은총을 부어 주는 종이지만, 양자 사이에 이른바 ‘교제의 악수’가 이루어질 가망은 거의 없이 심한 반목을 일삼는 것은 각각 주장과 사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전자는 성경에서 떠나 무슨 조건을 내걸고 감람나무는 하나라고 우기는 반면에 후자는 성경 말씀 그대로 감람나무는 둘이라고 주장하며, 전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씨를 뿌리는 것이고 후자의 사명은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자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여 그 슬하에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 들이면 일단 할 일을 다 하게 되며, 그 뒤를 이어 후자는 말씀으로 감람나무의 체계를 확고히 세우고(계2:17) ‘이한 낮’을 휘둘러 알곡을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계14:16)

성경에 감람나무의 또 다른 이름인 이긴자를 단수로 기록한 것

은 세대를 이어 한 사람씩 역사하기 때문이며, 감람나무 자체가 하나라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슌4:11, 계11:4) 이것을 끝내 하나라고 고집한다면 결국 고집으로 끝날 뿐, 자고로 비진리는 조만 간에 꺾이게 마련입니다.

오늘날 앞선 감람나무에게 눈엣가시처럼 느껴지는 것은 성경에 뚜렷이 명시된 ‘두 감람나무’라는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등장한 두 번째 주인공이 이영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밟아 없애려고 해도 되지 않으니, 돌파구를 모색한 끝에 드디어 주의 피를 짓밟고 성경까지도 불신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쯤 되면 베드로와 바울의 갈등은 새 발의 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180도로 돌변하니, 마귀의 두려움을 다시금 실감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말았으니, 이 얼마나 개탄할 노릇입니까? 그는 또 그렇다 치고, 그 밑에서 은혜 받겠다고 모인 자들이 여기에 덩달아 맞장구를 치고 있으니 실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이 배워서 알고 있다는 소위 감람나무 체계라는 것이 얼마나 영성하고 빈약한가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역사가 뒷수습을 하지 않았던들 감람나무는 성경 말씀과는 달리 영원히 약조건, 호조건에 의해 한 사람으로 전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은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앞선 역사에 몸담은 사람들은 어디로 갈 겁니까? 미우나 고우나 우리의 역사에 들어와야만 소

생활 수 있을 텐데, 와도 상할 대로 상한 심령으로 오게 생겼으니, 씻어서 다시 세우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들을 남대문에서 뺄맞고 동대문에서 화풀이하는 격으로, 앞선 역사에 덴 나머지 나중 역사도 색안경을 쓰고 노려볼 터이니, 언제 마음 문이 제대로 열리겠습니까? 그러나 과히 걱정할 건 없습니다. 우리 역사에 3개월만 나오면 누구나 제 발로 설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만한 보장을 해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이 역사를 끌어가지 못합니다.



(재)한국기독교에덴성회선교재단



Part 04.

# 길을 찾아서



30. 하나님의 섭리에서의 이긴자 · 31. 험하고 높은 이 길 · 32.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 33. 아말겟돈 전쟁에 대하여 · 34. 영적 추수기에 즈  
음하여 · 35. 보물을 천국에 쌓으라 · 36. 천국과 어린이 · 37.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다 · 38. 다시 세우는 역사 · 39. 우리는 어떻게 살아  
야 하는가?

## Chapter 30.

# 하나님의 섭리에서의 이긴자



하나님께서 만유의 회복을 위한 크신 경륜을 이루시려고 근 6천 년 동안 역사해 오는 가운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시는 주님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많은 일꾼들이 등장하지만, 그 사명으로 보아 이 중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담당한 종이 성경에 예언된 이긴자 감람나무입니다. 그는 실로 주님의 손발이 되어 하나님의 성 사업을 땅에서 마무리 짓는 큰일을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과 여러 모로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고한 주님이 땅에 오시자 하늘과 땅의 여건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

라.”(요4:20-21) 이것은 주님과 이방의 사마리아 여인이 주고받은 대화의 한 토막입니다. 이 여인은 주께서 한번 보시고, 남편이 다섯이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남편이 아니라고 지적하자, 주님을 대뜸 선지자로 볼 정도의 지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주목할 만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보통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그야말로 벼락 맞을 노릇입니다. 그것은 실로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즉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전에 드리던 제사는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조건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서는 이것을 모르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정성껏 제사를 올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받아주시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슴을 치면서 간구해 봐야 헛수고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혁명기가 되면, 많은 희생자가 속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반드시 열어 놓습니다.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않으리이다.”(사28:16) 즉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고 못 믿고 간에 도매금으로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오시지 않은 것만도 못합니다. 차라리 주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전과 같이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 제

사를 드러 죄를 어느 정도 씻을 수 있었을 테니 말입니다.

이럴 때는 지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교류를 차단했는데 땅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니 얼마나 딱한 노릇입니까? 주님을 통하지 않는 기도는 상달이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섬리입니다. 그래서 섬리가 무서운 것입니다.

주님은 땅에 오셔서 당신을 증거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아들이는 방법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초인적인 희한한 능력을 나타내자 사람들이 구름 떼같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붙잡혀 빌라도 앞에서 무참히 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럴 수 있나?’ 하고 다 떨어졌다가,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러면 그렇지!’ 하고 다시 모여든 수가 500명,**(고전 15:6)** 이들 중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한 성도는 불과 120명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갖은 연단과 시련 속에서 참고 견디는 자에게 축복이 임하게 마련입니다.

120문도들은 성령을 받은 후, 처형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목숨을 내걸고 증거하여 기독교의 기틀을 세우는 역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연단에 연단을 거듭해 온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

다. 모처럼 귀한 하늘의 선물인 성령을 받아도 쏟아버리거나, 그것도 모자라서 짓밟아 버린다면 하늘에서는 주시지 않느니만 못하고, 장본인은 받지 않은 것만도 못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마땅히 받은 값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생각과 말과 행실이 달라져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길은 자기를 이기는 데서 출발합니다. 신앙인은 남이 아니라, 자기를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이긴자 감람나무의 시대도 신앙 혁명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이나 오랜 역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주의 지시에 따라 땅에서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예정하신 원대한 뜻이요, 또한 섭리입니다.

여러분은 이긴자 감람나무가 영적으로 무슨 권세를 쥐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는 주께서 죄를 씻어 세운 종으로, 어딜 가나 주께서 동행합니다. 다시 말해서 빛이 항상 그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루 24시간 내내 모세와 동행한 것과 같습니다. 그에게 어둠이 틈타지 못하는 것은 주의 빛 때문이며, 결코 인간 자체가 잘났거나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빛은 마귀를 물리치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아무리 떠들어도, 심지어 옥중에서도 주께 간구해서 생수를 전해주고, 그 생수로 죽은 자의 시체도 아름답게 변화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능만 신기해하고 그가

마지막 마무리 짓는 종임을 모르고 따르다면 이긴자 감람나무의 가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주님의 이적을 보고 놀라면서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르고 따르면 메시아의 양떼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에서는 사도 시대 이후 불과 같은 성령을 내렸으나, 이긴자 감람나무가 나타나면 생수의 성령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요7:38-39) 그만큼 성령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불과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순교해야 지성소에 갈 수 있으나, 생수의 성령을 받아 잘 간직하면 사람은 순교하지 않아도 지성소에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수는 죄를 씻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눅13:1) 이 섭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분이 받는 은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성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믿는 분들을 데려다가 나한테서 한번 안찰을 받게 해보십시오. 결과는 보나마나 뻔합니다. 왜 그는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그렇게 괴로워하게 될까요? 부딪치는 세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닌지 시험해 보라고 일찌감치 가르친 것입니다.(요일4:1)

그리고 여러분, 썩어 가는 송장을 놓고 깨끗이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철야하면서 기도하여, 되나 안 되나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이것은 이긴자 감람나무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슨 수로 어느 누구도 못하는 권능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주시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역사에 동참하기 전에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섭리를 짐작이나 했습니까? 그럴싸하게 말하는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을 뚫지 못하고 그 변죽이나 울리는 것이 고작입니다. 이것 역시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유식하다고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거침없이 드러낸단 말입니까? 가르침을 받았으니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이영수는 욕해도 이영수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내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기가 땅에 떨어진 감람나무를 들먹이기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사람인데, 감람나무의 감 소리도 입 밖에 내기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니 어떡합니까? 세상은 우리 역사를 사이비니 뭐니 하고 손가락질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니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여러분이 약해지고 떨어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데 가도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나는 눈 하나 까딱 않습니다. 몇 사람 떨어진다고 우리의 역사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저는 세상 욕심이 없습니다. 주의 종이 세상 것을 탐내고 미련을 가지면 하나님의 일을 해내지 못합니다. 이 세상 부귀영화는 마귀가 쥐고 있습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섬기는 사람보다 훨씬 축복을 많이 받고 잘 삽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개와 같은 목숨 하나를 위해서입니다. 여기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빛과 어둠의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난을 자기 신앙을 키우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평탄한 가운데서는 큰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궁핍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박차고 나가야 합니다. 이때 우리의 뜻대는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쓰라린 고통을 생각하면 못 견딜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여러분의 언동을 살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두는 역사이기 때문에 거센 바람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 역사는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화를 복으로 바꿔놓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 Chapter 31.

# 힘하고 높은 이 길

- 옥문이 열리다 -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뜻하지 않은 큰 풍파가 밀어닥쳐, 우리는 여지없이 짓밟혔으나, 여러분은 역경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켜 이 자리를 메워 주시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위로부터 하나님의 가호와 주님의 보살핌도 물론 있었지만, 나는 나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모진 고난을 잘 넘기게 되어 감개가 무량합니다. 살을 에는 듯한 감옥의 냉방에서 추위에 떨면서도 혹시 여러분이 마귀에게 시달려 흔들리지 않을까, 낙심하여 떨어지지 않을까, 늘 염려가 되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을 주님께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이 역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보다도 주님이 더 걱정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 안에서 이상 중에 주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과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던들 나도 마음이 약해졌을 것입니

다. 나는 주님의 가르침과 내가 겪은 고난을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 이 역사를 더욱 힘차게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피 권세로 반드시 이 역사가 무슨 역사인가를 더욱 뚜렷이 보여 주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것만이 나와 여러분이 당한 핍박과 수모를 보상받는 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떠들어도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서는 성경에 예언된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부름을 받은 백성들에게 은총이 내리게 되어 있으며, 실제로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상상조차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우리 역사에 불어 닥친 광풍은 주의 뒤를 따르는 ‘좁은 문’이 얼마나 험악한가를 실증해 보여 주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헤어진 지 한 두 달이 지나고, 여러분 중에서 무려 3분의 2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심령이 병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이상 중에 보았습니다. 그때의 내 심정이 어떠했을지 여러분은 얼른 짐작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았던들, 지금 이 자리는 텅 비어 있을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두텁거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이 역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가 여기 없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께 말씀드려, 매주 목요일 저녁 일곱 시 반에 여러분이 집에서 그릇에 물을 떠놓고 나와 함께 기도하여, 내가 직접 입김을 불어서 된 것과

똑같은 생수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동안 세상을 떠난 분의 시신도 그 생수를 발라 종전과 마찬가지로 아름답게 피어난 것을 여러분이 직접 목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수를 통하여 당신이 세운 종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 역사가 무슨 역사인지 능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께서 많은 편지를 보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안에서는 편지 한 장 마음대로 쓸 수 없어 일일이 답장을 보내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써 보낸 간절한 호소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상상조차 못하는 우직한 간수들에게 적지 않은 감동을 주었다는 것을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전해 드립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역사는 주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안개와 같아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지만, 주님의 피 권세는 세세토록 우리와 같이합니다. 우리는 어떤 시련을 당할지라도 변치 않고 오직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주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 Chapter 32.

#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또한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뒤가 맞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아 논란거리가 되었을 때, 사실 여부를 제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장본인 자신입니다. 그러나 인격이나 성품을 헤아리는 마당에서는 남이 자기보다 훨씬 정확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누구나 자기와 가까운 사람의 인간됨을 환히 들여다보지만 자기 자신의 됴됨이는 잘 모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기에 철인(哲人)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실수나 결함은 눈에 잘 보지만 자기의 그것은 잘 의식하지 않습니다. 설사 의식해도 그럴싸한 이유를 찾아내어 이것을 합리화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가 일쑤입니다. 대체로 사

람들은 자기에게는 너그럽지만 남에게는 가혹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 빠지기 쉬운 큰 함정입니다. 그리하여 형제를 예사로 미워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종들과 회계하려던 어떤 주인의 비유를 들어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주인이 1만 달란트 꺾간 종의 빛을 탕감해 주었는데, 이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꺾간 사람이 빛을 갚지 않는다고 그를 옥에 가두자, 주인이 화가 나서 종에게 탕감해 준 빛을 도로 받기 위해 종을 옥졸들의 손에 붙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마18:35) 하고 덧붙여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 구절을 자주 읽으면서 그런가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가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형제의 실수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무지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모르는 데서 오는 폐단인 것입니다. 즉 자기가 어느 누구보다도 큰 죄 덩어리이며, 주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이 씻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남의 사소한 허물을 감히 탓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누구를 막론하고 죄의 자식이요, 허물 투성이며, 새까만 죄 덩어리인 점에서는 오십 보 백 보입니다. 그러

므로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시비할 건더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하고 남을 미워하고 비난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이런 자는 주께서 탕감해 준 빛을 도로 받아 가는 것입니다. 즉 그가 아무리 잘 믿고, 십일조를 잘 내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눈 밖에 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고, 자기 죄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으려고 한다면 이런 암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죄의 빛을 탕감 받았으니, 나에 대해 형제가 저지른 어떤 죄의 빛인들 탕감 못할 게 무엇이 있겠느냐는 마음이 참으로 우러나, 그 죄를 용서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주의 종으로서 큰 사명을 맡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주기도문에 저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나만큼 남에게 욕먹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탕감 받은 원죄와 유전죄, 그리고 자범죄에 비하면 남이 나에게 저지른 죄는 새 밭의 피라는 생각이 앞서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중심으로 솟아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 자기를 부당하게 해치려는 자를 미워하는 것이 상례요,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리고 이 윤리에는 인간의 본질상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누구나 나면서부터 새까만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시 51:5)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못 받은 것은 형제를 미워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으로 대뜸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내가 형제를 시기하고 미워하지 않았나, 한 번 곰곰이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은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자기가 형제를 시기하고 미워한다면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며, 따라서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100% 믿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용서와 용납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은 불의를 용납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설사 상대방이 자기에게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은혜 안에서 인간의 약점을 너그럽게 헤아려 용서하고 그 책벌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약자의 윤리가 아니라 강자의 덕입니다.

## Chapter 33.

# 아마겟돈 전쟁에 대하여



### 1) 사망과 음부의 열쇠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계1:17-19)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계시록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어 알기 어려운 책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에서 빼느냐 넣느냐 하고 한때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를 알면 계시록처럼 알기 쉬운 책도 없습니다. 마치 인형을 조립하는 사람이 부속품들을 결합시켜 하나의 인형을 만드는 것처럼, 앞뒤의 수많은 계시를 연결 지으면 계시록의 전모가 환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이상 중에 본 주님은 땅에 계실 때의 모습과는 전혀 판판입니다. 즉 그것은 주께서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승천하신 후의 영광된 모습으로, 매우 두렵고 찬란하고 눈부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가 어떤 분인지 잘 알 수 없었으며, 바라보니 눈부신 광채로 말미암아 발 앞에 쓰러져 그만 정신이 얼떨떨해졌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요한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당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리고,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 보여주는 계시를 잘 기록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님의 지시대로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기록했으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계시록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이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던 것입니다.(계22:18-19)

서두에 인용한 말씀에, 주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는 것은 최대의 권한이며, 다음은 만국을 다스릴 이긴자의 권한입니다.(계2:26) 이 두 권한이 주어지지 않으면 만유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열쇠를 가져야만 인간은 비로소 마귀가 잡고 있는 사망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음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망과 음부에서 놓여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당신을 가리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주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잡은 후에 하늘나라의 판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성경에 “사망 뒤에 음부가 따른다.”(계6:8)는 말씀대로, 인간은 죽으면 지성소로 가는 하늘 군병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마귀가 주관하는 음부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열어 주지 않는 한 언제까지나 마귀의 지배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럼 주님은 언제나 마음대로 음부를 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 수 있는 때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한부 열쇠로 아무 때나 열 수도 없고, 또 열 필요가 없으며, 열어도 안 됩니다. 왜? 주께서 설사 지금 당장 열쇠로 음부를 열어 갇혀 있는 영들을 모두 내놓더라도 연약하여 앞으로 있을 아마겟돈 전쟁 때 하나님께 도움이 되기는커녕 마귀에게 미혹되어 하나님을 등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열어도 무방할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건은 주께서 직접 마련하시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당신의 종을 내세워 이루게 합니다. 그 내용이 담긴 것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당신의 계시를 기록하여 당시의 일곱 교회에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즉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빨기세탁의 대제사장이 되어 음부의 열쇠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일곱 교회에 이긴자가 나타나 그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국을 다스릴 철장을 가진 자가 나타나 주의 피 권세로 일정한 하늘 군병의 수를 채워 천년세계가 이루어지고, 천년이 지나 아마겟돈 전쟁에서 마귀의 권세를 박살낸 다음에 비로소 음부를 열어, 수많은 영들을 나

오게 하여, 심판을 거쳐 천국에 갈 자는 천국에 보내고 지옥에 갈 자는 지옥으로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이기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던 인간의 영도 음부밖에 갈 데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 등 기라성 같은 대선지자들도 죽으면 그 영은 음부에 가게 마련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피 권세로 비로소 지성소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마27:52 참조)

## 2) 음부는 어디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음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으나, 음부가 어디 있으며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상 중에 주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것을 성경에 입각하여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떠났을 때 음부에 가서는 안 되지만, 가야 할 분이 많기 때문에, 미리 음부가 어떤 곳인지 예비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리라.”(계6:8) 그러니까 이미 세상을 떠난 여러분의 조상이나 친지들도 모두 이 음부에 가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 이후 음부의 인구는 수천억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음부는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음부는 땅 속 깊숙이 캄캄한 곳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 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곳은 뜨거운 용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는 우주의 무수한 천체에 비하면 실로 좁쌀알 같이 작습니다. 음부는 그런 웅색한 곳이 아닙니다. 유명한 단테의 신곡을 보아도 지옥과 연옥이 땅 속에 있는 것으로 아주 복잡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나는 이 대목을 읽고 쓴웃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음부는 마귀가 주관합니다. 사망은 짓값이며 죄는 마귀와 짝했을 때 짓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 뒤에는 음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부는 마귀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럼 마귀의 세계는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았다 했으며, **(엡2:2)**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가 보았다고 했습니다. **(고후12:2)** 마귀가 잡고 있는 공중 권세란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과 인간이 살고 있는 첫째 하늘의 중간을 차단하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마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밖의 둘째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이 죽으면 마귀는 그 영을 즉시 이 마귀의 세계, 곧 음부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음부로 가지 않는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은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 지성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천국열쇠를 맡기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다스리지 못한다.” **(마16:18)** 고 말했습니다. 즉 베드로는 죽어서 천사의 안내를 받아 지성소에 가서 지금도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6:11 참조)**

이 지성소로 가는 영은 14만 4천으로 수가 한정되어 있으며, 이 밖의 모든 영은 다 음부로 가게 되므로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하나님을 믿어 어느 정도 은혜를 받은 사람에서부터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 무당과 점쟁이 등 실로 천층만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음부란 어떤 감옥과 같은 곳으로 연상하기 쉬운데, 이걸 잘못된 생각입니다. 음부는 어마어마한 세계로, 여기에도 하나님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서열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상에서 마귀에게 크게 충성한 자일수록 대우를 받고 서열이 높은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즉시 보좌에 앉은 왕초에게 보고하고 서열을 정합니다. 이 왕초는 지상에서 올리는 제사나 고사, 푸닥거리 등, 자기 몫의 영광을 차지하고 부하를 다스립니다. 마귀들도 지성소에 하늘 군병의 수가 차면 일대 격전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사코 그 수가 차지 못하도록 훼방하는 동시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 만반의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귀들도 하늘 군병과 능히 대적할 만한 정예부대, 곧 마귀를 충실히 섬긴 열성분자를 추리고 동원하여 대적하게 합니다. 이 마귀의 총사령관을 계시록에는 ‘짐승’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장차 이 마귀의 군병들과 싸우기 위해 이 역사 안에 부름을 받아 훈련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 일대 결전에서 제외시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연약하여 당신의 군병으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받은 사람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로 말미암아 음부에서 놓여나 심판을 거쳐서 하늘나라에 가야만 비로소 은혜 받은 만큼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 3) 최후의 결전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 세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계16:13-16)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의 군대와 창세 이후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온 영의 군대가 벌이는 최후의 일대 결전에 대해 예고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괴롭힌 자가 또다시 하나님께 대적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마귀의 세계에 있는 서열의 일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 주님, 또 다른 보좌, 네 생물 등의 서열이 있는 것처럼, 마귀의 세계에도 용, 짐승, 거짓 선지자 등의 서열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겟돈이란, 히브리어로 ‘므깃도 산’이란 뜻으로, 옛날 므깃도 일대가 유명한 싸움터였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영과 영의 마지막 대결 장소로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는 양쪽 다 아무나

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침을 받은 강력한 정예(精銳)들끼리 싸우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군병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마귀의 군대는 용의 표를 받아 양쪽이 분명히 구별됩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군대는 그 날에 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멸시켜 버립니다.(계19:21, 20:9) 마귀는 이 자기 군대를 하나라도 더 많이 만들어 내기 위해 자고로 혈안이 되어 왔으며, 지금도 무던히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마귀의 괴수 용을 큰 뱀의 몸집에 뿔이 달린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표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머리로 상상한 것으로, 실제로 광채가 다를 뿐 하나님의 신과 흡사하여 그 세계에서 홀로 영광을 받고, 따르는 무리에게 은혜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모습에 대해서는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계13:1-2) 땅에서 피 흘려 사망 권세를 꺾고 승천하여 영광의 보좌에 계신 주님의 모습이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털이 눈같이 희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이 햇빛처럼 빛나는 것과 견주어보면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계1:13-16) 이것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마귀의 세계가 얼마나 어마

어마한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서열이 줄 개 마귀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 군대를 만들기 위해 세상에서 인간을 조종할 때 상대방이 하나님을 등지고 악하게 살수록 자기에게 유리하므로 계속 그렇게 부추깁니다. 예컨대 주님 당시에 마귀의 손에 놀아난 유다나 서기관, 제사장 등은 음부에서는 환대를 받고 나중에는 강한 마귀의 군대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도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창세 이후로 마귀의 앞잡이로 움직인 수많은 영들과 일정한 수의 하늘 군병이 대결하게 되므로 유사 이래의 최대 격전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척척 이루어지게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된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고, 때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적수가 있기 때문에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적수는 창세 이후부터 줄곧 하나님을 괴롭혀 왔으며, 지금도 괴롭히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획 불면 꺼져 버리는 그런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원수를 갚기 위해 저들을 모조리 유향불에 던져 버리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1천



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잡고고…”(계20:1-3)

무저갱은 마귀를 천 년 동안 가둬 두는 곳으로, 천년세계와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무저갱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본문 말씀에는 쇠사슬로 마귀를 결박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마귀는 여러분이 아다시피 영체이므로 쇠사슬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마귀를 무저갱에 던져 가두게 된다는 것을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 쇠사슬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무저갱에 가둔다는 것은 마귀를 빛으로 에워싸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는 빛에 약하므로 저항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달무리처럼 빛으로 어둠을 에워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저갱은 하늘 군병의 수가 차서 천년세계가 이루어졌을 때 만들어지며, 천년세계가 끝날 때 무저갱도 울타리가 무너져 마귀가 놓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제일 요긴한 것은 하늘 군병의 수가 차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무저갱은 만들어지지 않고, 따라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희고 빛나는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자격자가 배출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도 전에는 성경에서 ‘빛나는 세마포’라는 말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도,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전에는 그 깊은 뜻을 알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세계에 가서 직접 보고 세마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성도들에게 강한 은혜로 이 세마포를 입게 하는 것입니다.

## Chapter 34.

# 영적 추수기에 즈음하여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해마다 우리는 이날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 육 아울러 축복 받은 고마움에 대해 특별히 감사의 예배를 올려 왔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광야의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오래간만에 농사를 지어 거둔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를 올린 데서 비롯됩니다. 당시에는 곡식을 모아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收藏節)이라고 불렀으며,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을 기념한다고 해서 초막절(草幕節)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처음으로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감개가 컸을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는 만나로 연명하면서 이런 제사를 드리지 못하다가, 수십 년 만에 처음 손수 땀 흘려 가꾼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은 오늘날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베풀어주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의 예배  
인 동시에, 또한 시대적으로 주께서 내려 주시는 특별한 영의 양식  
에 대한 감사 예배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  
리는 자가 뿌리러 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더러는 흙이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백 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마  
13:3-8)

이것은 누구나 아는 말씀이지만, 그 깊은 뜻을 알고 있는 사람  
은 적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육적으로 해석하면 거의 다 소크라테  
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의 말과 대동소이합  
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은 인생의 추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에게 큰 경종이 됩니다.

농사를 지을 때에는 씨를 뿌리는 사람과 곡식을 거두는 사람이  
같은 농부지만, 인생의 추수, 곧 영적인 수확은 성경 상 씨를 뿌리  
는 자와 알곡을 거두는 자가 각각 다릅니다. 두 감람나무의 사명  
이 그것입니다. 전자는 뿌리는 역할을 하고 후자는 거두는 역할  
을 합니다. 뿌리는 역사에서는 아무데나 일단 마구 뿌려놓지만, 거  
두는 역사에서는 알곡만 골라서 거둬들입니다. 이때 거두는 도구를

성경에서는 ‘낮’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계14:17) 뿌리는 역사에서는 이 낮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낮을 든 자가 단수(單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에 이상 중에 밤나무 밭에 가서, 익어서 땅에 떨어진 밤을 광주리에 골라 담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한 적이 있습니다. 광주리에 담으려면 밤이 익어야 합니다. 즉 익지 않은 밤은 광주리에 담을 수 없습니다. 설사 내 맘대로 광주리에 주워 담아 천국 곳간에 들여놓으려고 해도 하늘에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의 가장 큰 고충이 여기 있습니다. 한 솥 밥을 먹으면서 같이 고생했는데, 누구는 주 앞에 서고, 누구는 못 선다면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이런 일은 없어야 하며, 또 없도록 피차에 힘써야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을 나무로 비유하여 신앙의 척도를 말씀드리자면, 어떤 나무는 덩치는 큰데 열매가 달리지 않고, 어떤 나무는 아주 작지만 열매가 다닥다닥 달려 있고, 또 어떤 나무는 가시밭에서 잘 자라지 못하고, 어떤 나무는 길은 멀쩡한데 속이 썩어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들을 모두 잘 가꾸어 좋은 열매를 맺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시이며, 그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이런 말은 물론 우리의 섭리 안에 부름을 받은 여러분이 날이 갈수록 더욱 실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뿌리는 역사와 거두는 역사는 당연히 긴밀한 함수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인 하나님의 두 종 가운데 전자는 조만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동

안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양자 사이는 원만치 못할 정도가 아니라 최악의 사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별로 이상할 것이 없는 일로, 성경을 새삼스럽게 인용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에는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각자 갈 데로 가게 마련인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앞선 종의 신상에는 금년 하반기에 와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의 입술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여 탄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렇게 열렬히 십자가와 보혈과 부활을 증거하던 분이 어떻게...,” 하고 귀를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식 밖의 일도 하나님의 역사에는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라는 라이벌(경쟁자)이 없었던들, 점을 치러 무당을 찾아가는 추태를 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삼상 28:8 이하 참조)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 있게 내리매,”(삼상 18:10) 이것은 비단 구약 시대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뿌리는 역사는 일하기 쉽고, 거두는 역사는 일하기 무척 어렵습니다. 전자는 은혜를 끼쳐서 모아들이기만 하면 되지만, 후자는 다듬어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분이 모자라는 나무는 물을 대어 줘야하고, 병든 나무는 고쳐 줘야 하며, 가시밭에서 자라는 나무는 옮겨 심는 등 여간 손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뿌리는 역사와 거두는 역사는 양상이 전혀 다릅니다.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어라.’”(계14:14) 본문 말씀대로, 거두는 역사

는 성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 역사가 시작된 청량리 시절의 셋방 성전에서 앞으로 이어질 대성전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지시가 계신 것입니다. 거두는 역사에서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그 동안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깊이 박혀’(호14:5)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의 수가 35명 배출되었다고 보여주셨지만, 이 수는 앞으로 급속도로 많이 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수는 그때그때 당연히 주의 종에게 통고가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니”(계3:12) 하는 말씀이 응해지는 것입니다. 앞선 역사처럼 제1, 제2, 제3의 울타리(신양촌)를 만들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가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하늘 군병을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은혜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 Chapter 35.

# 보물을 천국에 쌓으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6:20-21)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으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가장 명심해야 할 말씀 중의 하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생을 살아가노라면 어려운 고비를 간혹 당하게 마련이며, 그럴 때마다 신앙도 큰 시련을 겪게 마련입니다. 이럴 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은 이 고비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난히 넘길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꽤 허덕이게 되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전자는 하늘에서 길을 열어 주시지만, 후자는 방치해 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 중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을 위해 개별적으로 기도할 때에는 평소에 하나님께 충성한 정도에 따라 격차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고 했는데 과연 그렇습니다. 천국에 쌓은 보물은 그 마음의 표시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면 반드시 천국에 보물이 쌓이게 마련입니다. 선지자 말라기는 이 보물의 하나인 십일조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했습니다.(말3:10) 나는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십일조를 내지 않는 사람은 내 백성이 아닙니다.”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앞선 역사에서 하도 물질에 시달려 온 여러분이기에 한두 차례 귀땀을 하는 데 그쳤으나, 십일조는 영육 아울러 축복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일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사람은 그만큼 몸과 마음을 기울이게 마련이며, 이것은 결코 헛되지 않아,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설사 실수를 저지른 일이 있더라도 하늘에서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으로부터 허물의 가림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롬4:7-8)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평소에 근검절약하여 저축하거나 보험에 든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고비를 모면하는 것과 이치가 같습니다. 저금통장에 예금을 해둔 사람이 찾으러 오면 은행에서



는 지불해야 하는 것처럼, 하늘에서도 천국 창고에 보물을 쌓아 둔 사람에게는 축복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며, 또 그래야만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나는 전에 여러분에게, 내가 40세가 넘으면 본격적으로 일할 시기가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편으로 은근히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일을 하자면 어떤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같은 주의 종끼리 ‘교제의 악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립관계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금에 뜻하지 않은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것은 앞선 역사를 이끌어가던 주인공이 자기 입으로 주님의 보혈을 부정한 사실입니다.

이제 감람나무의 가지들은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즉 주님의 보혈을 부정하는 감람나무를 따를 것이냐, 주님의 보혈을 긍정하는 감람나무를 따를 것이냐, 양자택일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 마당에 와서 평소에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길이 열려 우리의 역사 속에 인도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내버려두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하늘에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앞선 역사의 주인공은 이 땅에 형성처럼 나타나 전국의 기성교회를 상대로 놀라운 큰 권능을 행하여 기성교회의 열심장이들을 그 슬하에 불러 모아 은혜를 끼쳐 주었습니다. 이 수가 9만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이들 하나

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다시 뽑아내어 알곡으로 익히는 작업입니다. 나는 이들을 되도록 많이 건져서 하나님 앞에 세우라는 명령에 따라 오늘날까지 일해 왔던 것입니다.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마는, 내가 처음으로 청량리에 제단을 세웠을 때, 앞선 역사의 교역자 40여 명이 몰려와 항의하고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는데, 나는 그들에게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 두고 보시오. 우리는 같은 길을 가야 할 사람들이오. 언젠가는 반드시 한 자리에 앉아야 하고, 또 앉게 될 거요.” 내 말에 저들은 더욱 격분하여 침을 뱉고 뛰쳐나갔던 것입니다. 지금쯤 저들은 어지간히 마음이 착잡할 것입니다.

나는 내 청춘을 놓고 맹세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은 조만간 반드시 들통이 나게 마련입니다. 그때 내가 어디로 도망칠 겁니까? 나는 바보가 아닙니다. 나도 은혜 안에 살던 사람인데, 뻔히 하나님과 주님께 버림받을 일을 무엇 때문에 하겠습니까?

이 역사를 오늘까지 이끌어 오는 동안에 나는 흰머리가 자꾸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능력이 있어도 일해 나가기 어렵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 자신을 위해 걱정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양떼들 때문에 나는 잠시도 마음 편할 사이가 없습니다.

옥중에 있을 때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곳은 책이나 보면서 시간을 보내니 육신은 오히려 편합니다. 나가 봐야 반겨줄 처자가 있

습니까? 애타하시는 어머니가 계시기는 하지만, 내 마음속은 언제나 여러분들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내가 제일 두려운 것은 양떼들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역대의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나만큼 하늘의 움직임에 대해 소상히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전에 사흘에 한 번 정도로 영의 세계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내가 성경에 정통하고 새로운 말씀을 터뜨릴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것은 물론 여러분을 말씀의 체계 안에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감람나무의 역사가 실패로 돌아간다면 주의 역사는 일단 실패한 것이며, 후에는 다른 존재가 나타나 새 예언을 해야 합니다.(계10:11 참조)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이 세대는 지나가야 합니다.

메시아의 뜻을 두 감람나무가 분담하여 이루게 되어 있으며, 전자와 후자는 맡은 임무가 각각 다릅니다. 앞선 역사는 씨를 뿌리는데 그치므로 주 앞에 설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 앞선 종의 입에서 나오게 마련이고, 나중 역사는 거두게 되어 있으므로 주 앞에 설 자의 명단이 그 종에게 통고되는 것입니다. 그쪽은 거두는 섭리가 아니기 때문에 알곡이 생기지 않는 것이고, 여기는 거두는 섭리이기 때문에 알곡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도 할 수 없습니다.

## Chapter 36.

# 천국과 어린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마18:1-7)

주님이 성경에 미리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신 후 인류 역사는 연대가 바뀔 정도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나, 주님에 관한 당시의 세론은 극에서 극을 달려 종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존재는 아리송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권능이나 언변으로 보아 이스라엘의 해방자로서 장차 새 나라의 왕이 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들이 주로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기

대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천국에서 앞자리에 서기 위해 지상에서 되도록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암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주님께 천국에 가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느냐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기는 이들의 입에서 ‘천국’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영의 세계에 어느 정도 눈을 떴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등장한 역대 선지자들은 영의 세계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오는 육적인 혜택을 중요시하고 사후의 문제는 거의 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논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논하지 못했다고 보아야 옳을 것입니다. 선지자 자신이 영의 세계를 잘 알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따라서 구약 시대 사람들의 신앙 자세는 거의 육적인 것에 국한되어 생시에 벌을 받지 않고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공경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혼과 부활이 있느니 없느니 하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논란을 거듭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즉 바리새파는 영혼과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고, 사두개파는 없다고 맞섰던 것입니다.

따라서 똑같이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인간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측과 그렇지 않고 영의 세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확신은 갖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양 파의 주장을 모두 병어리로 만들어 버린 것이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즉 주님이 나타나자 비로소 육적인 가르침에서 영적인 가르침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주님이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천국과 새 생명에 관해 윤곽을 가르치자 사람들은 차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영의 세계를 조금씩 터뜨리는 교수법은 매우 교묘했습니다. 즉 주님은 천국에 대해 직접 가르치지 않고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는 식으로 변죽을 울리는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직접 가르쳐야 무슨 소린지 알아듣지 못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작 이사야의 입을 통해 비유로 가르칠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예컨대 유식한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주님을 찾아왔을 때에는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했습니다.(요3:3)

아무튼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천국에 대해 배우고 어느 정도 윤곽이나 짐작이 갔기 때문에 당치 않은 질문이라도 던질 수 있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면 자동적으로 천국에 가셔도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마18:4) 하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에 썩기를 박은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의도를 모르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니”(마18:5)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일종의 권력 남용을 경고하여 일침을 가한 말씀입니다. 당시에 제자들은 일반인들, 특히 어린이들이 주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함부로 제지시키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양떼를 멀리 떼어놓는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차지한 직분은 세상 권력과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직분이 높을수록 한 생명이라도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입니다.

직분은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고 자기는 뒤로 물러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해서 안 됩니다. 그것은 하늘에 쌓은 공로를 스스로 허물어 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형제끼리 다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상대방을 이기려는 사람은 으레 지게 마련입니다. 이때 억울하고 분해도 참고 당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묘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 뭐 좀 억울하게 당했다 싶으면 상대방을 끌어내려야 속이 시원한 것이 상정입니다. 그러나 이건 패배를 자초하는 길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일을 부지런히 해도, 형

제를 미워하거나 약하게 하여 신앙에 지장을 주면 하늘에서는 그의 공로에서 그만큼 지워버리게 됩니다. 은혜 안에서 남을 억울하게 하거나 눈물을 흘리게 하면 반드시 그 화가 장본인에게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은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신앙 가운데서는 하나의 철칙과 같습니다.

나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역사 안에서 한 사람도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유감스럽게도 몇 사람이 나를 등지고 나간 것은 무엇보다도 내 인격이 부족한 때문인 줄 압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라도 놓친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나쁜 감정은 품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할 뿐, 자기 나름으로는 일리가 있습니다. 목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기가 어려웠듯이, 자연인을 이긴자 감람나무로 알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주님도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깊이 생각해 보면 한 마디 한 마디가 매우 깊고 두려운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이 하시는 말씀이니 빈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의 종도 단상에서 말씀을 전할 때 약간 조심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언제나 설교를 마친 후에는 주의 것을 올바르게 전했나, 내 것이 섞여 있지 않았나, 하고 반성해 보곤 합니다.

나는 하늘의 것을 전할 뿐, 그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냐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습니다. 또 개의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늘에서 일하라는 지시가 없으면 나는 그만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배운 게 있습니까? 연구를 합니까?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입들을 단속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믿음의 형제는 말할 것도 없고, 교역자나 주의 종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해 왔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거의 다 여기에 저축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공로를 스스로 허무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그러기에 일찍이 성경도 “그 입술로 궤휼을 말하지 말라.”(사50:19)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신이 자라고, 우리의 역사가 발전하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 Chapter 37.

#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다



성경에는 빛과 어둠의 싸움이 조금도 숨김없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고금에 성경만큼 정직한 글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전인수(我田引水) 격인 내용이나, 아름답게 꾸민 대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한 일과 못한 점이 그대로 기록되어, 읽는 사람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마치 인간이 단 것과 쓴 것을 먹어 육의 생명이 유지되듯이,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장점과 단점을 거울삼아 영의 생명이 자라게 됩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와 불영광을 돌렸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와 멀어졌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때와 노엽게 했을 때가 그대로 기록되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한한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에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인간

이 교류한 기록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만으로는 그 깊은 뜻을 다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이에 따르는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인간의 생각을 앞세워 성경을 부분적으로 풀이할 때 이런 폐단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노아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오랫동안 신학자들 사이에는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나, 전설이나 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을 해오다가, 몇 해 전에 아라랏산 위에서 방주의 파편으로 생각되는 유물이 발견되어 사실이었다는 것이 판명되었을 정도로 인간의 지각은 매우 미흡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행적에 대해서도 논평이 구구합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노아를 무능한 하나님의 종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종으로서 오랫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텐데, 자기 식구밖에 건지지 못했으니, 언뜻 생각하면 무능한 사람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지시한 것은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여’ 인간을 쓸어버리고 노아의 일가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전도하여 남들을 방주 속에 인도해 들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려운 하나님의 일면을 보고 놀라기에 앞서 하

나님의 근본 의도가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와가 마귀의 꼬임에 빠진 후로 어떻게 해서든지 흠과 티가 없는 당신의 백성을 되찾아 마귀를 소탕하는 역군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노아는 전도에 힘쓰는 종이 아닙니다.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지시대로 방주를 지어 자기 가족을 건지기만 하면 그것으로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때 노아가 선불리 이웃을 사랑하여,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방주 속에 불러들이거나, 인간의 지혜를 내세워 3층으로 지으라는 방주를 4층이나 5층으로 짓는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좇아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인간이 자기 재량으로 일하려고 하면 백 번 다 실패로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지, 지상에서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그 섭리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이것은 땅에 오신 주님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미리 짜 놓으신 각본대로 움직이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대적하는 무리들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에도 주님은 묵묵히 예정된 당신의 길을 따랐으며, 오히려 저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즉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각본에 충실했던 것입

니다.

하늘에서 종을 택할 때 그 종의 행동반경(行動半徑)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테두리를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한다면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눈 밖에 나게 됩니다. 따라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지시는 끊어집니다. 그러니 일이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합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앞세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공경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 신을 섬기게 된 동기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럴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과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법에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사랑하는 아내 이세벨의 꼬임에 쉽사리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건 바알 신을 섬기건 그게 그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합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바알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임금이 이 모양인데다가 이세벨이 권력과 금력을 동원하여 매수공작을 벌이는 바람에 많은 제사장들이 차츰 개종하게 되고, 백성들도 호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늘에서는 잠자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때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엘리야였습니다.(왕상21:29 참조) 아합의 범죄는 하나님의 역사를 비뚤게 인도한 데 있습니다. 그가 차라리 하나님

을 부정했던들, 그 죄는 자기 자신에게만 국한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당찮게 하나님을 바알에게 접붙여 많은 사람을 곁길로 인도하는 큰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처럼 대수롭지 않은 동기에서 엄청난 결과를 빚어내는 것이 마귀의 수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실패하는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도 뒤끝이 좋지 않은 것이 상례인데, 이것은 인간의 생각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즉 처음에는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여건이 나아지면 자기 마음대로 각본을 짜기 시작하여 하나님의 눈 밖에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다윗이나 솔로몬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명령 하나면 안 되는 일이 없게 되자, 자기 생각을 앞세워 행동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이 빠지기 쉬운 커다란 함정의 하나입니다.

앞선 하나님의 역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출발은 화려했으나, 말로는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가 주의 종으로서 제일 경계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인간은 환경의 아들이라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태도만은 자기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오랫동안 교역자 생활을 하다가 한동안 세상일을 하였으나, 믿음 하나만은 추호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연예계에 발을 적셨을 때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예컨대 담배 한 가치, 맥주 한 모금 입에 대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에 잘 보였다

면 아마 이런 점들이 이유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셋방살이로 초라하게 시작되었지만 착착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교인이 적건 많건 나는 주의 종으로서 한결같이 모든 정성을 쏟아 왔습니다. 그 동안에 내 생각을 앞세운 적은 없습니다. 성전을 짓고 심지어 버스, 영사기를 마련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주의 지시에 충실히 따라 왔습니다.

우리 역사를 좀 더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는 인위적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해서 안 되며, 또 해봤자 성과를 올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를 앞세우고, 우리는 여기에 충실히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듯한 일도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될 듯한 일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 Chapter 38.

# 다시 세우는 역사



이 땅에서 30여 년 전부터 베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에 예언된 종 이긴자 감람나무를 세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근 2천 년 동안 전 세계의 기독교 신도들은 주로 바울의 신학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섬겨 왔습니다. 주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기를 바란 이긴자가 배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역사상 사람들은 이긴자를 모르고 예수를 믿어 왔으며, 오늘날에도 거의 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근 2천 년 전에 이긴자가 나타나 역사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나 그 밖의 사도로는 주께서 마귀를 발등상 시키는 여건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긴자의 권능은 계시록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히 설명했으므로 여기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이긴자의 권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입니다. (계2:17) 여기서 만나는 요컨대 영의 약식을 가리킵니다. 이긴자를 통하여 내리는 만나는 ‘감추었던’ 것이므로 모세 당시의 만나와는 다릅니다. 앞선 종을 통하여 이 감추었던 만나를 받은 자의 수가 9만이며, 이들 중에서 알곡을 거두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시이자 나중 종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은혜(만나)만 받았을 뿐, 말씀(흰 돌 위에 기록한 이름)에 서지 못하여 신앙의 뿌리가 얇은데다가, 앞선 종은 사명이 끝났는데도 하나님의 역사의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주님과 교류가 끊기자 사울이 하나님을 저버리듯이 주님을 외면하기에 이르러, 수많은 양떼들이 유리방향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이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이들을 다시 찢어 세우라는 지시를 이미 여러 해 전에 나에게 내렸던 것입니다.

세상은 비웃고 조롱해도 그들은 감람나무의 가지로서 그 진액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심령이 상할 대로 상하고 찢길 대로 찢겨, 이들이 다시 소생할 곳은 미우나 고우나 전 세계에서 이곳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마귀를 발등상 시키는 역사는 이토록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종이 실패했을 때를 대비하여 또 한 종을 예비하여 마무리 짓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종은 실패해도 하늘의 권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빛을 밝혔다가도 어둠에 휩싸이게 되었을 경우에 이것을 다시 빛으로 환히 밝히려고 하면 7배나 어려움이 따릅니다.(마 12:45 참조) 그러므로 앞선 종과는 치리의 양상이 달라야 합니다. 예컨대 앞선 역사에서는 신유의 은사를 크게 베풀어 많은 환자들의 병을 고쳐 사람을 모아 들였으나, 우리 역사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유의 은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병을 고쳐 사람을 모으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병이 낫지 않는 사람은 병원에서 고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이 안쓰러워 신유의 은사를 베푸는 데 치중한다면 나는 환자들 틈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앞선 역사와 나중 역사는 양상이 다르며, 또 달라야 합니다. 사명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수에 의해 시체가 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앞선 역사에서는 시체에 생수를 바르고 성도들이 몇 시간씩 찬송해야만 비로소 변했지만, 우리 역사에서는 시체에 생수를 바르고 5, 6분만 지나면 아름답게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수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크기의 얼음덩이도 10도의 열을 가하면 오랜 시간 후에 녹지만, 100도의 열을 가하면 곧 녹는 것과 이치가 같습니다.

그럼 우리 역사에서는 생수가 강하므로 영이 한결 더 맑아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영적으로 때를 더 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앞선 역사의 생수로서는 정결함을 입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때가 덜 묻은 빨래는 비누 하나로 빨 수

있지만, 때가 많이 묻은 빨래는 비누가 여러 개 필요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생수가 강하게 내리는 것은 나중 역사에 모인 식구들이 순수성을 잃고 지칠 대로 지쳐 있다는 반증도 됩니다. 하늘에서는 이것을 알고 생수를 강하게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앞선 역사에서 놀라운 성령의 은총을 받고 떨어진 사람은 심령이 불신자보다도 더 완악합니다. 이들 중에는 세상에서 자행자지하면서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면 채찍을 가해서라도 곤욕을 치르게 하여 당신의 품으로 불러들이십니다. 이런 사람의 심령은 죽은 후에 생수로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생수를 발랐을 때 그 시체는 숫제 주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의 시체보다 훨씬 더디 변하게 마련입니다.

어쨌든 기독교 역사상 생수로 시체가 변하는 것은 역대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이긴자 감람나무의 역사에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생수는 영을 맑히는 하늘의 만나로, 이긴자를 통하여 값없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계21:6-7) 그리하여 생수로 죄를 씻고, 이슬과 같은 성령으로 새로움을 입고, 말씀의 반석 위에 튼튼히 서서,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꺾이거나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신앙이 백향목처럼 굳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마귀를 당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능히 '짐승'을 대적하여 무찌를 수 있는 하늘 군병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때에 등장하는 짐승의 밥이 될

군병은 100만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오늘날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음녀’보다도 훨씬 강력한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이 음녀를 이기고 세마포를 입었다고 해서 이 짐승도 능히 꺾어 버린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년세계에서 주와 함께 하면서 이 마지막 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짐승과의 일대 결전에서 하나님의 군병을 총지휘하는 것은 주님입니다.(계 19:11-15) 이것을 보더라도 이 영의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역사와 그 뜻에 대하여 여러 해 동안 여러분에게 외쳐 왔으며, 그 내용은 이미 나온 여섯 권의 설교집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도 앞선 역사와는 양상이 다른 일면입니다. ‘흰 돌’에 기록한 내용이 쏟아져 나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집은 우리 식구끼리만 보자고 책으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너나없이 보아야 할 책입니다. 아마 이 설교집이 이영수가 아니라 어떤 신학 박사의 이름으로 나왔다면 지금쯤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박사의 이름을 파는 것이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못됩니다.

감람나무의 역사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역사에 내리는 영적 만나는 우리 육안으로도 볼 수 있고, 따라서 사진에도 찍혀서 나옵니다. 앞선 역사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사에서도 성화가 조

작이라고 해서 말썽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역사에서는 컬러로 나와 사직 당국이 유능한 기술자를 데려다가 아무리 실험해 봐도 끝내 그런 사진을 찍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때 기성교회 집사로 있다는 사진사와 나는 이런 말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순절 날 불과 같은 성령이 내렸다고 쓰여 있는데 이것을 인정하지요?”

“인정합니다.”

“그때 그 성령은 사람들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당시에 사진사가 있어 현장에서 셔터를 눌렀다면, 사람의 눈에 보인 그 불과 같은 성령이 사진에 찍힐까요, 찍히지 않을까요?”

“사진에 찍히겠지요.”

“옛날에 내린 성령이 오늘이라고 내리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이 성화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카메라에 담긴 것뿐입니다.”

“...”

과학이 극도로 발달되어 달나라에 왕래하는 이 시대에 어떤 어리석은 놈이 하필이면 사진을 조작하여 하나님을 팔겠습니까? 신의 역사를 인간의 머리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람나무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마귀가 아무리 극성을 부려도 하나님에게는 무릎을 꿇게 마련

입니다. 남이 뭐라고 해도 우리의 역사는 서서히 전진할 것입니다. 또 나는 기필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생애를 바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초창기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내릴 것이며, 안찰도 여러 배나 강하게 될 것이고, 말씀도 차원을 달리하여 천국의 비밀을 본격적으로 터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알곡을 거두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14:15 참조)**

## Chapter 39.

#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옛날부터 사람들은 사는 도리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해 왔으며, 따라서 그 가르침도 풍성하지만, 여기서는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깊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사는 길은 여러 갈래이지만, 이것을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중심의 생활과 인간 중심의 생활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전자의 생활, 곧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체는 어떤가요? 내가 과연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합니까? 아무도 그렇다고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의 탄식을 상기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따르는 사람의 고민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죄를 씻고 주 앞에 서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후 주님의 길 예비자 세레 요한 때까지 2천 년 동안 꾸준히 당신의 종을 보내어 역사해 왔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권능도 성령에서 비롯되었었지만 이때 성령은 인간이 살아 있는 동안만 교류하였고, 일단 사람이 죽으면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계획과 오랜 준비와 정지작업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가로막는 세력이 도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기 위해 아들의 깨끗한 피를 필요로 했으며, 그 피 권세로 주님은 마귀의 손에서 음부의 열쇠를 빼앗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피는 실로 인간 회복을 위한 비밀 중의 비밀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까요? 이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구하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덴동산에서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를 지으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없는데 높은 울타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유괴범이 없는데 어린 자식에게 남의 꼬임에 빠져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잡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



기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결코 평화롭고 영화로운 세계를 발족시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처음으로 발설하는 말입니다. 에덴동산은 평화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을 해칠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험 부담이 전혀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라면 자기가 하나님께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들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릇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필요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는 네가 필요해서 지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다오.” 하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인간을 무엇에 쓰시려고 할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걱정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하늘에는 인간을 짓기 전부터 어둠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을 때려 부수기 위해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요컨대 인간은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어둠의 세력을 무찌르려는 것이 섭리 중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마귀를 물리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세대가 억만 년 흘러도 이 원리만

은 변치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기 위해 인간을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사43:7)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려면 적대 세력이 완전히 소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의 하늘 군병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책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지으실 때, 이들이 도전을 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에게 경고했으나, 이들이 그것을 어겼을 때 아담, 하와에게는 악의 독소가 침투되었던 것입니다. 마귀를 무찌르기 위해 지은 인간이 이처럼 마귀에게 무참히 패하면 하나님은 차라리 인간을 짓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한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창6:7)

하나님께서 마귀를 무찌르기 위한 군병으로써 인간을 지으셨다면 인간은 마땅히 그 뜻을 좇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대적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책을 조직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 아브라함 때부터였습니다.

Part 05.

# 섭리 안에서



40. 언약과 축복 · 41. 한 증거의 성령과 세 증거의 성령 · 42. 영의 아버지와 육의 아버지 · 43. 부활은 육신이 다시 사는 것이 아니다 · 44. 언약과 경륜 · 45.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 · 46. 육적 가나안과 영적 가나안 · 47. 성경을 왜곡한 죄 · 48. 인간은 죽으면 어디로 가나? · 49. 지성소에 대하여

## Chapter 40.

# 언약과 축복



기독교는 살아 움직이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반드시 확실한 보증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보증을 갖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주와 긴밀히 연결되고자 주를 찾습니다. 이것 없이는 신앙 가운데 서자(庶子)의 신세를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연결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주와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우선 큰 은혜의 줄기를 잡아야 합니다.

오늘날은 모세나 바울의 시대가 아닙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주 후 2천 년이 지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섭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때 여러 가지 시험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아무리 사납게 몰아쳐도 이겨내야 하

며, 또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를 이기는 일입니다. 주의 인격으로 탈바꿈을 하고 자기를 능히 이길 때, 비로소 주의 아내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승리가 아니면 패배를 맛보게 마련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에서 패배의 쓴잔을 마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패배는 곧 마귀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행히 이 은총 가운데 접어들어 매우 유리한 여건에서 각자 자기 신앙을 키워 나가고 있지만, 한편 닥치는 시험이 한결 크기 때문에 마음의 무장을 든든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보다, 얼마나 많은 하늘 군병이 배출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진정한 주의 종이란 이를 위해 성도들에게 꼴을 먹여 주는 인도자를 가리킵니다. 그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학식이 풍부하고, 말재주가 뛰어나도, 죄인을 씻어 주 앞에 세우지 못하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이 쓸 만하다고 생각하여 세운 종입니다. 그러므로 그 종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끼쳐 주면 일단 사명을 다하는 것이며, 한편 그 종을 따르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주시는 영의 양식을 흡족히 받아먹고 주 앞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밖의 것은 염두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주의 종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밀어 주는

것입니다. 가령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그를 따르는 성도들은 바울이 전도에 지장이 없도록 뒷바라지를 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곧 주님에게 충성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그 충성의 가장 큰 대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빌4:3 참조)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며, 따라서 주의 종의 공통된 사명입니다.

주님과 사도들 사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들이 주님을 열심히 섬긴 대가는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여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되었을 때, 이들을 열두 보좌에 앉히는 것이었습니다.(마 19:28) 그런데 만일 주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에게 한 주님의 약속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상 중에 천국에 갔을 때 생명책의 인을 떼야 하는 주님이 보이지 않아 슬피 울다가, 주께서 나타나시자 마음을 놓은 것도 당연합니다.(계5:1 이하 참조)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계시지 않으면 생전에 열심히 주를 섬긴 보람도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옛날이야기를 할 것 없이 우리가 눈으로 목격한 앞선 감람나무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 주인공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고 하늘 군병이 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청춘을 희생하며 따랐으나, 오늘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되자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결국은 아무 대가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오르기까지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부르심을 입는 첫째 단계와 택함을 받는 둘째 단계, 그리고 진실하여 생명책에 녹명되는 셋째 단계가 그것입니다.(계17:14) 이 마지막 셋째 단계를 마치면 주의 종과 그 성도의 관계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 후부터 그 성도는 주의 종이 없어도 스스로 자유의 율법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비로소 그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히5:13-14) 그는 주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므로, 새삼스럽게 주의 종이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경지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 Chapter 41.

# 한 증거의 성령과 세 증거의 성령



기독교에서 성령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에 성령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고, 성령이 우리를 감화시키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령은 신앙인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령 가운데서 한 증거의 성령(불)과 세 증거의 성령(불, 이슬, 생수)에 대해 그 사명과 관련시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은 땅에 계실 때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감당키 어려운 신령한 말씀을 전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성령은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인류에게 영생을 보장하는 새로운 성령의 은혜, 즉 생수를 부여 주기를 원했으며, 그 때문에 주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주께서 피를 흘려야만, 다시 말해서 생축이 되어



부활하신 연후라야 땅에 내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요16:7)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진멸하고 인류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지기 위한 감춰진 경륜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 여기 말씀한 ‘내 증인’이란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경륜에 따라 거룩한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성령은 오순절 날, 한데 모여 열심히 기도하는 120문도에게 내렸습니다.(행1:1-4) 이것이 이른바 한 증거의 불의 성령입니다. 120문도들은 이 성령을 받게 되자 용기백배하여 목숨을 걸고 주님이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증거하여 기독교의 기틀을 세우고,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장장 2천 년 동안 성령을 받은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여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전파된 것입니다. 그 동안에 이들 증인은 예수님을 증거한 결과로 기꺼이 목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순교자들은 뿔기세력의 반열에 참여하여 지금 지성소에서 마귀가 완전히 소탕되어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계6:10) 이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절차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았으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전에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긴자를 통하여 내리는 세 증거의 성령(불, 이슬, 생수)

은 불신자에게 예수를 증거하여 믿게 하기 위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체험하여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행2:17)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불 이외에도 이슬(호14:5)과 생수(요7:38)도 곁들인 세 가지 증거의 성령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역사 안에 동참하여 실제로 불과 같은 성령을 받아 온 몸이 뜨거운 체험을 한 분도 있고, 내가 설교하는 이 단상은 물론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에까지 이슬이 뽀얗게 내리는 것을 눈으로 보신 분, 그리고 생수가 연결되는 체험을 한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증거의 성령의 은혜는 기독교 역사상 오늘날 이 땅에서 오직 이긴자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만 내리고 있으며, 고금동서의 다른 어디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귀한 하늘의 축복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날 이 땅에서 이 위대한 섭리 안에 여러분을 먼저 불러 이런 놀라운 은총을 베풀고 계실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긴자 감람나무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더욱 강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생수로 죄를 씻고(슌13:1)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려는 것입니다.(계19:8) 그리하여 일정한 하늘 군병의 수를 채워서 주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계6:11 참조)

그럼 이 세 증거의 성령을 받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긴자 감람나무와 그 역사를 증거하는 것

입니다. 이것이 한 증거의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세 증거의 성령을 받은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즉 한 증거의 성령을 받은 사람의 첫째 사명이 불신자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여 믿게 하는 것이라면, 세 증거의 성령을 받은 사람의 첫째 사명은 신자에게 이긴자 감람나무가 무엇임을 증거하여 이 역사에 동참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세 증거의 성령이 역사하는 이긴자 감람나무의 시대를 맞아 큰 은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한 증거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순교를 해야만 참여할 수 있는 멜기세덱의 반열에 여러분은 순교하지 않고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한 증거의 성령을 받았건 세 증거의 성령을 받았건 성도의 최고 목표는 한결같이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조건이 다른 것입니다.

## Chapter 42.

# 영의 아버지와 육의 아버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죄를 씻어 주고 믿음을 키워 주고 영계와 교통을 하게 하여, 땅에 속한 여러분을 하늘에 속하게 하는, 놀랍고도 고마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너나없이 성령을 받기를 원하고, 또 성령을 받기 위해 무척 애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들 중에는 어떻게 해야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 부흥회를 쫓아다니고, 가슴을 치면서 부르짖고, 심지어 몇 주일씩 침식을 잊고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 정성과 열의와 끈기는 실로 가상하고 가극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애써도 그들은 끝내 원하는 성령은 감감 소식이어서 받지 못하고 그

만두거나, 반기는 받았는데 이상한 것을 받아가지고 혼자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경우가 세상에는 종종 있습니다. 그 단적인 한 예가 소위 방언(方言)입니다. 나는 방언이 성령의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므로 여기서는 더 언급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방언뿐만 아니라 기도에 열중하다가 몽롱한 가운데 이상한 환상을 보거나 특이한 느낌을 받으면 곧 성령의 역사로 속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특별히 기억하시는 줄 알고 좋아합니다. 소위 말하는 신령과에 속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주문(呪文)을 외워도 이상한 체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아도 이것과 그것이 어떻게 다르며, 그 특징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인간의 노력에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의 노력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노력 끝에 엉뚱한 것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은혜 체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능동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일 성령을 받는 것이 오직 노력의 대가라면 막말로 땀 흘려 일하고 품삯을 두둑이 받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성령은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인간이 노력을 내세워 자랑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노력 않고 낮잠만 자도 성령이 저절로 오느냐 하면 물

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행위보다 은혜가 앞섭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부터가 은혜입니다. 그것은 자기 형실이나 지식의 대가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인간 자신의 선량한 행동을 신성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것이지, 하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격자라도 하나님과 선이 닿아 있지 않을 때 그것은 개인적인 가치에 그칩니다. 문제는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돈독했기 때문에 당신의 종으로 삼은 것이지,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쓸 만한 그릇이라고 인정될 때 하나님께서 부르는 것입니다.

선행이나 공로보다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의 여부를 하나님은 먼저 염두에 두십니다. 그러기에 수십 년 열심히 매달려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별로 매달리는 것 같지 않는데 큰 축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에게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인이 우러러보아도 주님의 눈에 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주야로 울부짖으며 열심히 기도하는 자세도 귀하지만, 구하기 전에 주시도록 하는 신앙 자세가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리 호소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하나마나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오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오게끔 우리는 주

님의 눈에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할 첫째 요건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요건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충분한 요건을 갖출 수 있을까요? 신도 100만이 모여 철야해가면서 기도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어야 하며, 또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에 의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성령 받기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럼 성령을 받을 만한 여건은 어떻게 해야 조성할 수 있을까요? 성령은 하늘의 것이지 땅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땅에 성령을 내려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인간이 마음대로 조성할 수 없습니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사55:6)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하나님의 인홍함을 입을 수 있는 시대이며,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특별한 은총을 내려 주시고 불꽃같이 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 안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2천 년 전에 흘리신 주의 피가 생수로 화하여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즉 안찰에 의해 쉽사리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생수에 의해 심령이 정결해질 수 있고, 기도 에 의해 은혜의 연결을 쉽사리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애써서 되는 일이 아니고, 때를 잘 만났기 때문에 가능

한 것입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에 어떤 신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신부는 매우 경건한 생활을 한 선량하고 성실한 분입니다. 그가 죽게 되자 사람들은 그 시신도 아름답게 되어 있을 줄 알고 가 보았더니 그 모습이 몹시 흉하여 실망하게 됩니다. 나는 이 대목을 읽고 과연 그럴 수밖에 없다고 회심의 미소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고 있는 성령의 은총은 모두가 보혈의 공로에 의해 비롯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 육적인 자범죄 밖에 씻지 못하던 구약 시대와는 달라서, 주의 피로 말미암은 생수는 원죄와 유전죄도 씻어 맑힐 수 있습니다. 영은 하늘에 속한 것이므로 하늘의 존재인 주의 피가 아니고서는 정결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은 핏속에 있으며, 따라서 피가 정결해지면 영이 맑아지고, 피가 불결하면 영도 흐려지게 마련입니다. 피를 움직이는 것은 영이며, 피가 정지되면 영은 떠납니다. 이때 성령이 주관하는 영과 악령이 주관하는 영은 각각 가는 곳이 다릅니다. 하나는 지성소로, 하나는 음부로 떠납니다.

부모로부터 더러운 피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 일생 죄 안 짓고 살 야도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 피를 주의 피로 깨끗이 씻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수양에 힘쓰면 어느 정도 마음이 선해질 수 있지만 영은 씻어지지 않습니다. 피 자체를 맑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의 피로 씻음을 받아 새사람이 되었을 때에만 영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이 새로워지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호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땅의 백성에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말입니다. 그는 육적인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의 아들로 탈바꿈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불사의 생명에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보혈은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여 우리의 더러운 피를 정결케 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영광된 새 생명을 얻게 합니다. 실로 놀랍고도 고마운 하늘의 은총입니다. 이 경우에 성령의 은혜는 이를테면 오염된 피의 해독제입니다.

이 성령은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아무리 애써도 받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게다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어디서나,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보면 사도 시대에 오순절 날 120문도에게 불과 같은 성령이 처음 내린 후로 2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役事)를 크게 부흥시키기 위해 전 세계의 곳곳에서 간간히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기나긴 2천 년 역사에서 돌이켜보면 그야말로 가뭄에 콩 나듯 한 한 증거의 성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이 땅에서는 이긴자 감람나무를 통하여 세 증거의 성령의 은총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로 저 오순절 이후 2천 년에 걸쳐서 내린 성령의 역사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엄청난 놀라운 은총입니다. 내 말이 조금도 과장이 아니라는 것은 이 역사에 동참한 여러분은 그 동안의

은혜 체험으로 잘 아실 것입니다. 기독교사상 어느 시대에도, 그리고 어떤 고장에도 이런 성령의 역사는 없었으며, 또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란 요컨대 주의 피로 죄를 씻는 종교입니다. 이 죄를 씻어 주는 것이 곧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를 원하고, 또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연보하는 이 모든 노력은 결국 성령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차츰 자기를 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나날이 주님에게 가까워지는 생활 - 오늘은 어제보다 가까워지고, 내일은 오늘보다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언제나 제 자리걸음을 하거나, 혹은 뒷걸음을 친다면 한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감천만이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서 저마다 적이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내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줄 때에도 이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하게 안찰하여 여러분의 골수에 박힌 모든 죄를 한꺼번에 깨끗이 도말시킬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보다 하지 못하는 것은 그 뒷감당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여 다시 죄에 물들었을 때 악의 세력은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맹위를 떨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어떤 사람은 40%, 어떤 사람은 50%씩 서서히 도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제일 경계해야 하는 것은 음란죄입니다. 다른 죄는 몸밖에 있으나 음란죄는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을 간직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성령을 간직하는 비결은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즉 생각과 감정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칭찬할 만한 일을 하고 있으면 마귀는 결코 틈탈 수 없습니다.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생활 – 이것이 참된 성도의 생활입니다.

## Chapter 43.

# 부활은 육신이 다시 사는 것이 아니다



해마다 부활절이 돌아오면 교회에서 주님의 부활을 경축하고 찬양하는 행사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부활을 주께서 죽었다가 생전의 모습으로 다시 사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활이란 과연 육신이 다시 사는 것일까요?

부활에 대하여는 자고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전에는 부활이 있느니 없느니 하고 오랫동안 팽팽히 맞서 왔습니다. 바리새인은 부활을 인정하고 사두개인은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이 무렵에 부활을 몸으로 입증해 보인 분이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한 인식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희미한 상태에 있거나 곡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주님은 생전의 말씀대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 제3일만에 살아나(마16:21) 제자들 앞에 나타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요20:20) 생선도 잡수셨습니다.(눅24:42-43) 그래서 사람들은 주께서 육신을 입고 다시 사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상고하여 연결시켜 보면 부활이 육으로의 재생이 아니라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굳게 닫아 건 방에도 자유자재로 출입하실 수 있었습니다.(요20:26) 이것은 뼈와 살을 가지고 있는 몸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께서 나타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도 하였지만, 제자들은 그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주께서 그들의 눈을 밝혀 주시니 비로소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어디론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눅24:13-31) 그런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을 찾았을 때에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동산지기로 오인했습니다.(요20:15) 그야말로 변신(變身)이 자유자재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때려도 아프지 않고, 찢어도 피가 나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부활이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고전15:44)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부활이란 우리의 혼과 영이 새 생명체로 재창조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만일 재생이 부활이라면 80세가 된 노인이 죽었다가 부활했을 경우에 80세의 몸으로 재생되어 얼마간 살다가 다시 죽게 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의 무덤을 찾았을 때 세마포 수의만 그대로 남아 있고 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알맹이만 고스란히 없어진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재생이 아닙니다. 만일 주님이 나사로와 같이 재 생되었다면 지금은 나이 2천 세에 가까워 주름살투성이 정도가 아니라, 숨 쉬는 미라로, 알아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부활이란 이렇게 육신이 다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뼈가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살과 뼈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주께서 그렇게 되도록 변신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유령으로 간주할 우려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의 부활은 인정받지 못하고 제자들은 부활을 증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헛일이 되고 맙니다.(고전 15:14)

만일 주께서 부활체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눈이 부셔 볼 수 없고 그 자리에서 까무러치고 맙니다. 이것은 다 메섹 근처에서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자 바울이 한동안 눈이 멀어 버린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행9:3-9) 이때 주님은 신령한 부활체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빛으로 계시며, 하나님과 방불하여 인간의 눈에 보이게 하려면 육을 입은 몸으로 변모되어야 합니다. 초림 전에 말씀으로 계시실 때의 주님은 신이며, 부활하신 주님도 신이십니다. 신이 육을 입고 잠시 인간이 되어 지

상에 오셨다가 다시 신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육을 입은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길을 열어 놓기 위해서였습니다. 주께서 당신을 ‘길’이라고 부른 것은 이 때문입니다.(요14:6)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만일 인간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영을 하늘나라로 데려갈 수 있었던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그런 곤욕을 치르게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실 수 없었습니다. 사망 뒤에는 음부가 따르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소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계1:18)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연후의 일입니다. 즉 주께서 그 피 권세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게 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열쇠가 마귀의 손에서 주님의 손으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께서 음부에 있는 영을 건질 수 있게 된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 Chapter 44.

# 언약과 경륜



하나님은 인간과 교류하실 때 언약을 맺으시고 이것을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홍수로 멸할 때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창6:18) 이리하여 하나님은 언약대로 노아의 한 가족만 홍수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게 된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그대로 시행하셨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들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



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출6:4-7)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을 통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사7:14)고 언약하여, 역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때그때 많은 언약을 하여 그대로 시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 영의 경주장에서 주께서 언약하신 상을 위해 달음박질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가장 큰 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경기에서도, 가령 마라톤이면 마라톤, 400미터 릴레이면 릴레이에서 1등 했을 때 상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야 신이 나서 열심히 뛰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경기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마10:38-39) 요컨대 주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엄명입니다. 이것은 말이 쉽지 대단히 어려운 주문입니다. 목숨은커녕, 재물을 바치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찾아온 한 청년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마19:21)는 주의 말씀 한 마디에 걸려 주님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재물에 애착을 느끼는 것은 이 청년만이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다 다 같습니다. 하물며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큰 성령의 은총이 없이는 생각조차 하기 어려

운 일입니다.

주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성질이 괄괄한 베드로가 주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마19:27) 베드로는 당시에 주님의 제자들이 처자와 재물도 버리고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를 하고 주를 따르고 있는데, 나중에 받을 상이 무엇인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해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 나를 좇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마19:28) 다시 말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 영광을 받게 되면 이들을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우두머리 자리에 앉히겠다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왕위에 오르면 장관 감투나 쓰려고 바랐던 제자들에게는 실로 엄청난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에서 각 지파를 다스리는 권한이 주어질 것을 언약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상인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영의 세계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받아(계5:8) 읽어보니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 목 베임을 받은 순교자들 중에는 열두 제자들보다 믿음과 공로가 월등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말씀의 원칙에 따르면 이들이 당연히 열두 제

자보다 서열이 앞서야 할 터이지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인계받은 주님은 그 직권에 의해 언약대로 제자들에게 열두 지파를 다스리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예루살렘 성의 열두 기초석 위에 주의 열두 사도의 이름이 쓰여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계21:14)

따라서 구약 시대의 기라성 같은 선지 성인들, 예컨대 아브라함이나 모세, 여호수아 등 할 것 없이 이들은 열두 사도의 슬하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때 각 지파에 순교자의 수가 1만 2천 명씩 차서, 도합 14만 4천의 하늘 군병이 편성되었다면 바로 천년세계를 거쳐 하늘나라가 이루어졌을 터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여, 지파마다 그 수가 훨씬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의 하늘 군병들 중에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통털어 대표는 모두 24명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입니다.(계4:4) 주님이 열두 사도를 열두 지파에 배치할 때 문제가 된 것은 바울의 위치였습니다. 바울은 열두 제자에 속하지 않지만, 그의 달려갈 길을 마쳐 의(義)의 면류관이 예비된 대사도입니다.(딤후4:7-8) 그러므로 바울을 제자들의 슬하에 들어가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언명한 대로 의의 면류관을 쓰고 이십사 보좌에서 나머지 열두 보좌의 하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나머지 열한 보좌는 신약 시대의 하늘 군병 중에서 공로가 큰 사람을 순서대로 뽑아 앉히게 되어 있습니다.

## Chapter 45.

#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

- 모세와 다윗의 행적에서 -



하나님은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 우주의 창조주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재자십니다. 다만 몸소 우리 눈앞에 나타나 직접 치리하지 않는 것이 세상 통치자와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회복하시려는 당신의 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의 종을 통하여 성령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치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이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일꾼을 가리키며, 백성이란 그 종을 따르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즉 종은 지상에서 택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며, 백성은 그 슬하에 부름을 받은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그리하여 거기에는 일종의 주종 관계가 이루어 집니다. 예컨대, 선지자 이사야와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그렇고,

사도 바울과 그 추종자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 사야나 바울을 내세워 그 백성들을 치리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종이 당신의 지시에 따라 백성들을 인도하고, 백성들은 그 지시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당신의 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 공통된 과업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듯 양자는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종이 아무리 위대해도 백성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눈 밖에 나고, 종이 위대하지 못해도 백성들이 잘 협조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를 모세와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고 들어 쓰신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그는 권능도 권능이지만 성품이나 학식에 있어서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실패의 종이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순종과 협조보다도 불평과 원망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목이 좀 말라도 모세에게 불평하고, 배가 좀 출출해도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여간 거슬리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큰 지장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름부음을 받은 종과 그렇지 못한 일반 백성의 차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종이 아니라면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지만, 하

나눔께서 뜻이 계셔서 사명을 맡기고 내세운 종일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특히 그를 가까이 보필하는 측근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점에서도 모세는 불행한 선지자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각 지파 중에서 족장(族長)된 자 한 사람씩 가나안 땅에 보내어 그곳을 사전에 탐지하게 했을 때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의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모세에게 등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온 회중이 모인 자리에서 모세에게 한 보고가 걸작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돌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올 정도로 그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미리 축복한 땅임을 알면서도,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그곳 백성은 모두가 장사요, 자기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밖에 되지 않으니 쳐들어갔다가는 큰코다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민14:2)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영도자를 새로 뽑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설쳤으며, 심지어 “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민14:3) 하고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되니 모세는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회중 앞에 납작 엎드린 채 한 마디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섰습니다. 이들은 이렇듯 험악한 분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모세를 옹호하고 회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동안 두루 돌아다니면서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이하시면 반드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할 것이 못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민14:7-9) 말을 마치자 회중은 박수는커녕 오히려 미친놈의 잠꼬대로 알고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잠깐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열 두령과 그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철부지였는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려다보시고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민14:11-12)

모세에게 무서운 통고가 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는 대목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끼고 기대하시던 당신의 백성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모세를 내세워 새 역사를 펴나가겠다는 두렵고 떨리는 선고였습니다. 이번에는 모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해 내셨거늘,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자비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해 주옵소서!”(민14:13-19)

참으로 이치에 닿는 훌륭한 기도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위대한 영도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보다도 자기를 따르던 백성들을 먼저 염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저들을 사하노라. 그러나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리라.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리라.”(민 14:20-24)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한때나마 위로를 얻으려는 궁여지책으로 이방인 구스(오늘의 에티오피아)의 여인을 취하였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저촉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요 율법의 선포자로서 이 율법에 구속을 받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이방 여인을 취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



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못마땅하여 쭈군거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은 직접 모세를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도 말씀을 주신다고 기고만장했습니다.(민12:2)

인간의 생각으로는 일리가 있는 말이며, 이들이 모세를 비난한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자기가 선포한 율법을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백성이 어떻게 이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견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서 말씀했습니다.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와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민12:8) 하나님이 말씀을 마치자 미리암은 갑자기 문둥병에 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의 기도로 이 문둥병은 비로소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여기서 의문을 느끼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별로 잘못된 것이 없을뿐더러 마땅히 할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세를 두둔하고 문둥병으로 치시기까지 했으니 너무하지 않느냐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당신의 종을 옹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리지 않으면 종의 체통이 서지 않아 당신의 일을 해 나가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름 부은 종을 그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비방하는 것을 싫어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편 다윗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다윗은 모세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 분 다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종이지만, 다윗은 그 사명이나 권능이 모세와는 비할 바가 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왕상3:14)고 말씀할 정도로 다윗을 높이 평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여 인구 조사를 실시하는 등, 하나님 앞에 적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으나 하나님은 다윗을 어여뻐 보았습니다. 그것은 병에 담을 정도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 죄를 깊이 뉘우친 소치이기도 하지만, 밑에 거느리는 백성들의 순종과 충성에 힘입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하시고자 한 일을 착실히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도 세상 지도자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이 점에서 다윗은 행운아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윗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이방 블레셋 군과 대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고향의 우물물이 생각나 주위 부하들을 돌아보면서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좀 길어다 줄 수 없을까?” 하고 혼자 말처럼 한 마디 던졌습니다.(삼하23:15) 블레셋군은 날카로운 무기를 가진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으

로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세 용사가 선뜻 나서서 블레셋의 감시병과 싸워서 무찌르고 베들레헴 성문 옆의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다 다윗에게 바쳤습니다. 임금이 마실 물 한 모금을 떠오기 위해 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의 가룩한 충성을 가상히 여겨 그 물을 마시는 대신 하나님께 드리고 “생명을 돌보지 않고 갔던 사람들의 피”라고 아뢰었습니다.(삼하23:17) 실로 그 임금에 그 신하라고 하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눈에 들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그 밑에 이런 신하를 거느렸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까.

독불장군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에서도 들어맞습니다. 만일 모세가 다윗의 입장에 있고, 다윗이 모세의 입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양상이 크게 달라져 모세는 성공의 종이 되고, 다윗은 실패의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종과 백성은 이처럼 긴밀한 함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입은 자를 영접하는 것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요13:20) 보내심을 입은 자를 무시하고 보낸 자의 기억을 받기를 바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Chapter 46.

# 육적 가나안과 영적 가나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출3:8) 듣기만 해도 기름진 옥토를 머리에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막상 가보니 그 가나안 땅은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커녕 자갈밭이나 다름이 없는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갈밭과 같은 메마른 땅이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기후와 풍토를 조절해 주실 때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가 되어 좋은 수확을 거두어들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하나님을 지성으로 섬겨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세상에 흘러 하나님의 눈 밖에 나게 되면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당신을 공경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 손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묶어 두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농사가 되지 않는 땅에 인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은 유난히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깊이 뿌리를 내린 고장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 버리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원주민들을 싹 쓸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정착시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악질만 죽이고 다른 원주민들을 많이 살려 주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원주민 여자들과 결혼하여 피가 섞이고 인습에 물들어 가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알 신을 제사하는 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츰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들어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오랫동안 고생한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승리로 알았습니다. 즉 일단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하나의 시작이지 결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은 목적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으로 구성된 단일 민족이 뭉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당신의 백성이 굶지 않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도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비바람에 시달려 병들어도 소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대로 약손이 된 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모든 배려는 결실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파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으로 남아 있습니다.(삿2:20-21 참조)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적 가나안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군병들입니다. 육적 가나안이 마귀가 최고로 날뛰는 땅이었듯이, 영적 가나안 땅도 악령의 소굴, 다시 말해서 음부입니다. 성경에는 소돔 또는 애굽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계11:8) 하나님은 이 마귀의 소굴을 치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가장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되지 못한 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갔댔자 마귀의 밥이 되고 말뿐입니다.

이 음부의 열쇠는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계1:19) 그런데 주께서 열쇠를 갖고 계신다고 해서 언제나 마음대로 열 수는 없습니다. 지

상에서 일정한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여건이란 주의 편에서 마귀를 능히 때려눕힐 수 있는 일정한 수의 하늘 군병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군병이 형성되기 전에는 음부를 열 수 없고, 또 열어보아야 마귀를 당해 내지 못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도 세상을 위해 살면 하늘 군병이 될 수 없습니다. 비바람에 견딘 알곡을 거두는 것이 영적 추수이며, 이 추수는 낫을 들고 구름 위에 앉은 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계

14:14)

## Chapter 47.

# 성경을 왜곡한 죄



오늘은 이곳 홍성 에덴성회가 어려운 여건 아래서 뜻 깊은 개회식을 맞이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귀한 장소를 마련해 주신 홍성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동시에 앞으로 이 장소를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그때그때 형편과 여건에 따라서 변하지만, 주님은 변치 않으시고 우리의 억만 가지 죄악을 용서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에 부르셔서, 새로운 구원의 방주에 동참케 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주 앞에 함께 영광을 돌리는 이 역사는 역대의 선지성인들이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이곳은 우리 주님의 극비에 속하



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주소입니다. 못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적은 이곳 홍성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장차 무엇으로 어떻게 주 앞에 기쁨을 드려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기회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곳곳이 개척되어 이처럼 열매가 맺어지고 헌당예배를 올릴 적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는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10여 년 동안 우리 역사를 안팎으로 보살피 주시고 영육 가운데 아울러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덕택입니다.

오늘날처럼 영적으로 깊이 있게 전개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찍이 없었으며, 또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감람나무라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역사가 베풀어지는 가운데, 이미 제2의 역사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2천 년 전에 예고하신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 때문에, 아무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에 부름을 받은 믿음의 식구들이 실제로 이 역사에 적응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열매가 맺어져 전도가 되면 그것으로 족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열매를 맺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 열매가 충분히 익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마당에서 얼마나 많은 참된 열매, 즉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홍성 지역에 이와 같은 성전 개회식을 가짐으로써 앞으로 이곳을 통하여 하나의 기반을 다지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 모이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이곳에 모이는 믿음의 식구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곡이 되어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알곡이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 단계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오늘날 지향하는 역사를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예수를 믿으면 천당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한편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당이나 지옥 같은 것은 알 바가 아니고, 다만 살아 있는 동안에 남에게 착하고 선한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큰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비치기 시작한 것이 앞선 감람나무 역사입니다. 그리하여 천국과 지옥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면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 밝히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감람나무 역사가 나타나면서부터 비로소 계시록이 어느 정도 인용되고, 천국

은 천년세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며, 지옥은 무서운 불 구렁텅이라는 말이 우리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약 30년 동안 감람나무의 역사가 펼쳐지는 가운데, 일반교회에서 배워서 아는 성서의 지식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감람나무 역사 중에서도 알곡을 주님 앞에 거둬들이는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우리의 역사가 알곡을 거두는 역사인가를 성서적인 시각에서 한 번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계시록에는 주님이 지목하는 어떤 특정한 인물이 나타나서 그가 주님을 위해 움직이는 상태에 따라서 주님의 역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느 교회에서나 다 보지만 계시록은 별로 상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여타 성경과 달라서 도저히 인간의 지능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 쓰여 있는 말씀은 육적인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말씀이 아니라, 저 세상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에 뭔가 귀중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래에 와서 앞선 감람나무 역사의 줄기를 타고 뒤를 이어 계시록에 기록된 깊은 하나님의 경륜이 비로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동안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를 믿어온 수많은 백성들에게는 오늘날 이 단상에서 전하는 주의 근황에 관한 말씀은

생소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전에 큰 은혜를 받은 감람 나무의 가지들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생소하게 들려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님은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경륜을 마무리 짓기 위한 숨은 계획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못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선 감람나무 역사가 버림받은 연고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까. 앞선 하나님의 역사는 전 기독교의 핍박 속에서도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났습니다. 그 역사는 바로 주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 내린 은총은 주의 은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의 흐름 속에 이루어져야 할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도중하차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결정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우리가 육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앞선 역사에서 은혜 받은 수많은 양떼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위해 충성했습니다. 있는 것 없는 것 다 바쳤습니다. 결혼도 공부도 청춘도 희생하면서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주의 역사에 전력투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늘에서는 이 역사를 지원해 주지 않고 도중에 외면해 버렸을까요?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깨닫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는 그 줄기를 타고 나가는 제2의 감람나무 역사 속에 몸담고 있더라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은 “내가 마지막 역사를 이룰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눅18:8)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마지막 때가 되면 내 이름으로 서편에서 번쩍, 동편에서 번쩍하면서 갓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고, 내 이름을 빙자하여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믿거나 놀라지 말라. 나 예수의 이름으로 별의별 장난을 해도 진리는 하나뿐이니, 나머지 것들은 묵살하라.”(마24:23-24)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지어놓고 교인 몇 명을 팔고 사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까지 기독교가 산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별의별 기적을 다 일으킨다고 떠들어댁니다. 반점쟁이나 마찬가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에 속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역사를 사이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2천 년 전의 주님은 알고 있지만, 오늘의 주님은 모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가장 명심해야 하는 것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주님의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계시록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후 하늘나라에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고 나서 당신의 12제자 중에서 밧모 섬에 귀양 가 있는 요한에게 지시한 말씀입니다. 약 2천 년 전에 주께서 지시한 내용을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지시는 2천 년 전에 하셨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

는 것은 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2천 년 전에 지시하신 주님이 오늘날 그것을 이루신다면 지시하실 때보다 이루실 때의 주님의 관심이 몇 배나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당시에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인계 받은 다음, 천사들을 통해 지상을 살피시면서 50여 개 교회 중에서 일곱 교회를 택하여 일곱 촛대로 상징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일곱 교회를 얼마나 중요시했는가 하면, 오른손으로 놓치지 않도록 꼭 붙들고 계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 속한 신도들은 당시에 우리 주님이 눈여겨보시고 특별히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당시에 주님은 이 백성들의 일거일동을 낱낱이 기록하게 했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면 서머나 교회에 속한 백성들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못하는가를 일일이 사도 요한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컸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그 백성들에게 요구조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백성들 중에서 이긴자가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일곱 교회 중에서 이긴자가 나타나게 되면 내가 맡겨줄 권한이 있다. 이긴자는 이리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터인데, 이런 존재를 내가 두 사람 세울 것이다. 이 일곱 교회의 신도들 중에서 두 증거자가 나타나게 되면 이 두 증거자는 권세를 가지고 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계2, 3,

11장 참조)

이것이 기독교의 핵입니다. 그동안 그 존재가 나타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만이 전 세계에 계속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즉 이 일곱 교회가 뿌리가 되어 로마에 퍼지고, 프랑스에 퍼지고, 미국에 퍼지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퍼졌습니다. 그리하여 수천, 수백만의 기독교인 가운데서 두 증인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우리 주님은 약속한 말씀을 시행하셔야 합니다. 즉 2천 년 동안 붙들고 계셨던 일곱 촛대를 놓고 그 대신 두 증거자를 붙들어야 합니다.

만일 지금이 아니고, 5백 년 전이나 천 년 전에 프랑스나 영국에서 이긴자가 나타났다면 그때에도 주님은 일곱 촛대를 놓고 두 증거자를 붙잡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두 증거자, 곧 이긴자가 나타나면 주님은 이렇게 방침을 바꾸는데, 지상에서는 이긴자가 나타나기 전의 주님만 알고, 이 이긴자가 나타나서 방침을 바꾼 주님을 모릅니다. 그리하여 지상에서는 이긴자가 나타나기 전의 예수를 믿는 방법을 그대로 고수합니다. 주님은 일곱 촛대를 붙들고 2천 년 동안 지상에서 순교자를 배출시켜 오시다가 대한민국에서 사단의 훼방을 물리치고 이긴자 감람나무가 등장하게 되니 그 관심도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시선이 대한민국에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의 눈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집회를 열어도 누구도 생수가 무엇이고 이슬 같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가, 대한민국에 이긴자 감람나무가 나타나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일곱 촛대를 그대로 붙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두 축대로 옮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상에서는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2천 년 동안 기다리던 이긴자가 나타나니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은혜를 아낌없이 폭포수처럼 내려주셨습니다. 대한민국에 감람나무가 나타나니 주님은 그 그늘 아래 들어온 9만 명에게 하늘에서는 은혜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전 세계의 수억의 기독교인 중에서 큰 은혜를 받은 감람나무의 가지는 9만 명이라고 나중 역사의 주인공에게 공식적으로 통고했습니다. 감람나무의 그늘 아래 들어온 신도들의 충성은 일곱 축대를 붙잡고 계실 때 거기 연결된 일반교회의 교인과는 종류가 다릅니다. 열성도 그렇고, 주님을 섬기는 자세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천사는 “온 세상의 주를 모시고 서 있는 두 사람”(슌4:14)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감람나무는 어떤 한 국가를 상대로 역사하는 인물이 아니라, 온 세계의 기독교를 대표하여 움직이는 인물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를 대표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감람나무가 흔들릴 때에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즉 감람나무 체계라고 볼 수 있는 주님의 각본이 순서대로 맞아 들어가지 않을 때에는 감람나무의 역사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만일 감람나무의 역사가 한 국가의 역사에 그친다면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쇠하여도 미국의 기독교는 흥할 수 있고, 이쪽은 망해



도 저쪽은 흥하니 괜찮다고 하겠지만, 감람나무는 전 세계 기독교를 대표하여 배출된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감람나무가 흔들리면 기독교 자체가 영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붙들고 있는 것도 흔들리는 판인데, 붙들고 있지 않는 것은 자동적으로 마귀의 밥이 되게 마련입니다.

주님은 첫째 감람나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무너져 나갈 우려가 있게 되자, 둘째 감람나무에게 전자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알려 주시고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즉 첫째 역사가 무너지기 전에 제2의 역사를 마련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진지를 무너뜨린 마귀는 두 번째 진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작전을 변경하십니다. 그리하여 두 번째 역사는 마귀가 도저히 부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은 인간의 생각이나 두뇌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은 2천 년 동안이나 일곱 촛대를 붙잡고 계시다가 감람나무가 나타나자 그를 통해 주의 깊은 뜻을 밝혀 왔는데, 앞선 종이 처음에는 감람나무가 둘이라고 증거하다가 얼마 후에 “악조건에서만 둘이 된다. 내가 골리앗을 이겼으니 나 혼자 이룬다.”고 아무 상관도 없는 골리앗을 들먹여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두 감람나무를 하나라고 단정해 버렸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고 계시록의 말씀을 변경시켰기 때문에 깨어 버리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앞선 종은 성경대로, “나는 씨를 뿌리는 종이고, 언젠가는 거두는

종이 나올 것이다.”라고 정직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을 사실대로 전하지 않고 왜곡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그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손을 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당신의 영광에도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 주의 종인데, 감람나무가 둘이라고 증거하고 나서 사람들이 다른 감람나무를 찾게 되자, 자기의 폭발적인 위력이 행세를 못할 것이 두려워 성경을 왜곡시킨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종이다. 나밖에 없다.”고 딱 잘라 말하면 따르는 백성들이 두려워하지만, 또 하나가 있다고 말하면 그 다른 하나를 따르려고 할 터이므로 일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왜곡은 있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앞선 종은 두 감람나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고 주장한 초창기에는 주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했지만, 그 다음 악조건이 어땠고, 호조건이 어떻다고 우길 때부터는 자기 말이 터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즉 그것은 성령의 설교가 아니라 개인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자기 생각대로 말한다면 진리에서 벗어나게 마련입니다.

이것을 주의 말씀으로 다시 가르치는 사명을 맡은 것이 제2의 종입니다. 앞선 감람나무의 역사에서 처음 3년을 뺀 나머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사업이었습니다. 그 동안의 공백을 메우는 제2의 역사가 10년이 걸려서 겨우 제1단계를 마무리 지은 것입니다. 이제 제1단계를 지나 제2단계의 역사에 접어들고 있습

니다.

앞선 역사가 주의 눈 밖에 난 것은 ‘두 증거자’를 하나라고 우긴 데 있습니다. 즉 그 역사에 은혜가 없어서도 아니고, 열성이 없어서도 아니고, 교세가 약해서도 아니며, 오직 성경의 핵심을 변경시켰기 때문입니다. 감람나무가 둘이라는 성경 말씀은 호조건, 악조건으로 왜곡되고, 나중에는 악의 악조건, 호의 호조건 하는 이상 야릇한 말들까지도 범람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제2의 역사가 없었던들 그 베일을 벗길 수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따르는 자들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역사에 부름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알곡을 거두는 때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유심히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말씀을 대신합니다.

홍성에덴성회 개회식에서

## Chapter 48.

# 인간은 죽으면 어디로 가나?



### 1) 홀연히 변화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 그 가르침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기대나 짐작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성경의 권위와 신령한 하나님의 권능과 은총,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 체험이 밑받침하고 있는 확고 부동한 신념입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선교사나 목사, 전도사)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영원한 그 나라를 증거하고,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장본인이 정작 마지막 숨을 거둘 때의 심정은 과연 어떠할까요? 아마도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가 죽은 후에 전개될 세계에 대해 궁금증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생명

길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보장하는 은혜도 받았지만, 과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명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생명의 본질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의 유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창2:7) 이 말씀에는 깊은 뜻이 깃들여 있습니다. 여기서 ‘흙’은 육을 가리키고 ‘생기’는 영을 의미하며, 육과 영이 합하여 인간이 된 것입니다. 죽음이란 육에서 영, 곧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는 것을 의미하며, 육은 흙으로 돌아가 없어지지만 영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라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 하나님의 생기로 이루어진 아담, 하와의 영에 마귀의 독소가 침투하여 대대로 흐려진 영을 본래의 깨끗한 영으로 환원시켜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역사이며, 이 영을 맑히는 재료가 곧 주의 피입니다. 그리고 이 피는 성령의 은혜로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유감스럽게도 아담, 하와가 범 죄한 후로 마귀의 독소로 흐려 있으므로 이것을 맑히는 작업이 앞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것을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그 후부터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마귀의 세계가 그것입니다. 따라서 그 영이 하나님과 마귀의 어느 세계에 속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살기가 하도 괴로워 손수 목숨을 끊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는 죽으면 자기가 겪고 있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육신에서 영이 떠나는 순간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육을 그대로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홀연히 변합니다. 즉 주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 육신이 홀연히 변하여 영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간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면 조만간 죽게 마련입니다. 병들어 죽든, 차에 치어 죽든, 고층 빌딩에서 떨어져 죽든, 수면제를 잔뜩 먹고 죽든, 죽음 자체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하여 목숨이 끊기는 순간 피는 정지되고, 핏속에 있던 생명, 곧 영은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은 하나님께로, 마귀에게 속한 영은 마귀에게로 갈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는 인간을 사이에 두고 언제나 뺏고 뺏기는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물론이고 주의 큰 종일수록 마귀가 짓밟으려고 극성을 부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빛에 대한 어둠의 거부반응인 것입니다. 만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빛이 왔을 때 모두들 쌍수로 환영했을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상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가는 영의 형상은 밝고, 마귀의 세계로 가는 영의 형상은 어둡습니다. 이 어둠에 거하는 사람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빛의 아들일 수 없습니다. 수백

만이 모여서 떠들어도 영이 빛나는 자가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만 원하고 나머지는 별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란 빛과 어둠의 갈림길입니다. 빛 가운데 거한 영은 천사가 지성소로 안내하고, 어둠 속에 거한 영은 마귀가 음부로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음부에는 불신자는 물론이고 소위 믿노라 하는 자들도 섞여 있습니다. 다만 각자 이루어진 정도껏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날 뿐입니다. 이들은 마지막 심판을 거쳐서 천국 백성으로 옮겨지게 됩니다.(계20:12-15) 여러분은 각자 자기가 빛에 속해 있는지, 어둠에 속해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 2) 지성소와 음부

세상에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사는 사람도 있어 고르지 못하지만, 누구를 막론하고 나이를 먹다 보면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평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아서 잠시 머물러 있다 곧 사라집니다. 인간의 생애란 유구한 세월에 비하면 실로 한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주어진 생애를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끝까지 충성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담을 쌓은 채 세상에 묻혀 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한세상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면 문제는 간단한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

가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가야 할 세계가 있다면 그것은 고맙고 반가운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 달갑지 않은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죽음 다음의 세계는 두 갈래로 나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일단 지성소와 음부로 갈라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군병이 될 자격자는 지성소로, 그렇지 못한 자는 음부에 가서 대기하게 됩니다. 영의 세계의 지성소는 이를테면 순교자들의 대기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부는 마귀의 세계로, 계시록에 보면 사망 뒤에 음부가 따른다고 했습니다.(계6:8)

어쨌든 인간은 죽음을 계기로 하여 그가 지닌 죄의 정도를 기준으로 새로 창조됩니다. 다시 말해서 의가 이루어진 정도에 따라 영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구성원도 달라집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14만 4천의 하늘 군병은 주님을 닮아 한 식구를 이루게 되며, 주님과 더욱 흡사한 자일수록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앞자리에 기록됩니다. 오늘날 이 지상에 살고 있는 45억의 얼굴 모습이 각각 다른 것처럼 영의 세계에서도 그 수많은 주민의 영의 모습이 각각 다릅니다. 그리하여 모습이 비슷한 영끼리 한 그룹(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의 은혜로 70% 이루어진 영과 60% 이루어진 영은 각각 다른 그룹을 형성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이루어진 정도가 같으면 영의 세계에서 언제나 서로 만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비록 지상에서 사랑하는 부자(父子)간이나



내외간이라도 좀처럼 만날 수 없습니다.

음부는 어두운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음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연기도 안개도 아닌 것이 자욱하게 끼어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 곧 음부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계를 겪지 말고 지성소를 거쳐 오색이 찬란한 하늘나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어둠에 거한 사람은 죽어서 어둠의 세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그 영이 적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박쥐가 어둠 속에서만 날개 치면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거한 자는 어둠 속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만일 50% 빛 가운데 거하고 50% 어둠 속에 거한 사람이라면, 음부에 가서 50%만 적응하게 되며, 100% 어둠에 거한 사람은 음부에서 100% 적응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는 그 세계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크게 활동하게 됩니다. 이런 자는 빛의 세계에 억지로 데려다 놓아도 눈을 뜨지 못합니다. 적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음부라고 하면 마치 어두컴컴한 감옥 같은 데를 연상하게 되지만, 음부는 그렇게 한정된 곳이 아닙니다. 창세 이후 거의 모든 영들이 가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세계입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 권세로 음부의 열쇠를 차지하시기 전에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이사야와 같은 대 선지자들도 일단은 음부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마태의 신령한 환상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마27:52-53 참조)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수족으로 부리던 큰 선지자들도 음부를 거치는 것을 방지하셨을까요?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께서 반 아들이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그런 곤욕을 치르게 하였겠습니까? 주께서 음부를 열쇠로 열어 그 안에 있는 자를 꺼내지 않는 이상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음부의 구성원은 매우 다양합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악령과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저마다 성령과 악령의 지배를 얼마나 받았는지 음부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인과 흑인 부부사이에 그 중간의 자녀가 태어나는 것처럼, 인간은 죽으면 영의 모습이 성령과 악령이 지배한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성령이 얼마나 깃들어 있고, 악령이 얼마나 깃들어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만일 은혜 안에서 60% 성령의 지배를 받고 40% 악령의 지배를 받았다면, 음부에서는 40%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심판대 앞에서는 40%에 해당되는 심판만 받게 되고 60%는 심판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롬8:1)은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부에서는 은혜로 이루어진 자끼리 집단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만일 지상에 살아 있을 때 똑같이 60% 의로워지고 죽었다면 음부에서 언제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음부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승리함으로써 많은 사

람이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분발을 빌어 마지않습니다.

## Chapter 49.

# 지성소에 대하여



### 1) 흰 두루마기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계6:9-11)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단’은 하늘의 지성소, 즉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하늘 군병들이 가서 대기하고 있는 곳을 말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가리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14:2-3)하고 말씀하였습니다. 성경의 주인공다운 말씀입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처소가 곧 지성

소입니다. 따라서 지성소는 주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둘째 아담인 주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것은 첫째 아담이 범 죄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신령한 아담,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그 후손 가운데 14만 4천의 의인이 순조롭게 배출됐더라면 하나님은 이들을 내세워 악령을 때려 부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구태여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새로운 처소를 마련하는 책임을 주께서 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아담, 하와지만, 흠이 있으면 데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내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반대로 마귀도 악령이 제거되어 자기가 데리고 있을 만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도로 내줘야 합니다. 이 길을 마련하신 것이 주님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길이 마련되면 마귀는 자기가 끌고 간 순교한 선지자의 영들부터 내놔야 합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자마자 무덤이 열려 음부에 갇혀 있던 순교한 선지자의 영들이 ‘거룩한 성’ 곧 지성소로 옮겨갔던 것입니다.(마27:51-53) 이것은 하나님께서 최대의 비상수단을 강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대속의 제물로 삼아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간 인간을 도로 빼앗는 조건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마귀는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완전히 손을 든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마귀대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후 승천하여서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계1:18)고 말씀했습니다. 자물쇠는 마귀가 여전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한 선지자의 영들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 지금까지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막연히 천당에 가 있으려니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난들 이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주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만일 구약 시대에 순교한 선지자의 영들이 직접 지성소로 갈 수 있었다면 나는 ‘양의 문’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지성소에 불러 올린 순교한 선지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 주셨습니다.(계6:11) 여기서 ‘흰 두루마기’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말합니다.

왜 주님은 이때 비로소 그들 구약 시대의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 주었을까요? 지상에서 입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지상에서 입는 조건이 마련됩니다. 한 증거의 불의 성령이 역사하는 동안에는 순교하여 그 자격을 얻으면 ‘흰 두루마기’를 입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죽은 후에 음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성소로 가게 된다는 언약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서 세 증거의 성령이 역사하는 감람나무 시대에는 순교하지 않고도 그 반열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순교해도 음부를 거친 구약 시대의 영들과(마27:52 참조) 음부를 거치지 않은 신약 시대의 영들이 있으며, 또 신약 시대의 영들 중에도 순교한 영들과 순교하지 않은 영들이 있습니다.

이들 영에게는 각자 번호가 있고, 그 아래 지상에서의 세운 공로가 기록되어 순서가 정해집니다. 이 순서는 주님과 마지막 마무리 짓는 종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표(豫表)로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깃을 나눠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계2:26)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이긴자 감람나무가 마귀를 발등상 시켜 주의 일을 땅에서 마무리 지으면 14만 4천의 하늘 군병을 치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동서고금의 만국에서 배출된 의인을 치리하니 곧 만국을 다스리는 것이 됩니다.

14만 4천은 왕이자 심판관이 되며, 이들에게는 각각 분깃(나라)이 배당됩니다. 순번이 앞선 왕일수록 광대한 판도를 다스리고, 또 많이 이루어진 영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따라서 14만 4천은 그 세계에서 나란히 앉아 잠자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들도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각 장관의 방대한 집무실이 각각 따로 있는데, 아담, 하와 이후의 전 인류로 이루어진 그 세계의 규모는 얼마

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그러기에 바울은 이상 중에 그 세계를 보고 말문이 막혔던 것입니다.(고후12:4)

## 2) 멜기세덱의 제사장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계시록 6장에 보면,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서 주께 빨리 그들의 원수를 갚아 달라고 호소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계6:9-11) 이들이 가 있는 곳이 지성소라고 나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이 지성소라는 말은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저지른 그때그때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제사 지내는 곳은 성소이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 제사 지내는 곳이 지성소입니다.(레16:33)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일정한 예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즉 머리에는 금패가 붙은 관을 쓰고, 허리에 띠를 띠고 가슴에 흉패를 붙인 차림을 했던 것입니다.(레8:7-9)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 그 양상이 달라집니다. 즉 아론의 반열에 속하는 대제사장 대신에 멜기세덱의 반열에 속하는 대제사장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의 영혼이 떠나시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들이 열려 자던 성도들이 예수의 부활 후에 거룩한 성에 들어갔던 것입니다.(마27:51-53) 이 거룩한 성을 나



는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세계의 지성소는 구약 시대에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며,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셔서 비로소 마련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아론의 반열에 속하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예복이 필요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멜기세덱의 반열에 속하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예복, 즉 흰 세마포 옷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반열에 속하는 대제사장이 머리에 금패가 붙은 관을 쓴 것처럼, 멜기세덱의 반열에 속하는 대제사장은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주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의 주인공이 곧 주님이십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열에 속하는 대제사장은 어린 양의 아내이며, 이 지성소는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아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계21:9-10) 계시록에는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열두 기초석과 열두 문이 있으며, 보석으로 호화찬란하게 꾸며진 것으로 묘사하고,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다.”(계21:27)하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려면,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계17:14)라야 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주님은 땅에 계실 때 베드로에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마19:28)고 언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상 중에 보니 새 예루살렘 성의 열두 기초석 위에 주의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계21:14) 주께서 언약을 지킨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영광의 보좌에 앉았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 것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상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의 측근자들은 고위직에 등용이 되는 것입니다. 열두 제자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 위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선두에 올라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에 앞에 기록된 순교자의 이름은 뒤로 처지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후에는(계5:1-7 참조) 주님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책을 취할 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린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상 중에 본 바에 의하면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의 제일 앞에 녹명된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주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긴자가 나타나 당신의 생명책에 아내의 수를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은 땅에 계실 때 베드로를 통

하여 이 수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가리켜 “내가 이 반석(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16:18-19)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밀의 경륜이 기록된 책을 취하여 펴보시고 비로소 두 증인 곧 두 감람나무를 내세워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 짓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주께서 직접 역사하시지 않고 두 증인을 필요로 할까요? 이긴자 감람나무가 나타나게 되면 지금까지 주와 겨루던 마귀는 주의 증인인 이긴자와 싸우기에 전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따라서 주님은 여건이 그 만큼 유리해지는 것입니다. 만일 첫째 이긴자가 마귀에게 꺾이면 주님이 직접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두 번째 이긴자에게 더욱 강한 권능을 주어 대결하게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앞선 종의 생수와 나중 종의 생수를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선 종 시절에는 시체에 생수를 바르고 성도들이 몇 시간씩 열심히 예배를 봐야 변했지만, 지금은 바르기만 해도 금방 변합니다. 앞선 역사에 동참한 9만의 성도를 마귀에게 빼앗기면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주님께 대적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다시 주의 편으로 돌이켜 세워야 합니다.

